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申 仁 淑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Make-up technique을 中心으로 -

The study of make-up techniques shown in
make-up relevant history.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銀 姪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申 仁 淑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Make-up technique을 中心으로 -

The study of make-up techniques shown in
make-up relevant history.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銀 姪

李銀姪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年 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초 록

인간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오염된 공해, 자연으로부터 위협 받는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법에 따라 더욱 세분화, 차별화 되면서 화장은 폭 넓은 연령층과 남녀 구분없이 자신의 미를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고 있는 근작에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화장이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역할이 아니라 피부 보호, 피부 노화 방지 및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출하여 주는 “화장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라면 20세기 후반에는 서비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더욱 더 활발해지고 곧 여성 자신의 소득과 지출이 비례하면서 소비 형태, 취향, 기호에 따른 소비 시장, 소비시장 점유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제품이 매일 쏟아지고, 넘쳐나는 제품 홍보는 즉 소비 여성층을 목표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의 불꽃 튀는 판촉 대상이 바로 여성이며 그와 동반되는 것이 “화장”과 화장품인 것이다.

1980년대부터 외국 화장품의 수입과 함께 한국 화장품 시장은 불륨도 커지고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모두 상륙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예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색조 전문 브랜드까지 등장하여 우리의 화장품 색깔이 다양해지면서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즈음 화장문화는 물론 토털 문화로 자리 바꾸어 가고 있지만 화장의 테크닉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개성있는 젊은 세대들은 좀처럼 한곳에 유행의 집착을 두지 않고 여러 형태의 변덕스러움이 유행경향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근대 화장문화사의 변천과정과 화장기법을 요약해 보면,

첫째장인 서양 화장 문화사는 이미 그리스, 로마시대 이전부터 발달하여 표현 완성기인 20세기부터 10년 단위로 유행이 꾸준히 왔다 또 다시 새로운 유행을 낳았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는 에콜로지풍, 자연주의, 신복고풍 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여러가지 유행이 한꺼번에 오는 다중 유행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 화장품 산업이 본격화되고 나라에서 육성하기 시작하는 1961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를 맞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유럽, 동남아, 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고, 화장품 산업 역사가 짧아 아직도 국내 화장품 업계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둘째장인 사람의 조형적 메이크업 테크닉과 분석에서는 여러가지 인체 부위 중에서 얼굴의 부분부분 요소를 따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일러스트로 하나하나 표현하여 이론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가지 눈의 형태나 서로 다른 얼굴형의 분석은 여러 부분으로 조각내어 상세히 설명하였고 실물 사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러스트로 처리하였다.

셋째장은 화장품과 메이크업 테크닉을 조화있게 하려면 품질 좋은 재료 선택이 중요성을 갖고 각 색조 화장품의 유형과 특징, 색상이 주는 성격,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색조 전문 화장품으로 독창적으로 전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화장품에서는 색깔 분류대로 특성 및 특징을 표현해 주었다.

화장문화의 급속한 확대와 많은 전문대학의 미용과 및 피부 미용 학과가 50개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확실한 메이크업 이론과 실기 테크닉의 정립이 확고한 때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과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적가치를 높이는데 화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보다 프로정신과 성실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제품과 그와 걸맞게 테크닉과 제품의 성질을 자세히 아는 정보 지식은 고도의 산업화, 대중화로 가는 21세기 사회에서 보다 나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굳힐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目 次

초 록

I. 序 論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3. 연구범위	4
II. 화장술의 발달사	5
1. 화장의 기원	5
2. 서양 화장 변천 과정	6
3. 근대 한국 화장사 변천 과정	31
III. 화장 표현기법 (Human face & make-up technique)	37
1. 화장술	37
2. 색채와 화장 기법과의 상관관계	38
3.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화장 표현 기법	44
4. 얼굴의 조형적 형태의 특성	65
IV. 색조 화장품의 표현 기법과 적용	72
1. 색조 화장품의 유형과 특징	72
2.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life style 변화에 따른 색조 화장품 이용 실태	92
V. 結 論	95
參考文獻	98
ABSTRACT	100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인간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오염된 공해, 자연으로부터 위협받는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법에 따라 더욱 세분화, 차별화 되면서 화장은 폭 넓은 연령층과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미를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고 있는 근작에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화장이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역할이 아니라 피부 보호, 피부 노화 방지 및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출하여 주는 "화장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화장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몇몇 품목에는 가전제품, 모피, 골프채, 호화가구 등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붙어 있는 품목도 꽤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 부터는 화장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풀리면서 화장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며, 더욱 더 많은 저변확대를 위해 발전을 거듭해 갈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라면 20세기 후반에는 서비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더욱 더 활발해지고 곧 여성 자신의 소득과 지출이 비례하면서 소비형태, 취향, 기호에 따라 소비시장, 소비시장 점유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제품이 매일 쏟아지고, 넘쳐나는 제품 홍보는 즉 소비 여성층을 목표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의 불꽃 튀는 판촉 대상이 바로 여성이며 그와 동반되는 것이 "화장" 과 화장품인 것이다.

1)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 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1.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컴퓨터의 인터넷은 사이버 세계 속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속의 화장문화를 한 눈으로 보고,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원하는 어떠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다.

결국 급변하는 20세기 말과 21세기로 향하는 초특급 현대적 특징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과 가치관마저도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단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 미적 가치의 기준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²⁾

본 논문에서는 이미 기존의 고전적 미적 가치 기준과 현대 사회의 개성 있는 여성 연출에 꼭 필요한 다양한 화장 기법을 접목시켜 틀 안에 박혀 있는 미의 테두리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란 우리 영역에 많은 영향을 준 서양 화장문화의 발전과정과 근대 개화기부터 지금까지 근대 한국 화장 변천을 연구하고 특히 스킨케어 화장품 보다는 색조 화장품의 색의 다양성, 기능성, 테크닉(technique)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화장이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1991년부터 전문대학 과정에 미용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50여개 대학 또는 더 많은 대학에 인기있는 신설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실용학문으로 학문적 영역을 넓혀 가는 동시에 헤어, 스킨케어, 메이크업등 좀 더 구체적, 차별화 된 영역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체계화 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메이크업(특수분장을 제외한)에 필요한 것을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³⁾

본 논문의 목적은 화장문화를 이해하고 다음단계로 화장술메이크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원리와 세세한 원칙까지도 일러스트, 실물사진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2.

3) 김희숙, 앞의 책 p.1.

우리 자신의 피부색깔, 선호하는 색상의 일치(harmony)는 각자 외모의 생김, 분위기, 연령, 개성 등으로 미를 추구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문화, 역사, 화장품, 테크닉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두번째 장에서는 현재까지 유행하는 모든 메이크업의 원류를 서양 화장 문화 발달사를 통해 어원, 화장사, 서양사를 배경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실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전환점으로 메이크업이 단순히 꾸미고 가꾸는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 목적,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16세기(르네상스)부터 자신의 욕구 및 표현과 사회적 지위와 수단을 나타내는 개인적 성향으로 옮겨진 20세기까지 관찰하였다.

최근 영화화된 16세기의 시대극인 엘리자베스 여왕, 셰익스피어 인 러브, 한여름밤의 꿈 등의 영화물, 서양사(엘리자베스 1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마리-앙투아네뜨), 화장에 관련된 전문서적, 잡지신문, 화장품신문 등 화장품에 대한 간행물도 많이 참조하였다.

세번째 장인 조형성 메이크업 테크닉은 이미 많은 형태에 관한 것이 연구화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림을 보여 주는 차원을 떠나,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과 서양의 메이크업 기법을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고 통합하여 이론 원리에 충실하였고 설명도 일러스트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기존에 알고 있는 많은 테크닉이 어떻게 어떠한 원리를 응용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이러한 궁금증을 기

본 원리부터 고급 테크닉 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네번째 장은 이러한 메이크업 조형성을 우리가 사용하고 매일 다루는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배경, 다양한 화장품의 사용법, 화장 기법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이미 우리는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이 현실화되어 제품이 되어 실지로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 제품의 우수성과 제품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서 볼 수 있는 편리한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테크닉을 가진 우리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좋은 작품과 구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시장 마케팅의 향방의 열쇠를 쥔 젊은 소비자층들은 어떤 색깔, 제품, 가격을 좋아하는지 조사 관찰하였다.

3. 연구 범위

화장 문화사는 서양 화장 문화사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인 르네상스(16세기)부터 20세기 까지 간략하게 서양 화장 문화사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하거나 유행하는 화장 문화로 축소하였다. 또한 서양화장문화사의 태동기와 초기발달기인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시대, 중세는 생략하였다.

근대 한국 화장문화사는 서양화장문화사와는 달리 뚜렷한 주류가 없어, 근대 화장산업의 태동기인 1916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유럽보다 일제하 시대로 인해 뒤늦게 화장품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화장품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한국화장문화사에 치우치기 보다는 근대화장산업에 국한하였다.

Ⅱ. 화장술의 발달사

1 화장의 기원

화장품은 영어의 코스메틱 (cosmetic), 프랑스어 꼬스메띠끄 (cosmtique), 독일어로는 코즈메틱(Kosmetic)에 해당한다. 그 어원은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 (cosmeticos)로서 무질서,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chaos)의 반대 개념인 코스모스(cosmos : 우주, 질서있는 체계, 조화)에서 유래하였다.⁴⁾ 인류 문명이 생기면서 무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의 공통된 기원은:

첫째, 미적인 성적본능(性的本能)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주술적,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성별(性別), 사회적 지위, 소속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신체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화장을 사용하는 것이다.⁵⁾

이렇듯 화장은 본능적인 동기와 장식 외적 수단인 신체보호 및 보존을 목적으로 신체에 짐승의 기름을 두껍게 바르거나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눈화장과 같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썬크림 같은 화장품도 태양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화장의 초기 형태는 신체를 소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장식행위, 얼굴, 손, 발 등 신체의 표면적을 미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로 얼굴을 중심으로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서 화장이 분리되게 된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그 기원에서부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팔레스타인 부족

4)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앞의 책 p.6.

5)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p.15.

들의 전설에 따르면 천사 아자렐 (L'ange Azarel)은 엘신 (이 신은 가나안의 주신(主神))의 장수일 뿐 아니라, 신을 거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다.

아자렐은 속죄의 날에 의식을 통해 죄를 짊어진 염소를 받아들이는 사막의 악마로도 나타난다. 이 속죄의 염소는 야훼에게 봉헌된 제물이 받아들여지도록 모든 저주를 혼자서 짊어지고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자렐에게 보낸다'는 것은 '악마에게 보낸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상의 여인들에게 아자렐이 전달한 것은 악마적인 성격을 지닌다. 아자렐이 가르쳐 준 미용술은 천사와 짐승을 가르는 선 위에 위태롭게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⁶⁾

몸 치장에 대한 관심은 여러 금속들, 전쟁술과 함께 장차 신이 육신의 유희에 빠진 인간에게 내릴 재앙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2 서양 화장 문화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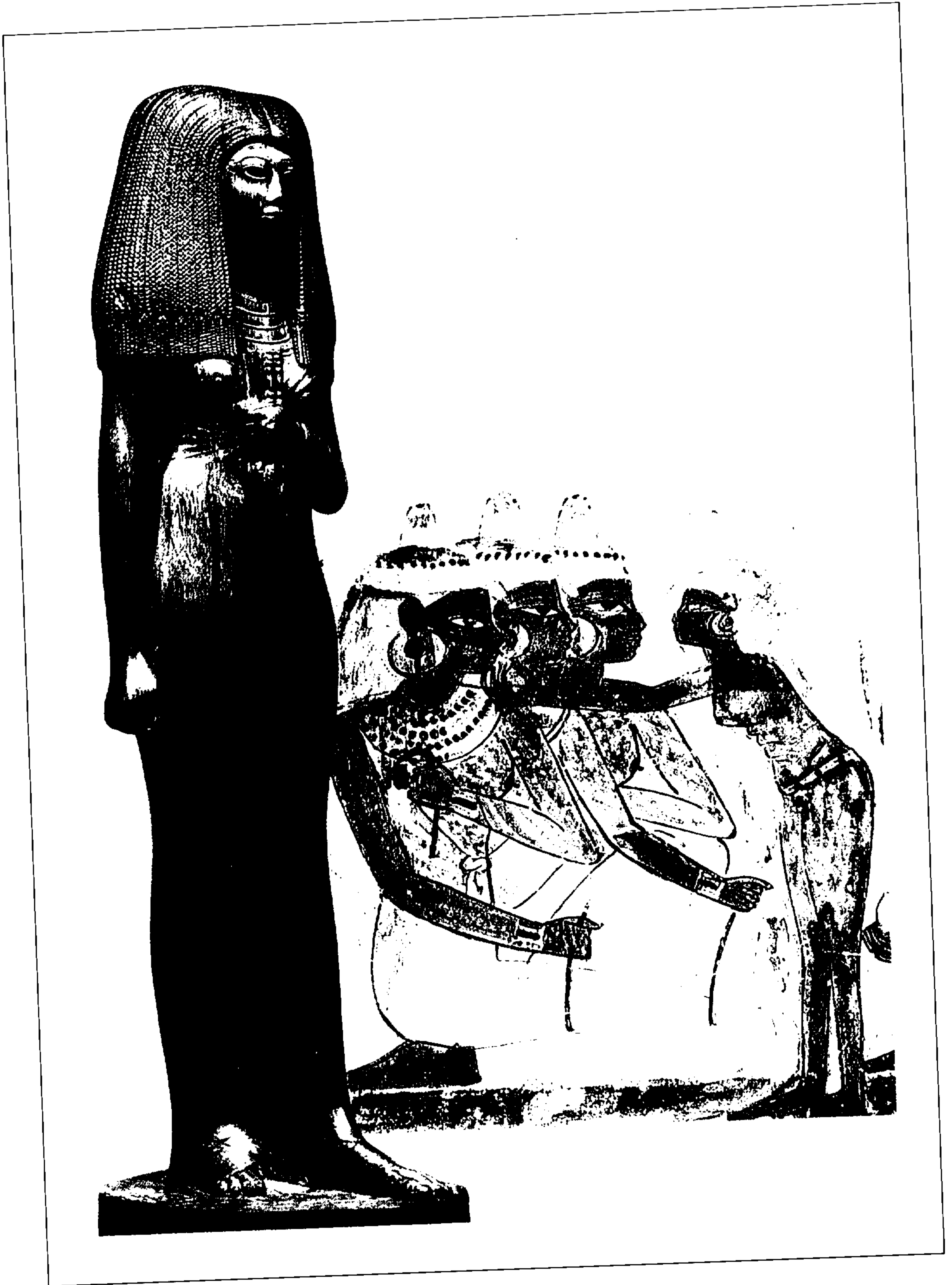
이미 기존의 많은 책과 논문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를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부터 화장 표현의 완성기인 현대 화장 발달까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발달기 (16 ~ 18 세기)

화장 문화의 초기 발달기인 르네상스 시대의 육체는 건축물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해체되어 재건된 육체는 이상적인 규범에 따라 건축되었다. 아름다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체를 분할한 상징적, 수학적 비율과 수열에 따라 정해졌다.

6) 도미티크 파케, (지현역), 화장술의 역사 '거울아 거울아', 시공디스커버리, 1998, p.46.

그림1. 테브(Thèbes)묘의 프레스코벽화의 여성노예들.
여주인을 위해 닦고 온갖 향료를 거두어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여성은 세 가지 흰 것(피부, 치아, 손), 세 가지 붉은 것(입술, 볼, 손톱)과 세 가지 검은 것(눈, 눈썹, 속눈썹)을 지녀야 하며 “아름다움은 신체 각 부분들의 조합과 배합, 비례 그리고 그 목적의 부합성 등에서 비롯한 은밀한 조화이며 일치이다”라고 베네딕트 회의 수도사 아놀로 피렌추올라는 기록했다. 또한 그는 <아름다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다 : Une belle femme est l'objet le plus beau>라는 논문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아름다움은 조물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아름다움 덕분에 우리는 관조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바로 그 관조 덕분에 천상에 대한 갈망을 지니게 된다”라고 썼다.⁷⁾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명되자 처방전과 조제법의 전파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 시기에 유럽의 각 나라마다 세력을 견제하고 동맹을 위한 왕족들 간의 빈번한 왕래와 혼인으로 각 나라의 화장술과 향장이 서로 전해지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의 새로운 화장법이 도입되어 성행했는데 헨리8세와 앤 불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Elizabeth I, 1558 ~ 1603)의 빛나는 넓은 이마, 너무 희다 못해 창백한 피부는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권위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백연(백납)의 덕분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비극이 숨어 있었다.

하얗게 빛을 발하고 난 뒤에는 납 성분의 부작용으로 검게 변색되고 터서 벌어진 얼굴, 썩어 버린 치아와 악취를 풍기는 숨결로 바뀌었고 천상의 아름다움은 질병으로 변해갔다. 화장이란 허영은 죽음 이후에나 볼 수 있을 육체의 부패를 미리 보여 주었던 것이다.

또한 헤어 스타일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 엘리자베스 여왕의 머리색인 적

7) Dominique PAQUET, Une histoire de la beauté, Découvertes Gallimard, 1997, p.43

갈색을 따라 붉고 노란머리가 유행하였으며, 염색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가발을 쓰는 여자들도 많아졌다.

그림2.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그림3. 영화「엘리자베스 여왕」속의 엘리자베스 1세로 분한 호주배우 케이트 블랜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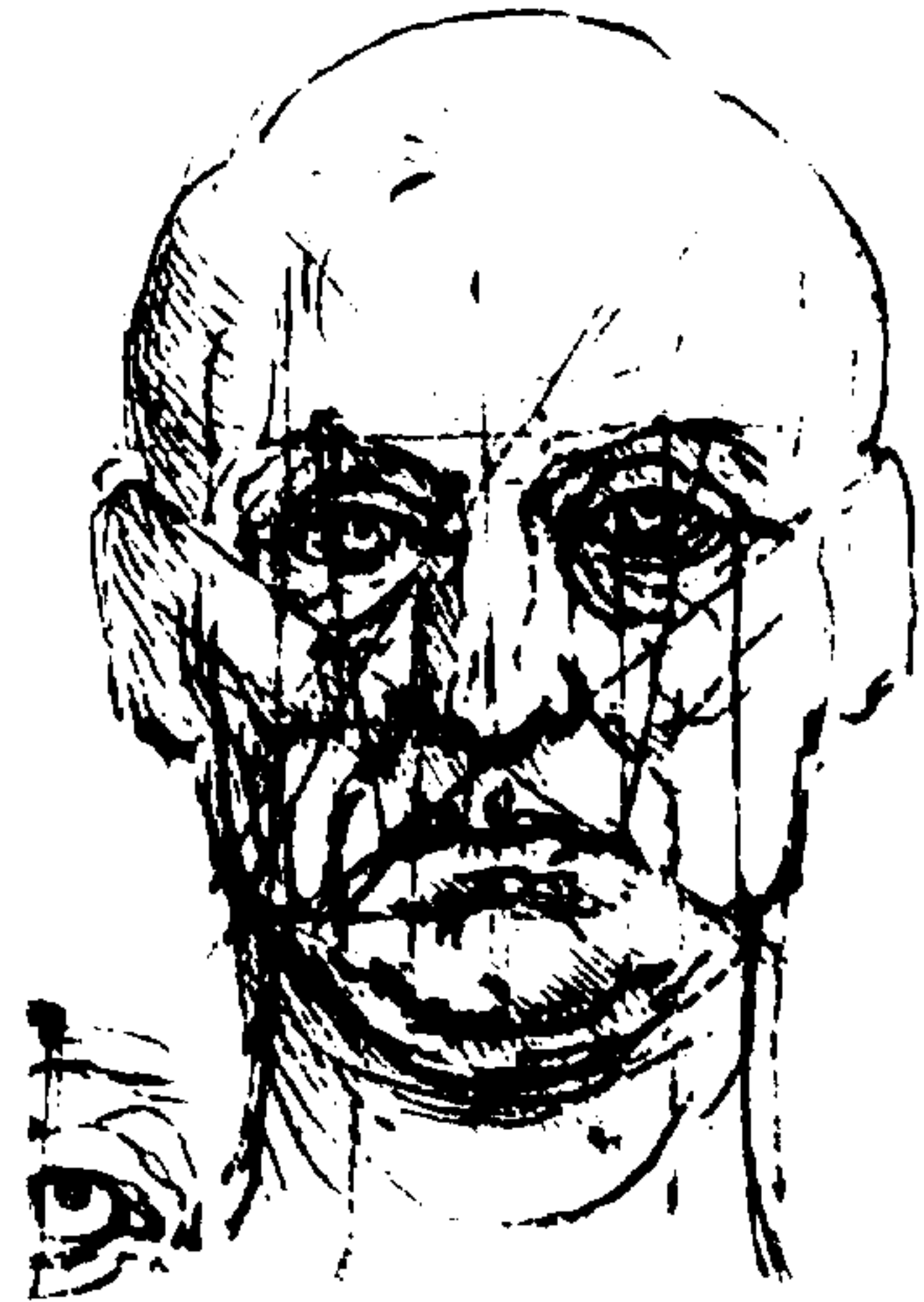


그림4. 영화「셰익스피어 인 러브」속의 엘리자베스 1세로 분한 배우 Judi Dench

그림5. 「르네상스시대」는 인체도 건축물처럼 비례 척도에 따라 각 인체부위도 미학적규범에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림6.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신체 여러부분들을 결합하는 상관관계를 중요시함



17세기(바로크 시대)에 들어서서는 궁정이나 귀족 등 상류층 계급에는 지칠 줄 모르는 자신들의 화장, 의상, 헤어에 대한 관심으로 남녀 모두에게 몸치장은 생활의 중요한 일부였다. 16 세기에 이어 얼굴은 백납분을 발라 고결함을 상징하고 발그레한 볼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반점과 붉은 살결을 감추는 것이 아름다움을 내 보이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였다. 과다하게 섭취한 향신료를 첨가한 음식과 독한 포도주는 여인들의 피부를 홍반으로 얼룩지게 함으로써 정숙한 모습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피부가 햇볕에 타는 것을 꺼려했던 부인들은 나들이 할 때 얼굴 위에 고정가면을 쓰기도 했다. 또한 태양왕 루이 14세(Louis XIV)가 처음 쓰기 시작하여 후에는 모든 궁정인들이 착용한 흰 가발은 머리에서 까지 순백을 찬양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귀족 소수 여성들은 빠짐없이 연지를 바르고, 달, 초승달, 별, 혜성 같은 애교점이 인기를 끌었다.



그림7. 인간의 노쇠는 덧없음을 비유

그림8. 「바로크 시대」귀족여인의 애교점과
손에 든 가면은 햇볕을 막기위한 가리개



18세기(로코코 시대)에도 여전히 백납분을 바른 얼굴의 흰색, 관자놀이 부근을 갈색, 입술 주위는 밝은 색조로 칠했고,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만 원형으로 연지를 발랐다. 특히 여성들이 허리를 가늘게 만드는 코르셋 속에 감추어진 상체, 실제보다 부풀어 보이게 하는 고래뼈로 팽창된 둔부, 아주 굽이 높은 신이나 굽이 안쪽으로 기울어지 신으로 작게 보이도록 만든 발, 잘 길들여진 몸의 각 부분은 이러한 허세를 위한 장치 덕분에 여성들에게 무기력, 우울증, 빈혈 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1750년경에는 계몽주의자들인 백과전서파 (l'cole encyclopdique)의 영향으로 과도한 치장은 점차 사라졌다. 사람들이 점차 인위적인 색채보다는 자연스런 질서 또는 무질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왕녀인 마리-앙투와네뜨 (Marie-Antoinette)가 루이 16세(Louis XVI)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런 아름다움의 전통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들어오면서 연지는 사라지게 되었다. 창백함이 다시 유행하였으나 분으로 꾸미지 않은 창백함, 눈과 입에 가벼운 떨림을 전하는 자연스런 감정의 움직임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창백함이었다.

그러나 루이 16세의 우유부단함과 마리-앙투와네뜨의 그칠 줄 모르는 과도한 모발 비용, 사교 모임 지출은 궁정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결국 두 사람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연지와 흰 가발은 바스티유(Bastille) 감옥과 함께 함락됐고 구체제 (ancien r gime)는 화장 밑에서 국민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9. 마리앙투아네뜨 초상



그림10. 루이 16세 초상화



2) 성숙기 (19 세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 솔직하고 자연스런 투명한 인상을 찬양했다. 디드로(Denis Diderot)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를 계승한 감상주의와 독일 낭만주의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향은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법과 사고 방식을 쇄신하였다.

19세기 초,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은 청결과 위생학적 관심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의학계는 맑은 물, 세정용 비누, 특히 화장용 비누를 장려하였고, 신체를 보살피는 일에 기독교적 미덕을 결부시켰다.

1841년《신경질적인 여자들의 건강법, Hygiène des femmes nerveuses》에서 오베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Dès 1830, il est de mode d’être défat et pâle comme un mourant, d’avoir le teint plombé ou, les joues creuses parce que cela donne l’air distingué, artistique.” - 1830년 부터, 죽어가는 이 처럼 창백하고 초췌한 습을 보이고, 납빛 안색에 움푹 들어간 볼을 지니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런 모습이 품위있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누런색, 푸르스름한 색, 초록빛이 도는 색 등으로 얼굴이 꾸며졌고, 여자들은 마른 체격을 얻기 위해서 레몬과 식초만 먹고 마셨고, 눈 둘레에 검은 서클이 지도록 밤 늦게까지 책을 읽었으며, 유령같이 창백함, 우물구멍 처럼 깊고 어두운 눈, 청순함이 극에 달한 것이었다. 이 시대는 벨라돈나(belladonna) 또는 아트로핀(atropine)으로 동공이 확장된 눈을 지닌 갈색머리 여인들의 시대였다.⁸⁾

19세기 말 까지만 해도 화장품과 향수는 여전히 소수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 후 화학과 기술의 발달로 화장품과 향장 업계는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술이 개선되어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8) Dominique Paquet, Une histoire de la beauté, Découvertes Gallimard, 1997, p.77.



TOILETTE DES DAMES,

그림11. 처음으로 화장수가 상표와 함께 각기
화장수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림12. 「로코코시대」병들어 맥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벨라돈나(Belladonna)또는
아스트로핀(astropine)으로 창백함,
청순함이 극에 달한 모습

3) 표현 완성기 (20 세기)

화장 문화의 표현 완성기인 20세기 초 여성 해방이란 코르셋과 비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많은 여성들에게 시민권과 참정권의 획득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여성은 근육과 신경의 발달을 위해 여러가지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여성은 육체의 통풍, 세포 조직의 위생, 모든 신체기관의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 여성은 우아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존재이다. 더 이상 여성은 수세기 동안 카톨릭 교회가 모욕해 온 것처럼 죄악과 쾌락의 존재가 아니다.”

1900년 H. Branger의 <여자의 활동> 중에서 나온 글인데 여자도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는 신체,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현대 산업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생산적이며 활력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유기 합성학의 발견, 내분비물과 호르몬의 생화학적 규명, 의학지식의 확산에 힘입어 새로운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가 활발해졌다. 게다가 1906년 ~ 1913년에 시행한 백연 같은 유독물질 사용금지의 의학적 통제와 저가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대량 생산을 합법화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믿을 만한 정보를 담은 광고 관련 정기간행물도 출간되었다. 이런 간행물은 생활용품의 소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문화수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소외, 고립을 극복하는 대체 수단으로 대중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 현대의 대중사회에서 이루어진 문화는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림13. 1910년 무성영화시대 배우 데다바라(TheDa Bara)의 메이크업 스타일



20세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사회적 배경과 메이크업의 경향을 분석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20년대

가) 사회적 배경

1차 대전 동안 여성은 남성들을 대신하여 노동과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인식에 강한 여파를 남겼다.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경제적 자립을 하여 여성 참정권의 보장, 남녀 평등사상을 주장하여 여성 해방을 실현하였다.

나) 메이크업 경향

무성영화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밀가루를 바른 것처럼 흰 얼굴, 눈가에 검정색 라인으로 위아래 검정음영을 둥그렇게 주었다. 검은색 눈썹은 가늘게 아치형으로 찰필로 그렸으며, 독일산 합성 염료로 제조된 입술색은 진한 붉은색의 '큐피드의 활' 처럼, 윗입술은 아주 조그맣게, 아랫입술을 옆으로 늘려 약간 도톰하게 그렸다. 볼에 칠하는 가루연지, 속눈썹을 길고 볼륨있게 만드는 최초의 리멜 마스크라 등으로 화장품은 더욱 다양해졌다.

20년대 말이되면서 여성의 화장이 보편화 되면서 유행하는 화장기술이 일반에게도 널리 확산되었으며, 화장이 여성의 이상적 유형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14. 1920년대의 유행메이크업



그림15. 영화「위대한 개츠비」중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페로우의 메이크업과 의상 스타일



나. 1930년대

가) 사회적 배경

1929년 경제공황은 젊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어두운 색상과 모자 머리 스타일 등 모든 선이 처지고 길어지기 시작했다. 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는 횡행한 사회분위기, 현실적인 고통을 영화의 화려함으로 잊고자 했기 때문에 영화속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대중에게 유행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의 끼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나) 메이크업 경향

30년대의 화장은 과거보다 숙련된 기술로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화운데이션 색도 20년대 보다는 핑크빛이 도는 색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 졌고, 눈썹도 면도로 밀고 두껍게 다시 그린 아치형이 유행하였다. 볼연지도 살구색, 복숭아색 등으로 옅게, 입술 모양도 빨간색의 큐피드의 활 모양의 작은 입술보다는 크게 그려진 입술로 바뀌게 된다. 당시 본보기로 삼은 모습은 할리우드 배우들의 것이 대부분이었고, 유행은 새로운 스타가 나타날 때마다 바뀌었다.

특히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아이 홀(Eyehall) 메이크업에 인조 속눈썹을 덧붙이고, 마스카라를 칠해 눈의 깊이를 더 주었으며, 매혹적이며 신비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여

그림16.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 스타일



지게 된다. 당시 불황이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화장을 비롯하여 세련된 치장에 관심과 선호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 도피를 하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⁹⁾

다. 1940년대

가) 사회적 배경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 영화인들의 미국 이주는 다시금 미국의 할리우드를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한다. 미국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 패션등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패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중 각국 정부는 화장품이 여자에게 ‘빵보다 원초적인 본능’인 것을 확인했고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위력적인 무기’임을 확인했던 시기이다.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이 ‘프랑스 시대’에서 ‘미국 시대’로 그 왕좌가 바뀌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향수, 화장품을 모두 미국에게, 화장품 원료인 염료와 화공약품의 권좌를 누려 온 독일은 미국에게 왕좌를 넘겨 주게 되었다.¹⁰⁾

나) 메이크업 경향

전쟁중에 등장한 핀업걸(pin-up girl)과 함께 성적 매력이 강조된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베로니카 레이크(Veronica Lake) 등과 같은 배우들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다. 육체적인 관능미를 이상적인 여성미로 생각되어 눈썹은 두껍고 각을 준 눈썹, 입술은 광택을 주어 다양한 색조 화장을 보여주게 되었다.

9) 조은별,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앞의 책 p.34.

10) 양덕재, 최신 화장품학, 장업신문사, 1998, p.84.



그림17. 1940년대 메이크업 스타일

그림18. 1940년대 보통여성의 메이크업과
군복의상 스타일



그림19. 헤어스타일



라. 1950년대

가) 사회적 배경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폐허를 재건할 힘을 필요로 했고 전쟁의 승리자인 미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세계는 미국,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축으로 하는 양극 사회가 시작되었다.¹¹⁾

이렇게 2차세계 대전 이후 사회는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들의 능력보다는 가정적이고 외적인 꾸밈만을 강조하였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게 되자 여성들도 일 보다는 결혼이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겉치장, 외모 섹스 어필에 주의를 기울이며 화장은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나) 메이크업 경향

피부톤은 핑크빛이 도는 색으로 칠하고 눈썹도 두텁게 그리고 눈꼬리를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길게 빼어 치켜 올려 인조 속눈썹을 붙인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입술도 여성적이며 입술 윤곽을 뚜렷하게 그리고 입술색도 붉은 색을 칠하였다. 50년대는 전쟁 중 화학기술이 발달해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전시에 수술용으로 제작된 심이 부드러운 연필이 아이 펜슬로 사용되고, 립스틱의 탄생은 메이크업의 대중화에 큰 혁명적 변화와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11)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 문화 비교 연구, 앞의 책 p.56.

그림 20, 21. 1950년대 메이크업 스타일



마. 1960년대

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지속 가운데 중국의 문화혁명, 월남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학의 발달로 컬러 T.V., 고기능의 가전제품 등 생활 필수품이 보급되었다. 또한 교통, 운송수단의 발달로 소비가 증시되는 소비문화 속에서 생활리듬은 빨라지고 스타일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에서 결성된 그룹 비틀즈(The Beatles)의 탄생은 전후 베이비붐의 젊은 세대를 새로운 소비계층, 문화적 주역으로 등장한 이들 자신만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기성세대의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미의식이 반영된 메이크업, 패션, 음악 등이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 메이크업 경향

브리짓트 바르도 (Brigitte Bardot) 스타일 :

관능적인 금발을 흘트려 놓은 듯 긴머리와 짧은 앞머리, 눈 두덩이는 초록, 푸른색과 검정색 라인을 많이 칠하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입술은, 윤곽을 뚜렷하게 그리고 입술 안쪽으로는 펄이 들어간 옅은 립스틱이나 밝은 베이지톤이라 입술이 더욱 크게 보여 성적인 매력을 발휘하였다.

트위기 (Twiggy) 스타일 :

60년대 말에 등장한 그녀는 15세의 눈만 크고, 작은 키에 굴곡없는 작은 체구를 가진 소녀 패션 모델이었다. 기존의 아름답고 멋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감각은 그 당시 대단한 인기였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소녀들의 유형을 표현해 주었다. 주근깨 투성이의 피부도 밝은 색으로 나타내 보이고 인조 속눈썹을 위와 아래로 달고 아이라이너를 그려 큰 눈을 강조하고, 입술은 소녀같이 옅고 밝은 색,

볼터치는 볼뼈 위로 볼그레하게 보이게 칠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모습이었다.

그림22 1960년대 브리지트 바르도의
메이크업 스타일



그림23 50년대말 브리지트 바르도의
청순한 모습



그림24. 60년대 트윅기의 메이크업 스타일



바. 1970년대

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

월남전으로 미국은 반전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젊은 층의 사회의 중심세력인 기성 세대의 부정이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60년대말부터 생긴 히피문화와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생긴 펑크문화는 영국 런던에도 과격하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의 폭발직전의 사회적 욕구 불만과 반항에 맞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창안해 냈다. 남에게 시선과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가학 심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혐오스런 문신과, piercing(코걸이, 입술걸이, 배꼽걸이)으로 기존 사회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우월감을 심어 주었다.

나) 메이크업 경향

히피 스타일

- 60년대말부터 생겨난 히피는 상업주의의 반발로 만연 하는물질주의를 이탈해서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문화를 표출하였다.
-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갈색, 복숭아색, 회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ecology)과 이국풍의 민속적(ethnic) 패턴이 등장.
-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 이지 않고 그 위에 끼 입는 그런지 패션 연출 (grunge look)

펑크 스타일

- 70년대말 중동 전쟁, 오일 쇼크, 실업률 증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나타낸 젊은이들의 반항적인 문화.
- 피부표현은 아주 창백하고 밝게 해 검정과 흰색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검정색 눈썹, 검정색 아이섀도우와 흰색, 립스틱, 매니큐어도 검정색 일색. 얼굴에 기하학적인 선과 공격적인 뾰족한 선으로 표현해 퇴폐적이며 가학적인 면 을 표출.
- 쇠사슬, 개의 목 끈, 안전핀, 면도날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파괴적 이미지

다) 헤어 스타일

무스, 헤어젤로 머리를 위로 세우거나 양쪽은 바리깡으로 다 밀고 가운데 등 일부만 남겨 끝을 뽕족하게 자르고 세우는 인디언의 머리 형태와 비슷하고 여러가지 색으로 염색을 해 파괴적이거나 위협적인 모습.

그림25. 길거리의 펑크남녀



그림26. 70년대 펑크의 대표적 가수
로드 스투어트



그림27. 70년대 말부터 유행한 반짝이, 펄을 이용한 메이크업 스타일



사. 1980년대

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

경제의 발달과 안정으로 유포족(Yuppies)이 생겨나 좋은 직장, 일벌레라는 개인적인 성공과 프로의식을 중시하며 구매력이 매우 높은 고품격 지향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여성들도 과거에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일반직, 전문직 종사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끈기와 단호함을 키워 가치의 창조자요, 능동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가 된 아름다움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매력을 잊지 않는 활동적인 여성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인 아름다움은 항상 빈틈없고 유능한 활력적인 여성의 모습들로 표현되었다.¹²⁾

나) 메이크업 경향

경제적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80년대 초 미국에서 유행을 한 댄스영화의 영향으로 디스코 메이크업은 이전의 메이크업과 달리 화려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칼라와 색 자체에 힘이 많이 든 색을 선호하였다. 황금, 노란색 펄, 보라, 오렌지색과 립스틱도 빨강, 주홍 등 강하고 짙은 색이 유행했다.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초까지 자연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강한 색조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풍이 강세를 보였다.

살색, 복숭아, 연핑크 : 내추럴 풍

녹색, 갈색, 짙은 갈색 : 에콜로지 풍

내추럴, 에콜로지 풍의 피부 특징은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바른다든지, 파우더만 발라 피부에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점이었다. 립스틱도 베이지색 또는 누드 계열 등 거의 희미하거나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호하게 된다.

12) 도미니크 파케, (지현역), 화장술의 역사, 앞의 책 p.88.

그림28. 80년대 초반 미국의 디스코 여왕
도나 섬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림29. 80년대 초반 존트라볼타의 영화
「Saturday Night Fever」중에서



아. 1990년대

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빠른 템포로 움직이면서 그 전까지 10년 단위로 오던 유행도 그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한 해, 한 계절로 바뀌게 된다. 현대 여성들은 모든 것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며 소비 문화의 고급화로 지향하게 된다.

나) 메이크업 경향

내추럴 풍, 에콜로지 풍, 오리엔탈 풍, 네오 클래식 풍, 네오 히피 풍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해되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90년대 중반에는

파스텔 톤과 밝은 칼라가 유행하였고, 광택나는 펄 파우더와 펄 화운데이션의 등장으로 샤이니룩(shinny look), 펄이 들어가 번들거리는 글로시룩(glossy look)도 유행하게 된다.

90년대 말 21세기에 들어갈 즈음에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유행 문화인 이종교배의 특이한 문화도 등장한다.

이종교배의 미학 :

신체의 훼손과 폭력적인 관능성을 통해 몸치장에 대한 취향은 문신, 피어싱(piercing) 등 입, 눈, 가슴, 홍터, 벗겨낸 살갗 등 과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피부 미학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표현했으며 드레그 퀸(Drag-Queen), 호모와 레즈비언의 변장의 옹호와 다른 성을 표방하는 외양을 통해 육체를 애매모호한 것으로 가공한다.

그림 30, 31 내추럴풍의 의상과 메이크업 스타일





그림32 1990년 중반 네오클래식풍의
메이크업과 의상스타일

그림34 드레퀸- 남성여장



그림33 입, 눈, 가슴, 흉터, 피어싱등 과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피부미학



이 미학은 유행, 다국적 제품, 미용기술, 성형수술 등 점점 익숙해지는 세계와 신분 구별적 가치에 편향된 사회 집단들, 소집단 의식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미적 기준들을 결정한다. 이종교배로 이루어진 불안정하기만 한 세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염려가 위험이 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만 있을 뿐이다.¹³⁾

3. 근대 화장 변천 과정

1) 한국 화장의 기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언제부터 화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분명한 기록도 없다. 화장의 기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지만 '고조선 시대에 돼지 기름을 발라 동상을 예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낙랑시대 고분에서 눈썹 화장을 한 여인들의 그림이 출토된 것을 볼 때 화장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음을 알수 있다'¹⁴⁾

하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의 화장 문화가 존재하였을지 의문스러우나 5세기 때의 고구려 고분일 것으로 추측되는 수산리 벽화, 쌍용총에서 발견된 벽화의 여인도 화장을 미루어 볼 때 '국내 고분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록(史錄)에도 백제로부터 향장품과 그 기술을 배워 왔다는 기록이 있다.'¹⁵⁾ 고 전해진다.

그러나, 화장품이 대중화되고 다양성을 갖추게 된 것은 구한말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 중국 등의 화장품이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기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화장,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13) 도미니크 파케, (지현역), 화장술의 역사, 앞의 책 p.95.

14)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 한국 장업 오십년사, 1996, P.29

15)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앞의 책 P.37

2) 일제하의 화장품 산업의 태동

1916년 생긴 박가분(朴家分)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화의 첫호이다. 일제 식민지 탄압정책으로 경제 통제나 기업정비나 하여 상공업자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도 조선사람에게는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허가를 억제했던 때이기에 조선인 명의의 기업이 거의 없었을 때이다.

“박가분의 원조인 박승직씨의 성씨를 따서 박가분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1920년 총독부 식산국에 정식으로 향장품제조 등록(등록번호)하여 포장을 개선하는 한편 박가분이라는 상호와 함께 상표도 박(朴)으로 정해 등록 상표까지 냈다.”¹⁶⁾ 화장품으로 포장까지하여 팔리는 최초의 화장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8·15 광복과 6·25전쟁 전후 화장품 산업(1945-1950)

8·15 광복을 계기로 국내화장품은 생산과 판매면에 우위를 점했던 일본인들의 철수에 따라 한동안 화장품 산업이 회복현상을 보이게 됐다. 또한, 6·25전쟁 발발로 화장품 관련 산업은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미국으로 인해 외제 화장품이 미군 PX를 통해 흘러 오게 되어 외제 선호가 대단하였다.

1945년 이후 1950년대의 화장품 제조 기술은 구전 또는 비방으로 전해 내려오는 처방에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혼란기에 밀수입된 외국제품이 시장이 범람함에 따라 모방생산하는 수준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인정되고 미국의 원조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제조업체들은 품질향상은 물론 기초 화장품 중심에서 각종 유성·건성 화운데이션을 비롯해 립스틱, 콤팩트 등 메이크업류 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다.’¹⁷⁾

16)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앞의 책 P.54

17)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 화장 50년사, 앞의 책 P.32

우리 화장품업계는 제품개발에 관심을 갖었으나 외제 화장품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당시 소비자들로서는 품질이 낮은 국산 화장품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국산 화장품은 다시 침체기에 빠져들게 된다.

4) 5·16이후 화장품 산업(1960년대)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결성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가 제정한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외제품을 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것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팽창하였다.’¹⁸⁾

그리고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화장품업계는 근대 화장품 업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2년 장업계에 새로운 유통경로인 체인 스토어 제도와 방문판매 제도의 도입은 화장품 산업에도 발전을 주고 화장 인구의 확대와 화장품 수요 증대라는 일석 이조의 성공을 주게 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방문 판매는 해가 가면서 더욱 확대되어 1985년에는 전체 화장품 유통의 85%를 장악했으며 상대적으로 시판과 제도 판매는 위축되었다’¹⁹⁾ 고 한다.

이때 등장한 미용사원은 국내 미용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들 미용사원들은 화장품 정보 전달, 소비자 설득, 미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고 잠재 수요를 창출했는데, 90년대 와서는 많은 미용 전문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5,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인기 학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방문 판매제도는 화장품 업계를 성장시키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준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좁아 사양제도로 떨어졌으며 또한 외국 브랜드 화장품에게 백화점이라는 좋은 판매처 자리를 많이 내주게 되어

18)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앞의 책 P.22

19)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장업50년사, 앞의 책, P.34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는 국내 화장품의 열세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5) 국제화 시대를 연 화장품 산업 (1970 ~ 80년대)

1970년대는 국내 화장품업계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흑백 TV 수상기보급의 여파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크게 좁히고 여성의 의식,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의 경제성장은 양적인 규모의 확대는 물론 질적인 고도화가 추진되었으며, 경제 발전은 내수산업의 육성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²⁰⁾

수출 위주의 정책은 우리 정부의 70년대 후반부터 국내 모든 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기술 제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외자 도입도 과감하게 개방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과잉 보호 정책을 지양하고 수입 개방과 외자 도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나갔다.

1980년대는 특히 업계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수출 신장율이 높아졌으며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대상국이 늘어났다.

국산 화장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축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3년 1월부터 수입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했고 1985년에는 개방 조치 후 화장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종래의 기본 관세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외제 화장품의 급격한 수입 억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해외 여행 자유화 등으로 우리 생활은 좀 더 세계화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세계유행 문화나 유행 경향도 급속

20)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 비교연구, 앞의 책 (P.25-26)

도로 빠르게 전달되어 우리의 문화를 살찌우고 연속 무역수지 흑자로 국민 생활은 안정과 풍요 속으로 맞이하게 되고, 외국 수입 화장품은 좋은 한국 시장을 목표로 많은 준비단계와 철저한 시장 마케팅 조사로 한국 시장에 군침을 흘리며 국내 주요 백화점의 수입 화장품 코너가 타겟화 되기 시작했으며 수입 화장품의 급증과 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 협상과정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위축되고 백화점 영업까지 외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에도 제품의 차별화와 화장품의 기능성 비중을 높이고 자연성분을 확대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화장품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제품개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6) 자유 경쟁과 소비자 보호 시대 (1990년대)

90년대 초는 에콜로지, 자연주의와 신복고풍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자연 계열 색상이 부각되었고, 경제의 풍요로움에 자연스러운 색상과 자연친화적 화장품이 더욱 고급화 되어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90년 7월 화장품 도매업 개방, 1992년 11월 부분적인 소매업 개방으로 백화점 진출이 가능해지자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은 간접 진출에서 국내에 독자 판매망을 구축하는 직접진출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내 신방문 판매 시장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다단계 판매기법을 사용하는 외국 유명 방판 화장품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몰려들게 했다.

이로 인해 국내는 춘추 전국 시대처럼 세계화장품과 국내 브랜드의 치열한 자유경쟁 시장으로 돌입하였고 IMF이후 주춤했던 수입 화장품이 최근 들어 증가와 성장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로서 소비자는 수입품과 국산 화장품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지고,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생겨남으로써 소비자들은 가격도 보호받은 일석이조가 된 셈이다.

1970년부터 국제화 시대를 열어 1980년 자유개방 시대로 열어 1990

년대는 무한 자유경쟁시대로 치닫고 있고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서비스 개선, 제품의 고급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추어 가는 소비자 위주의 화장품 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2000년 밀레니엄을 가고 있는 최근에는 더욱 자연주의와 친화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어필한다고 한다. 이제는 국내 화장품업계도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글로벌(global)시대에 맞추어 우리 제품도 세계화 되어야겠다.

Ⅲ. 화장 표현 기법 (Human face & 메이크업 technique)

1. 화장술

화장이란 여자가 단순히 자신의 육체를 가꾸기 위해 칠하고 바르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근육과 신경의 발달을 위해 여러가지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여자는 육체의 통풍, 세포조직의 위생, 모든 신체기관의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 여자는 우아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존재이다. 더 이상 여자는 수세기 동안 카톨릭 교회가 모욕해 온 것처럼 죄악과 쾌락의 존재가 아니다.”²¹⁾

더 이상 여자의 아름다움이 죄악과 쾌락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사회적 고통이 뒤따랐다. 세계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결국에는 36년 동안 일제 통치와 6.25 동란이란 큰 사건으로 여자의 생활이란 자신을 가꾸어 건강하고 우아한 존재보다는 일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 봉사를 주로 하였다. 그 당시 화장은 소위 특수계층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보통 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현대 여성들이 가꾸어 가는 아름다움은 화장품의 획일화와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제시된 본보기들의 다양함에서 부조리한 양상이 보였다. 1980년부터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매력이 재발견되었고 식이요법, 건강법, 신체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다루는 잡지들을 통해 육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²²⁾

21) H. Béranger, Les yeux de la femme, La revue des revues, 1900

22) Dominique Paquet, Une histoire de la beauté, 앞의 책 p.88

여성의 화장은 유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시장에 갈 때는 분을 거의 바르지 않았고 직장에서는 간단한 화장을, 카테일 파티에서는 황토색과 금빛화장을, 야외에서는 여신처럼 화려한 화장을 하였다. 하루 일과의 모든 순간, 모든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자기 확인 놀이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고유성을 나타냈다.²³⁾

이렇듯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가 된 아름다움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매력을 잊지 않는 활동적인 여성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의무인 아름다움은, 항상 빈틈없고 유능한 활력적인 여성의 모습들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 여성들은 많은 경제력과 시간의 여유를 갖고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분 또는 자신의 과시욕으로 다른 어느 때 보다 많이 표출된다.

넘쳐나는 문화센터의 메이크업 강좌 수강생의 화장술, 코디 연출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며,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더욱이 많은 전문대학들의 피부미용과의 신설과 자리잡음은 이제 어느 덧 많은 젊은 전문직을 배출하게 되는 동기를 주게 되었다. 이제 화장은 단지 바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많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 것이다.

2. 색채와 화장 기법과의 상관관계

1) 색채이론

뉴턴은 삼각형의 프리즘을 사용하여²⁴⁾ 태양광선을 스펙트럼

23) Dominique Paquet, Une histoire de la beauté, 앞의 책 p.85

24) 고을환, 김동욱, 디자인을 위한 색채 계획, 미진사, 1987, p.22.

(spectrum)의 색으로 분산시켰다. 이러한 스펙트럼에는 자주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었고 뉴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우선, 태양광선을 길고 가는 구멍에 통과시켜 삼각형의 프리즘에 닿게 하고 프리즘 속에서 흰 색광을 무지개의 색띠로 분산시켜 스크린에 스펙트럼의 색띠를 영사시킨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제 1차색인 3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색이 있으며, 각기 더하면 2차색인 빨강+파랑은 보라, 빨강+노랑은 주황, 파랑+노랑은 초록색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메이컵은 그림과 같이 기본적인 5가지 색이 있다. 3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색에 검정과 흰색이 있으며 그 색들은 자신만의 색을 말하진 않지만 자신의 색에서는 꼭 필수불가분의 색이다. 예를 들어 초록이나 파랑 색에 아주 조금 검정을 더하게 되면 아주 탁한 색이 되거나 아주 부드러운 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색상환에서 빨강, 오렌지, 노랑색은 따뜻한 감을 주는데 이러한 색상을 따뜻한 색이라한다. 반대로 새파랑색, 파랑, 청록색, 초록색 등은 차가운 색이라 한다. 따뜻한 색은 색의 농도나 광도에 따라 색의 따뜻함을 잃어버린다. 결국 색상은 다양한 등급의 광도에 따라 기본색의 농도에 따라 무한한 색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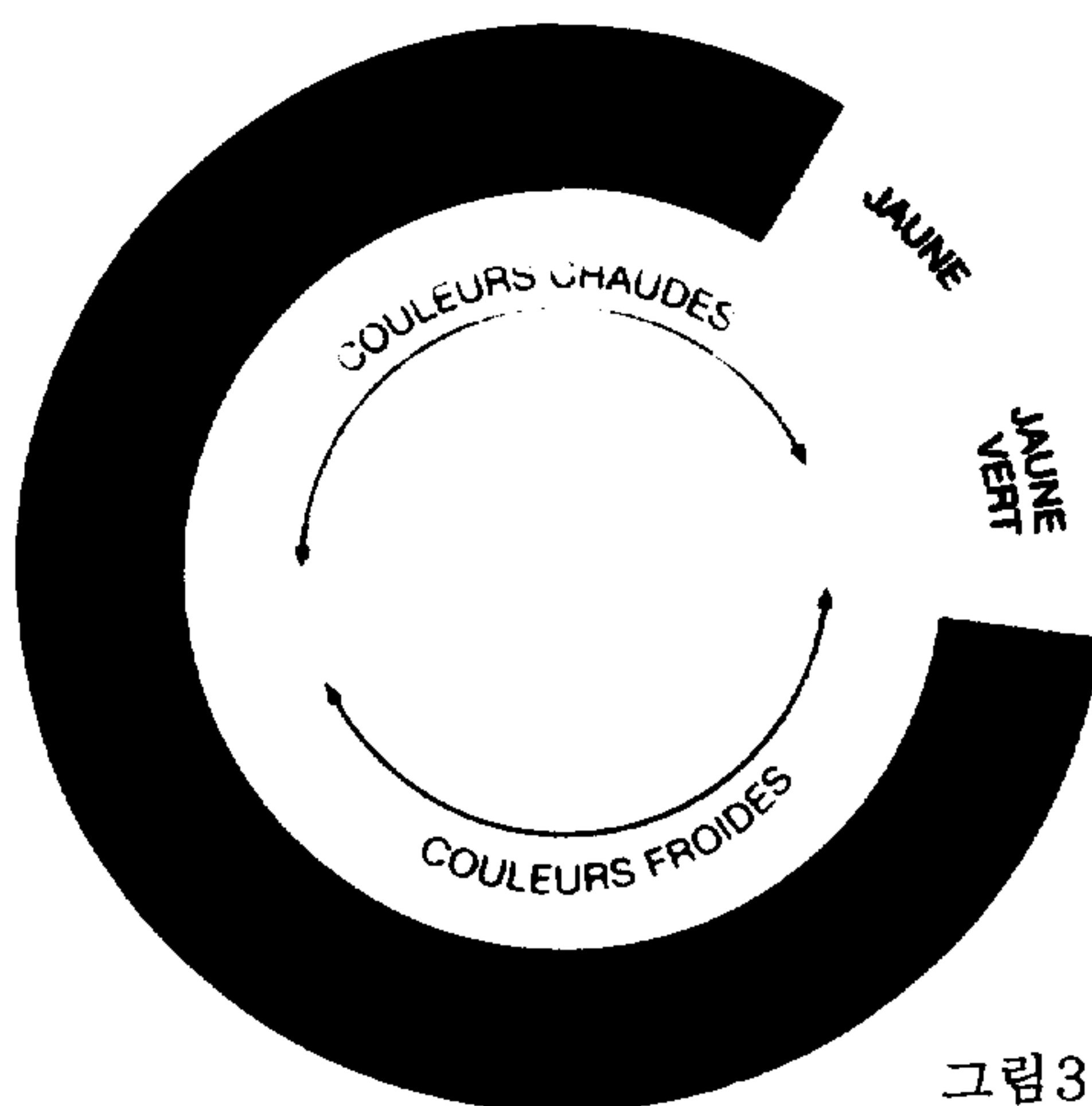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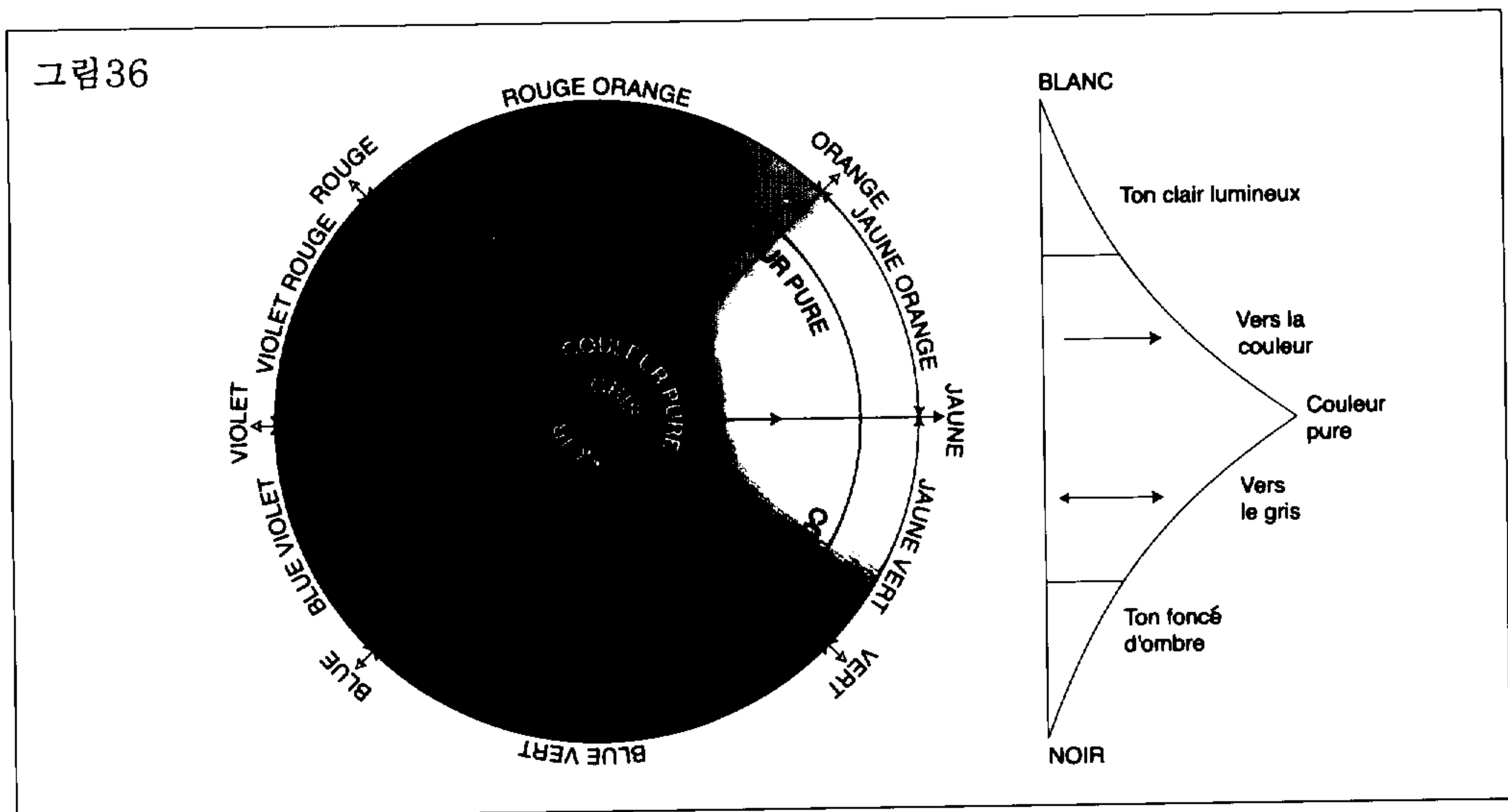


그림 35

3) 색의 하모니(harmony)

색상 이론과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배합 성격을 이해하고 메이크업에 적용하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대비하거나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의 하모니가 서로 어울려 얼굴 전체가 통일되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눈과 볼터치는 차가운 색, 입술은 따뜻한 색으로 매치시켜 메이크업의 색상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느낌의 색상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눈이 따뜻한 색이면 입술을 차가운 색, 반대로 눈이 차가운 색이면 입술은 따뜻한 색으로 서로 다른 색들이 대비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색상의 조화(harmony)에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색이 주조를 이루면 평온하고 안정된 주조를 이룰 수 있으며 여름에는 차가운 색의 주조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좋다.

이밖에 평상시의 낮(day) 메이크업은 화려하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 풍기도록 따뜻한 색 (핑크, 오렌지 색 등)을 사용하면 무난하고, 반대로 밤(night)메이크업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을 사용하면 지적이며 동시에 섹시하게 보이는 강한 이미지 전달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4) 화장의 착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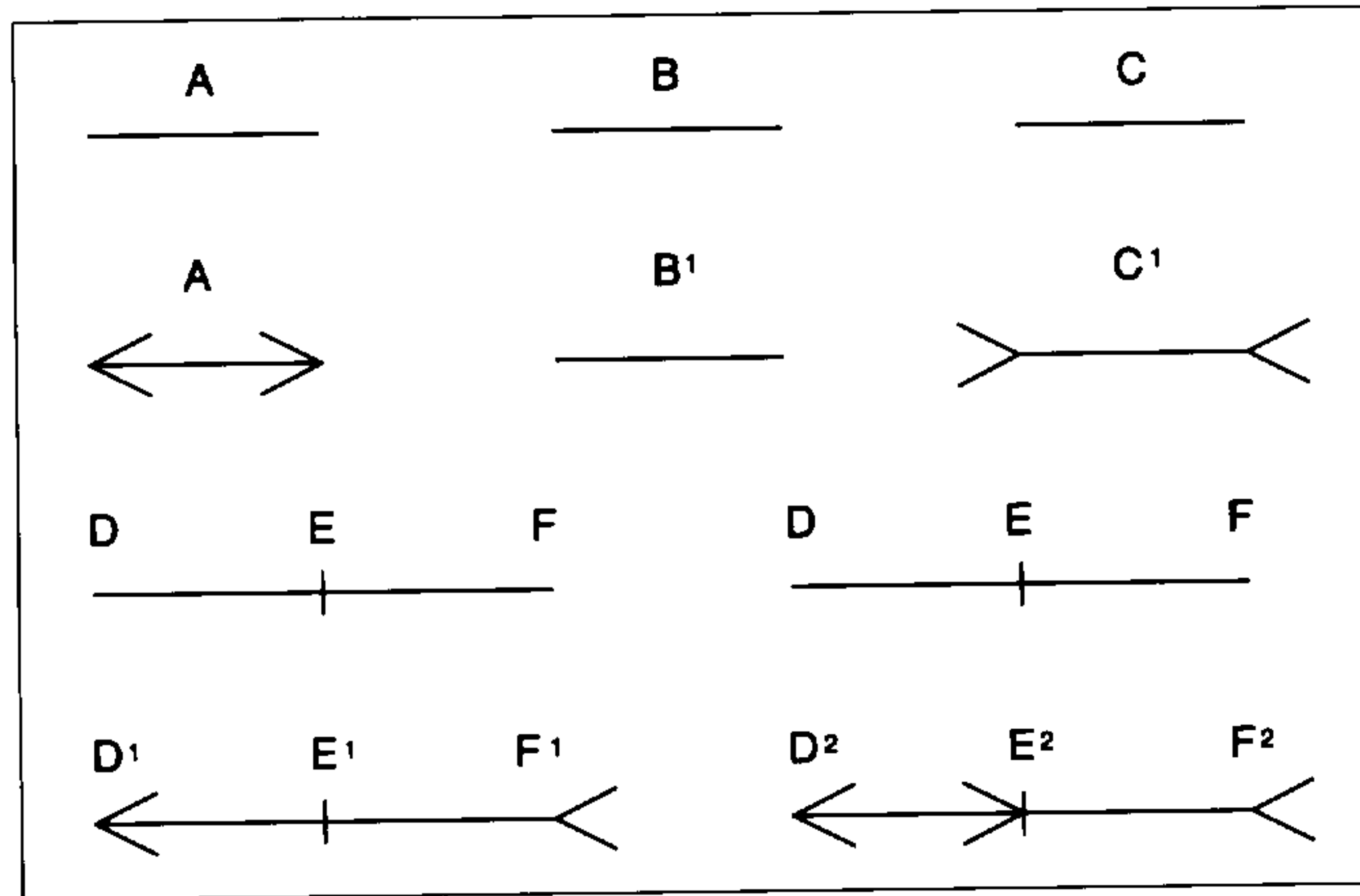


그림 37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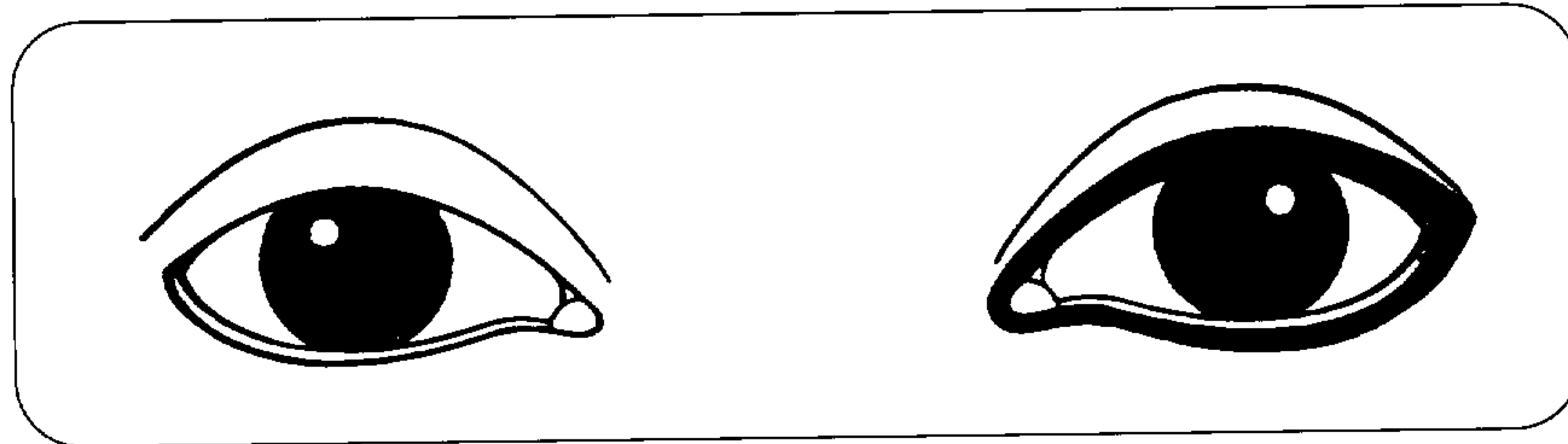


그림 37 설명 : 위로 부터 A, B, C, A1, B1과 C1은 우리가 보다시피 똑같은 길이이나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보태면 길이는 달라 보이게 된다. 그 효과로 A1선은 짧아 보이며, C1선은 더 길어 보인다. 그러므로 각자의 6선은 동일한 것이다.

기호학적 수단으로 가는 선을 세분화 시키면 모습은 실제로 달라 보인다. 길이는 D1, E1, F1은 D2, E2, F2, 각자 그들의 순서대로 달라보이지만 결과적으로 D1, E1, F1의 모습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손으로 미터 측량에서 그린 것 같이 모두 다 동일한 것이다.

그림 38 설명 :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똑같은 크기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점정색으로 눈의 바깥 윤곽을 그림과 같이 단순히 칠한다고 생각해 보자. 보는 것과 같이 오른쪽 눈은 왼쪽 눈 보다 확연히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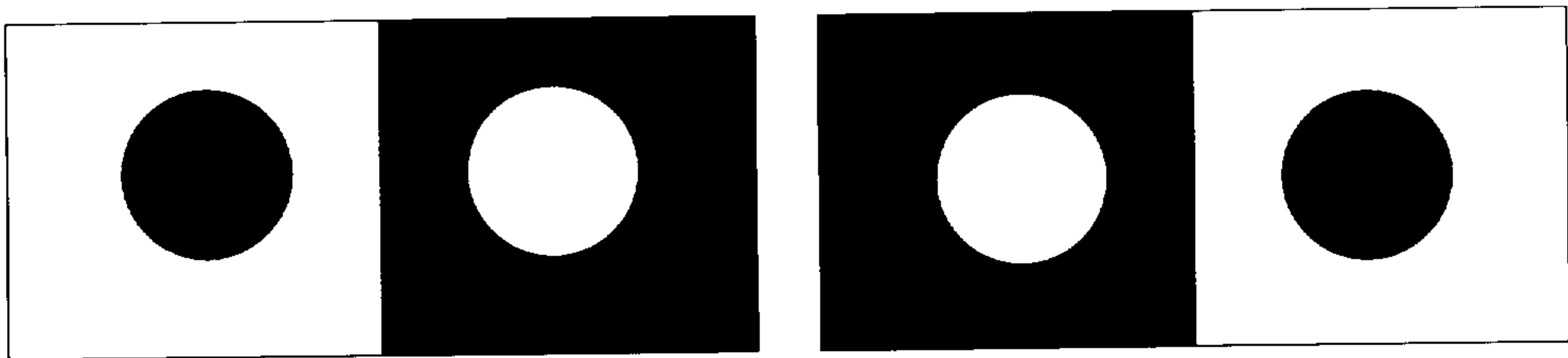
5)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환상

색채는 보통 거리감과 운동감에 의하여 똑같은 위치에 있는 색도 가까운 데 있는 듯 하고 또 먼 데에 있는 것 처럼 느끼기도 한다.

색의 전진색, 후퇴색은 각 색의 굴절각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체의 조절 작용과 망막의 흥분 변화가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

전진색은 일반적으로 팽창하여 보이고 후퇴색은 수축하여 보인다.²⁵⁾

일반적으로 밝은 색은 돌출의 의미를 만들고 면적을 넓게 한다.



같은 크기의 원도 검정색이 흰색 원 보다 작아 보인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시에 우리가 검은 바탕에 흰 원과 흰바탕에 검정 색 원은 흰바탕에 검정색 원이 더 작아 보이는 환상이 있다.

이러한 원리로 메이크업에서 밝게 한 턱은 아주 돌출 되어 보이며,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어두운색(shade)는 움푹 패이게 하거나 축소되어 보이며, 이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화장한 얼굴에서 어두운색은 아주 작게 보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메이크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밝은 색과 어두운색(shade)의 테크닉 교정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이다.

25) 최영훈 편저,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87, p.24.

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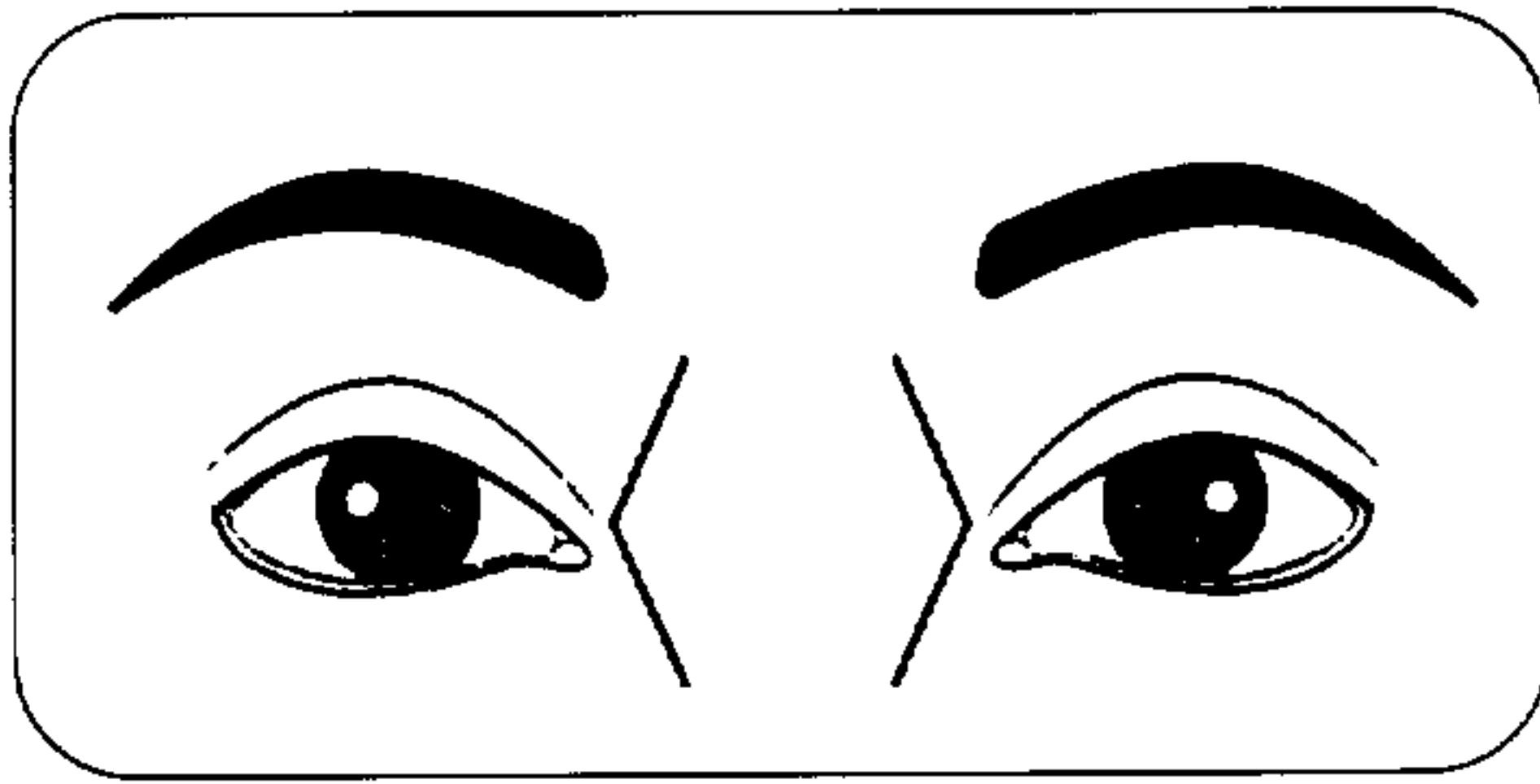


그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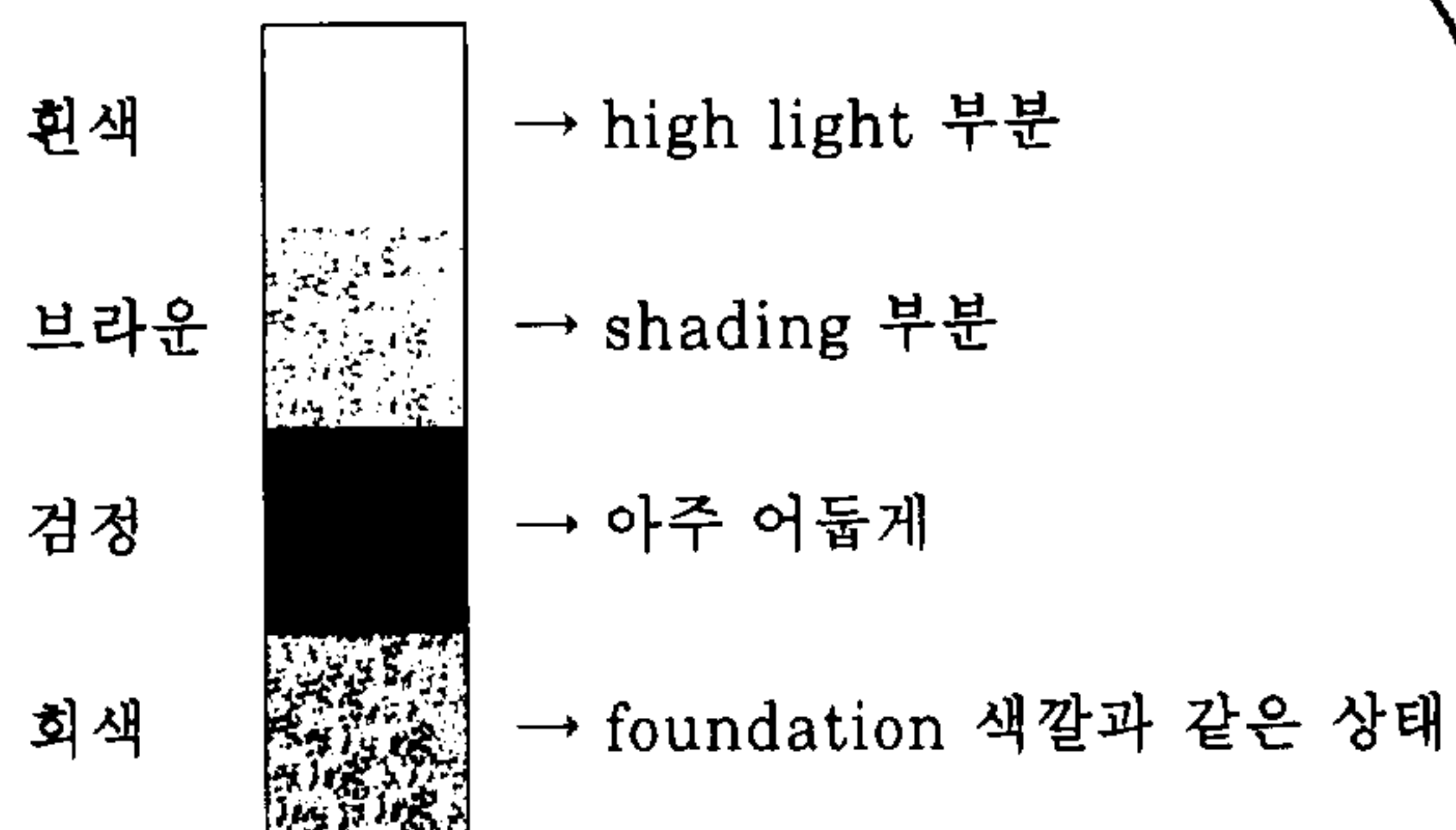


그림 39, 40 의 눈 사이의 간격은 아주 다르게 보인다. 그림 39는 부호 (< >)의 선에 의해 코는 좁고 미간이 매우 좁아 눈이 몰려 보이는 인상을 주며, 반대로 그림 40의 경우 메이크업은 눈썹을 그릴 때 좀 더 앞으로 그려 미간을 좁게 보이게 하면 동시에 넓은 코도 shading 하여 좁게 보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메이크업 하기 전 아티스트가 미리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를 미리 측정하고 계산하여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6) 얼굴의 균형과 명암 구성

그림 41

high light 부분과 shade부분의 세부 구성도



색깔의 영향과 얼굴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테크닉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 각 부분부분의 균형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여러가지 구성이 포함된 그림에 더욱 더 밝게 또는 어둡게 하여, 보다 확실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얼굴의 균형 측정은 자나 콤팩스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눈이 자나 콤팩스인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 균형은 모든 얼굴 부분과 부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3.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화장 표현 기법

1) 얼굴의 부위별 화장 기법

가. 화운데이션 바르기 준비 과정

가) 피부 타입별 화운데이션 바르기

보통 우리는 화운데이션을 바르거나 파우더를 바르는 것을 피부 준비 단계라고 하는데 각자 피부 타입별로 준비를 세심하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피부를 표현할 수 있고 피부보호 역할을 동시에 하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건성 피부나 메마른 피부일 경우

특히 이러한 피부는 화운데이션이 피부에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얼굴에 수분 크림을 잘 펴 바른 후 크림이 얼굴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 티슈를 얼굴에 놓고 살짝 눌러 준다. 수분크림이 얼굴에 많이 남아 있게 되면 화운데이션이 크림의 유분과 뭉쳐 얼굴이 쉽게 번들거리기 때문에 티슈로 살짝 눌러줘야 한다.

스틱 화운데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틱화운데이션에 투명 메이크업 베

이스를 약간 묻혀 스폰지에 섞어 묻히면 에멀전화 되어 훨씬 피부에 잘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 화운데이션이 잘 퍼발라지고 훨씬 투명한 피부 표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 지성 피부일 경우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피부의 모공을 좁히기 위하여 아스트린 젤트를 솜에 묻혀 얼굴 전체를 닦아 준다. 로션이나 수분 크림 보다는 메이크업 베이스 하나만 바르는 것이 좋다. 스폰지를 사용해서 바르는 경우는 충분히 스폰지를 여러 번 눌러 피부막에 흡착되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두드려 주고 너무 많은 양의 화운데이션을 바른 경우에는 스폰지를 티슈로 감싼 후 눌러 주게 되면 티슈에 여분의 양이 배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화운데이션 바르는 목적과 유의점

가) 목적

얼굴 부분부분 다른 색깔을 한 색깔로 동일하게 표현한다.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공해, 먼지 등)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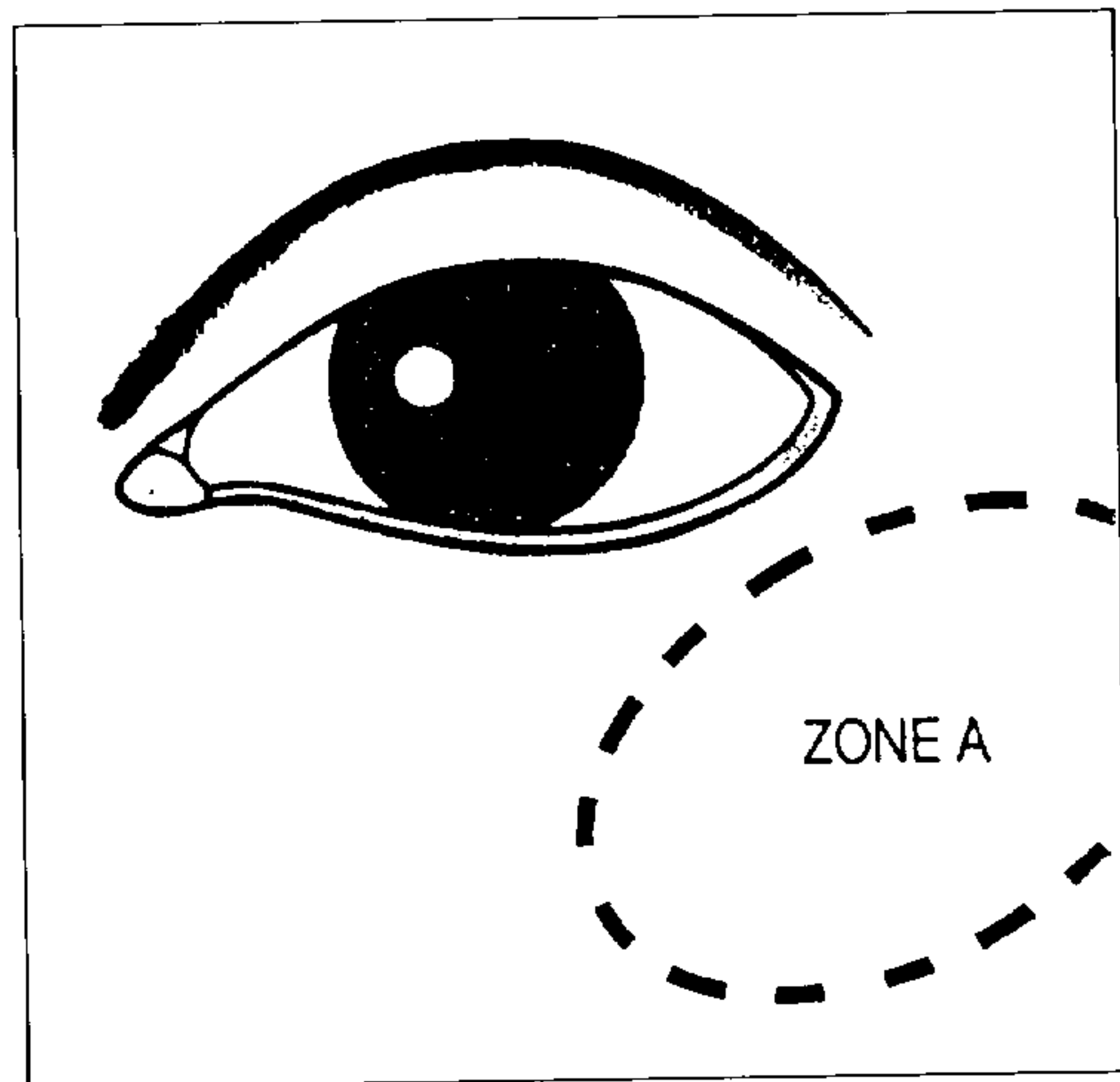
나) 유의점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선에도 차이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퍼준다.

얼굴과 목의 경계선에도 뚜렷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목 밑부분까지 발라준다. (단 목 밑에 화운데이션을 바를 때에는 상의가 더럽혀 지지 않도록 실리콘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 옷에 거의 묻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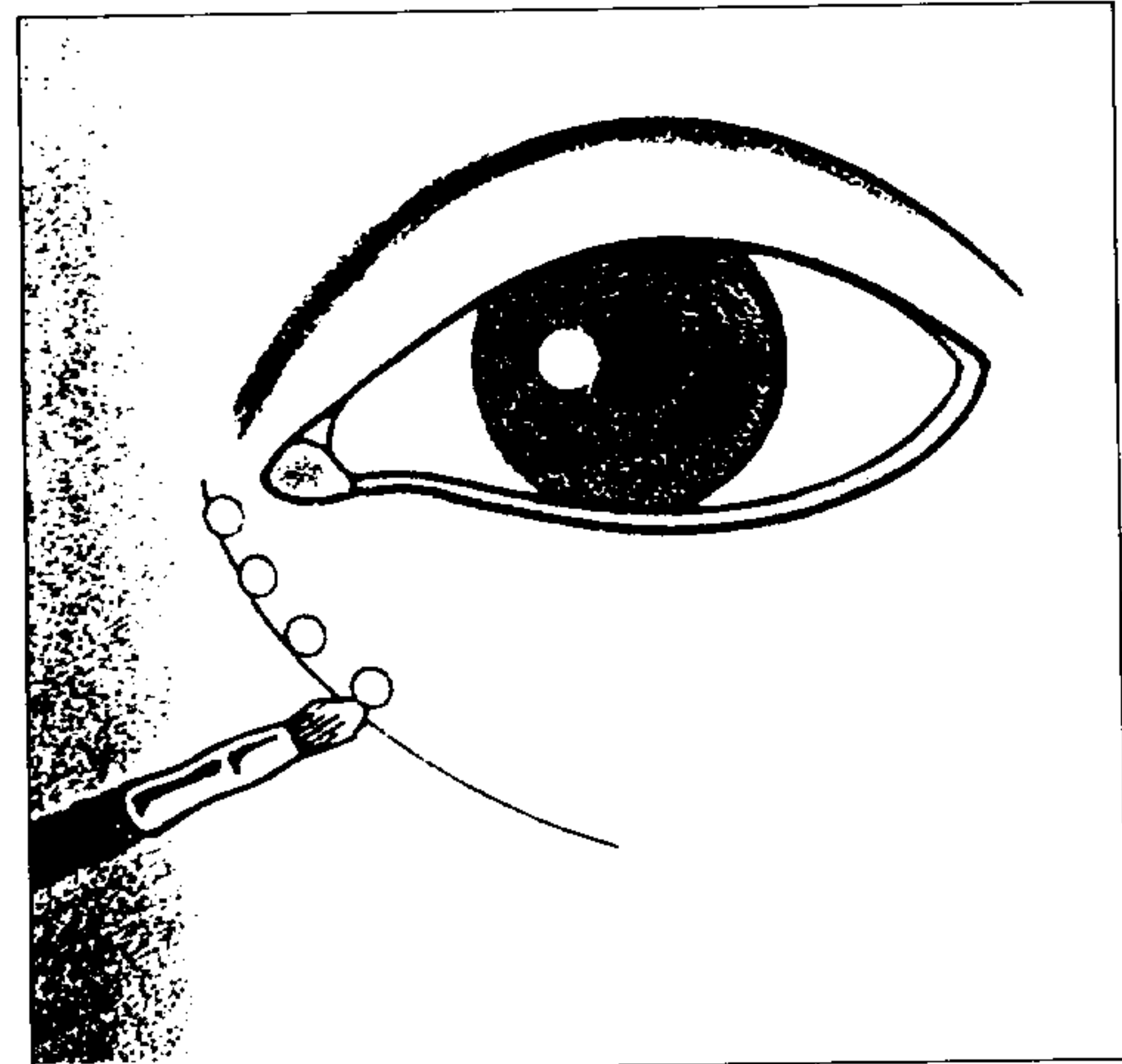
양쪽 콧날 부분과 코 밑부분에도 세심하게 퍼바른다. (특히 코 윗부분 방향쪽) 윗 입술산과 입가에도 화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른다.

그림 42



눈주름

그림 A 부분은 피하 지방이 없어 항상 건조하여, 많은 양의 화운데이션 보다는 소량을 손가락에 묻혀 손의 체온을 이용하여 잘 펴발라 주도록 하면 잔주름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눈서클

스틱, 연필, 크림등 서클의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화운데이션 색상보다 밝은 색을 서클 부분과 움푹 패인 곳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눈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여러번 반복 사용한다.

눈 주머니 : 눈 주머니가 많이 돌출된 경우에는 조금 얇아지게 할 뿐이지 돌출된 것이 보이지 않게는 못한다. 안쪽에는 밝은색 안티서클이나 크림을 움푹들어간 주머니 경계선 까지 조심스럽게 바른다.

작은 터치라도 갈색으로 보이는데 까지 밝은색 스틱이나 크림을 사용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 화운데이션의 색상 선택과 바르기

가) 색상선택

일반적으로 자신의 피부색깔과 비슷한 것이 가장 좋다. 전문적인 화장품에는 컨트롤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어 화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자신

의 피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

예) 노란 피부 → 컨트롤 베이스 보라색

피부톤을 원래 보다 희게 → 컨트롤 베이스 흰색

얼굴에 부분적으로 붉은기가 있는 경우 → 컨트롤 베이스 그린

나) 바르기의 shading 과 highlight ²⁶⁾

그림 43

shading -

이마부분 (이마가 넓은 경우)

볼뼈 밑에 들어가는 부분

코의 양쪽 날개

턱밑과 턱뼈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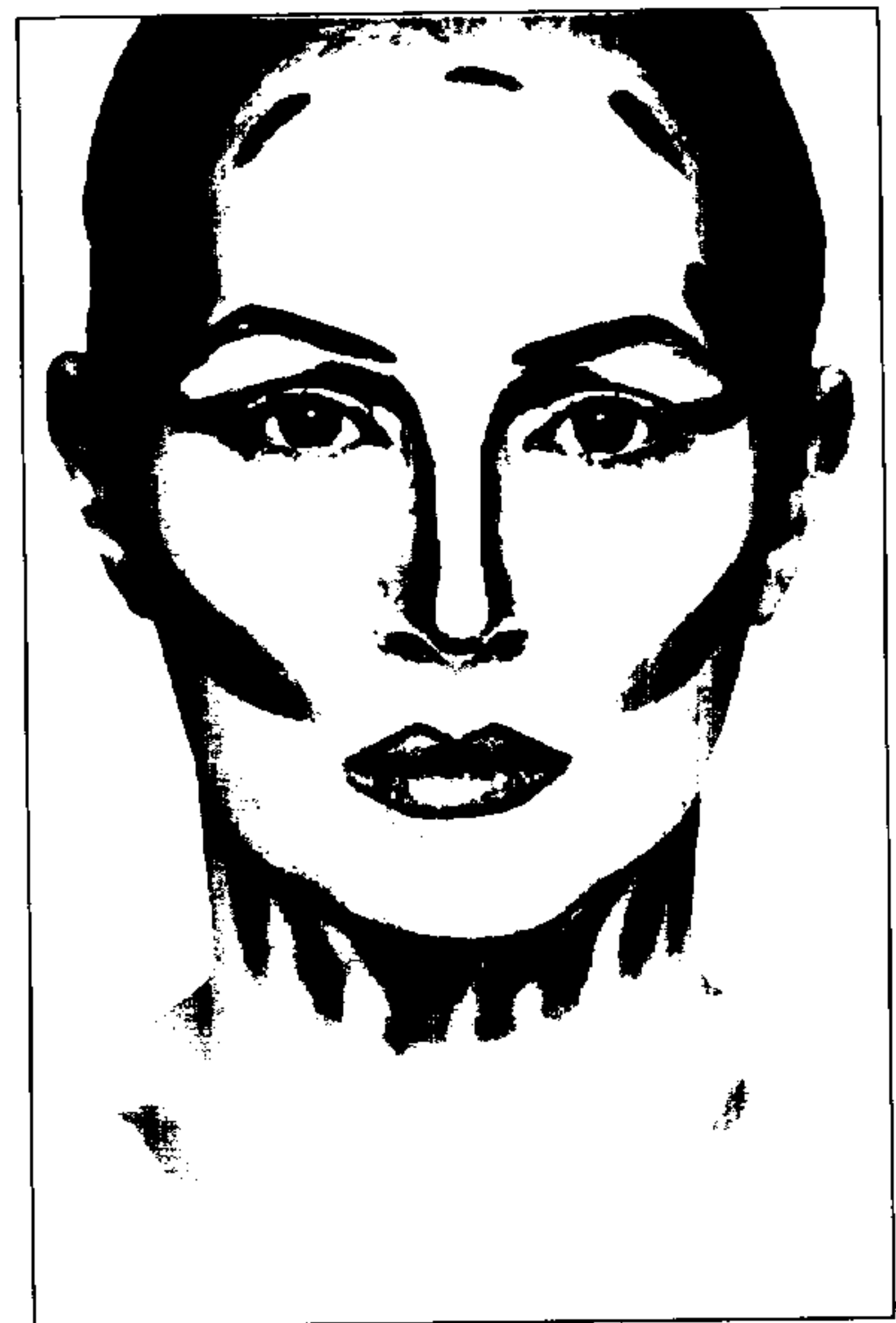
highlight -

이마중앙 코의 중앙

눈 밑의 삼각형 부분

윗입술 위와 아래 입술 바로 밑 부분

볼뼈 아래



2) 파우더 바르기

가. 바르는 목적

- 화운데이션의 유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지녀 얼굴의 반사(shining)을 없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 피부 표면의 피지나 땀을 흡수하여 화장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얼굴의 유분감을 억제한다.

26) Kevyn Aucoin, Making face, 1997, p.24

- 매끄럽게 잘 퍼지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매끄러움을 준다.
- 피부에 잘 부착되는 성질이 있어 화장이 오래간다. 27)

그림 44



나. 사용법

분침으로 바르거나 큰 브러쉬로 바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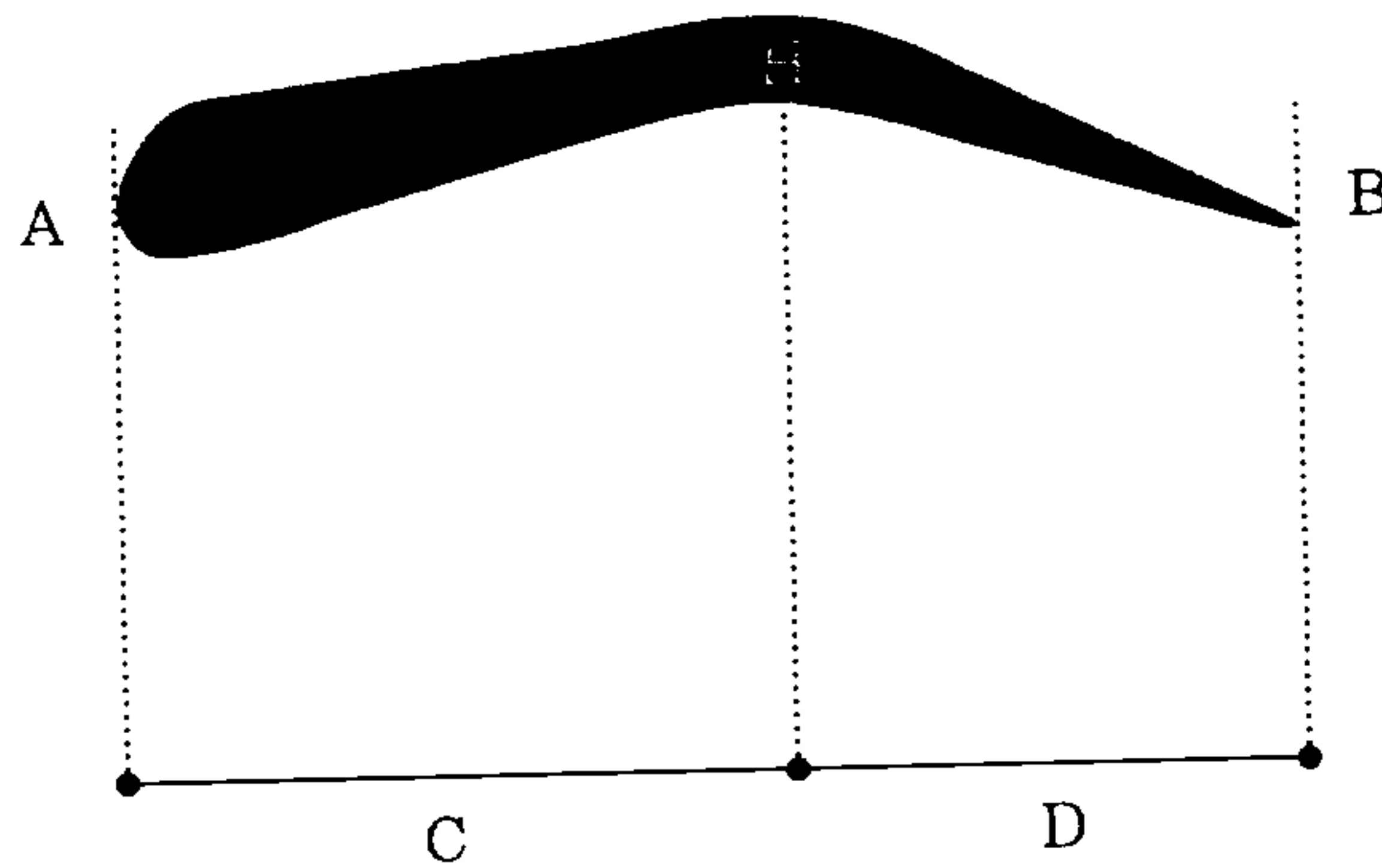
파우더는 꼭 눌러 바르지 않아도 미세한 입자가 자동으로 피부에 밀착된다.

27)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7, p.151.

3) 눈썹그리기 테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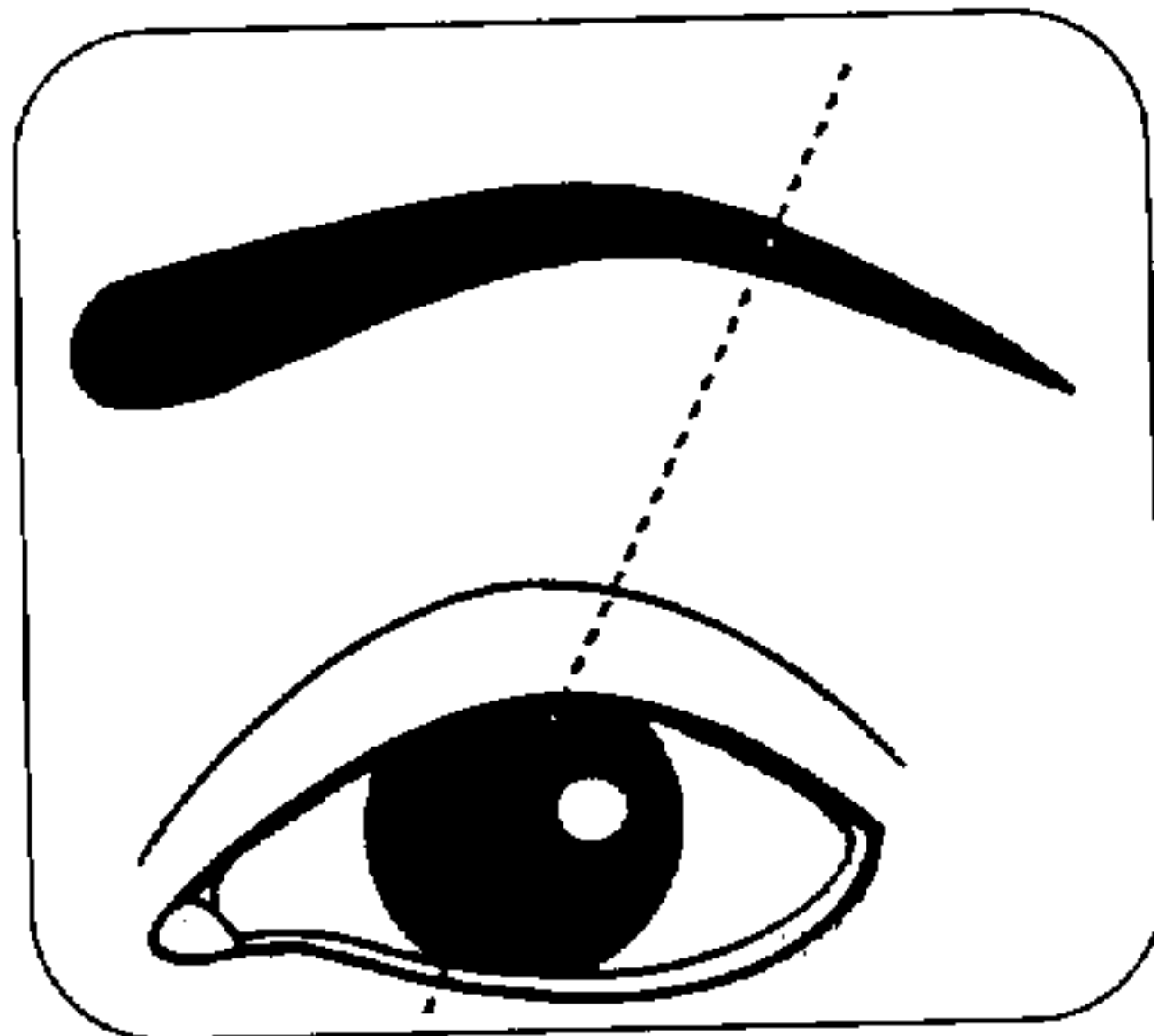
가. 눈썹의 기본구조

눈썹은 기본적으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분은 C 같이 눈썹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선이고, 2 부분은 D 같이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선이다. 3부분은 C선과 D선이 만나서 이루는 H가 눈썹산이다.



H(눈썹산)는 A점 보다 절대 낮을 수 없으며, D(눈썹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선)은 C 보다 절대 길게 그릴 수 없다. 그 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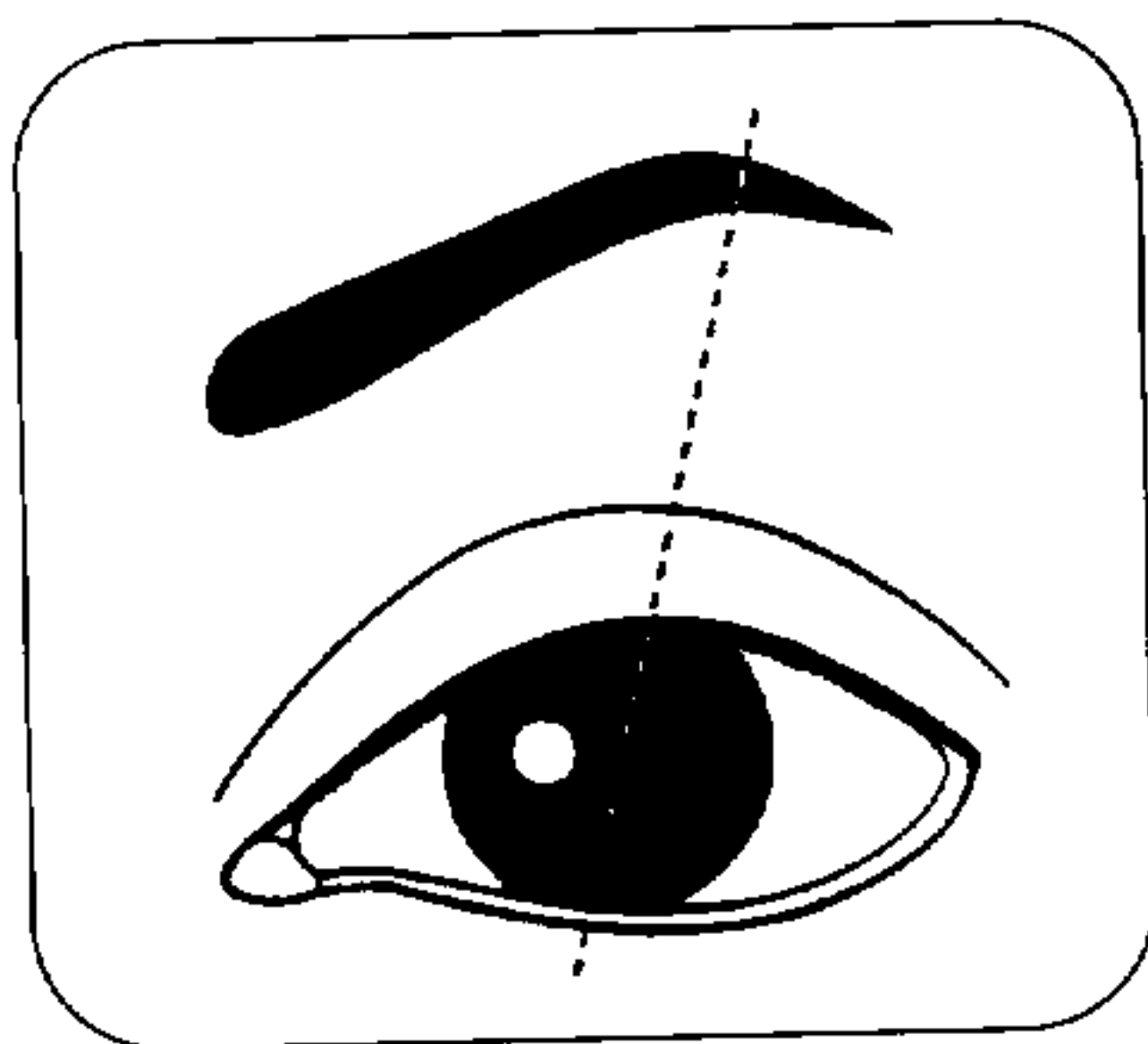
그림 45



나. 얼굴이 긴 경우 (또는 달걀형)

얼굴이 긴 경우 눈썹을 그릴 때 눈썹산의 형태가 눈의 바깥 부분으로 되게 그려 얼굴 길이가 짧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림 46



다. 얼굴이 동그란 경우 (또는 네모난 경우)

눈썹 그릴 때 눈썹산이 얼굴 중앙으로 놓여 지도록 그리고 방향은 세로 수평방향으로 그리고 눈썹상은 뽕족하며 끝으로 약간 둥 들게 그리며 얼굴 동그란 것을 커버할 수 있다.

눈썹의 모양은 나라마다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80년대 중반까지 10년 단위로 눈썹 모양이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90년대에 와서는 여러유행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변덕스러움 때문에 얇고 가는 눈썹, 60년대 복고풍인 신복고, 또는 자연스럽게 아니면 문신등 다양한 양상의 띠게 된다.

하지만 눈썹은 얼굴 구조상 제일 중요한 얼굴 표정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얼굴의 균형이 눈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⁸⁾

라. 눈썹의 효과

그림 47



그림 48



그림 47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상의 원본 그림이다. 눈썹과 쌍꺼풀과, 콧날 옆부분 shading 까지가 잘 펼쳐져 있어 우아하며 아름답게 보인다.

그림 48 그림을 보면, 20년대에 유행했던 가늘고 아치형인 눈썹을 그려 넣으면 얼굴형은 달걀형으로 바뀌면서 모나리자상 고유의 표현과 원본의 고유함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잃게 된다.

28) Stefano Anselmo, Devenez une pro maquillage, 1999, p88

그림 49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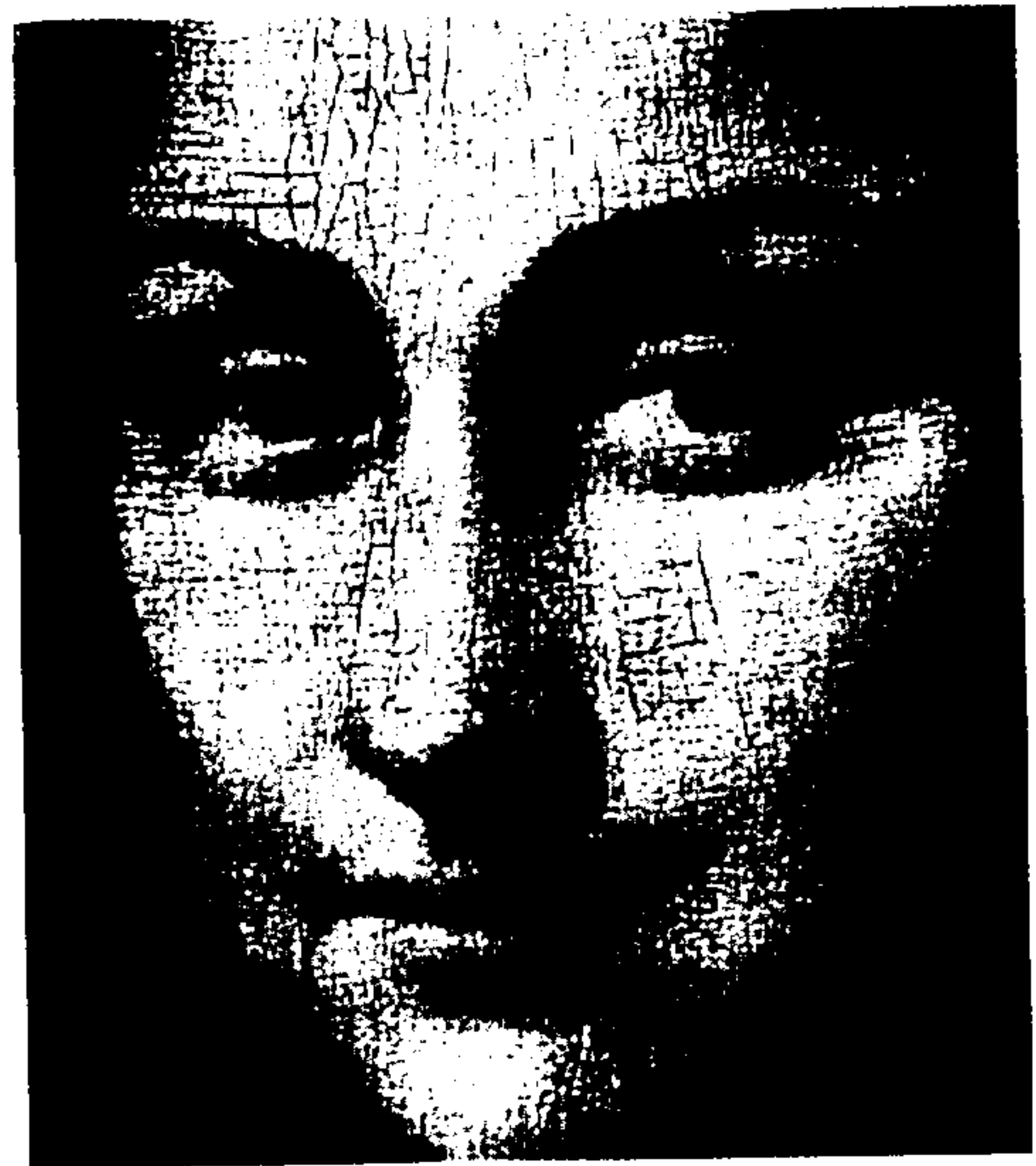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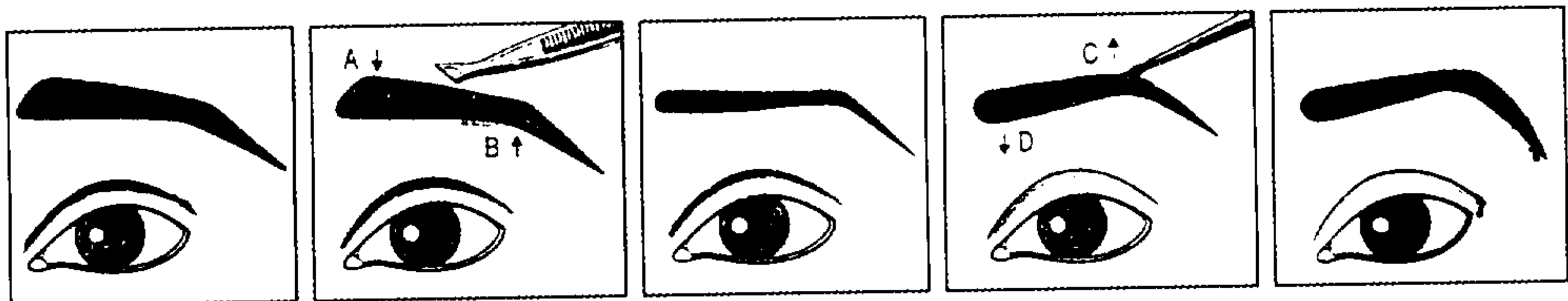


그림49는 눈썹의 형태가 두꺼워 지며 일직선으로 그리고 그림50은 현대적인 느낌으로 눈썹술을 두껍고 각을 주어 그린 형태이다.

그림49, 50은 완전히 원본의 모습과 바뀐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이렇게 눈썹의 효과는 얼굴의 인상 마저도 완전히 바뀌게 만든다.

그림 51. 눈썹이 쳐진 경우의 교정



위 그림 51과 같이 A,B부분만큼을 흰색 펜슬로 먼저 데생을 한 후 뽑으면 실수가 없고 틀림없다.

그런 후에 C, D와 같이 펜슬이나 아이섀도우로 그리면 쳐진 눈썹이 정상으로 표현된다.

4) 눈화장 테크닉

가. 일반적인 눈화장

그림 52



눈은 마음의 창과도 같다. 눈썹과 눈화장은 얼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눈화장은 원하는 색을 칠하기 전에 베이스 색상을 기본으로 칠해준다. 베이스 색상이란 옅은색(아이보리, 옅은 핑크, 살색, 옅은 노랑 등)으로 곧 바탕색으로 원하는 색상을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게 바를 수 있다. 눈썹이나 눈 앞쪽의 하이라이트 컬러는 주로 흰색과 아이보리를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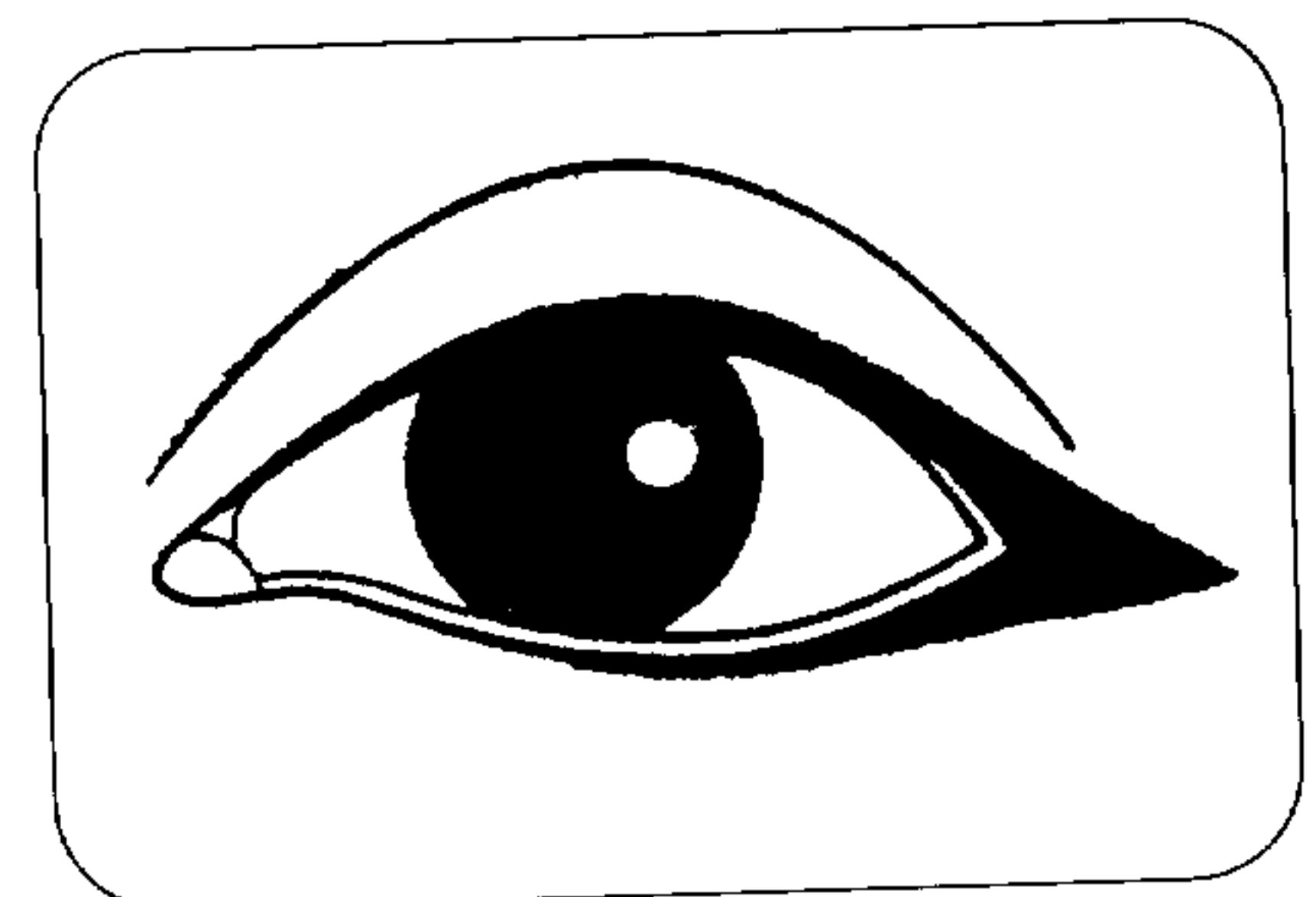
다음은 본인이 원하는 메인 컬러를 쌍꺼풀 위에 좀 더 강한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눈두덩이에 칠하고 쌍꺼풀 위에 검정색 펜슬과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음영을 주게 되면 눈은 더욱 선명하고 깊이감 있게 표현된다.

나. 다양한 눈의 형태 교정화장

가) 작은 눈을 길게 보이게 하는 테크닉

그림 53

자신의 눈의 길이 보다 2 ~ 3 mm 정도 눈꼬리쪽 속눈썹 바로 가까이에 검정 또는 짙은 밤색 펜슬로 늘려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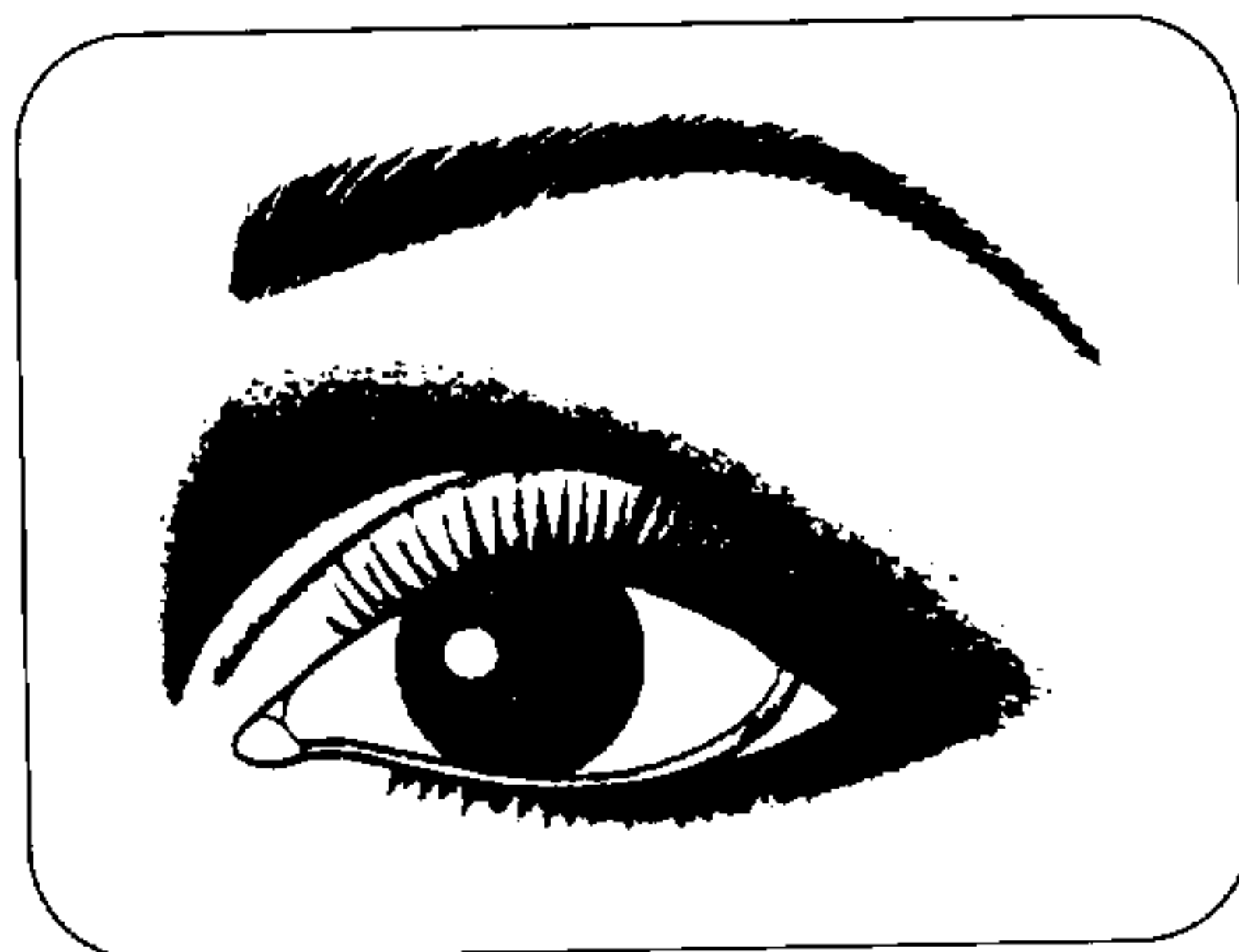
늘려 그린 선은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한 후 같은색 아이섀도우로 밖에서 눈 안쪽 세로방향으로 칠해 눈을 크게 만들어 준다. 눈 앞쪽에도 역시 어두운 색을 칠해 눈꼬리쪽과 균형을 이루게 한다.

나) 눈꼬리가 올라간 눈

앞쪽 아이 홀 쪽에 선을 1~2mm 정도 위로 그리고 바깥 눈꼬리 쪽도 아주 약간 내려가게 그려 만나는 부분을 아주 둥글게 그라데이션을 해 준다.

그런 후 케익아이라이너를 이용해 그려 정리한다.

리퀴드 라이너 보다는 케익 타입의 아이라이너가 색상이 얇아서 자연스럽다.



다) 눈꼬리가 처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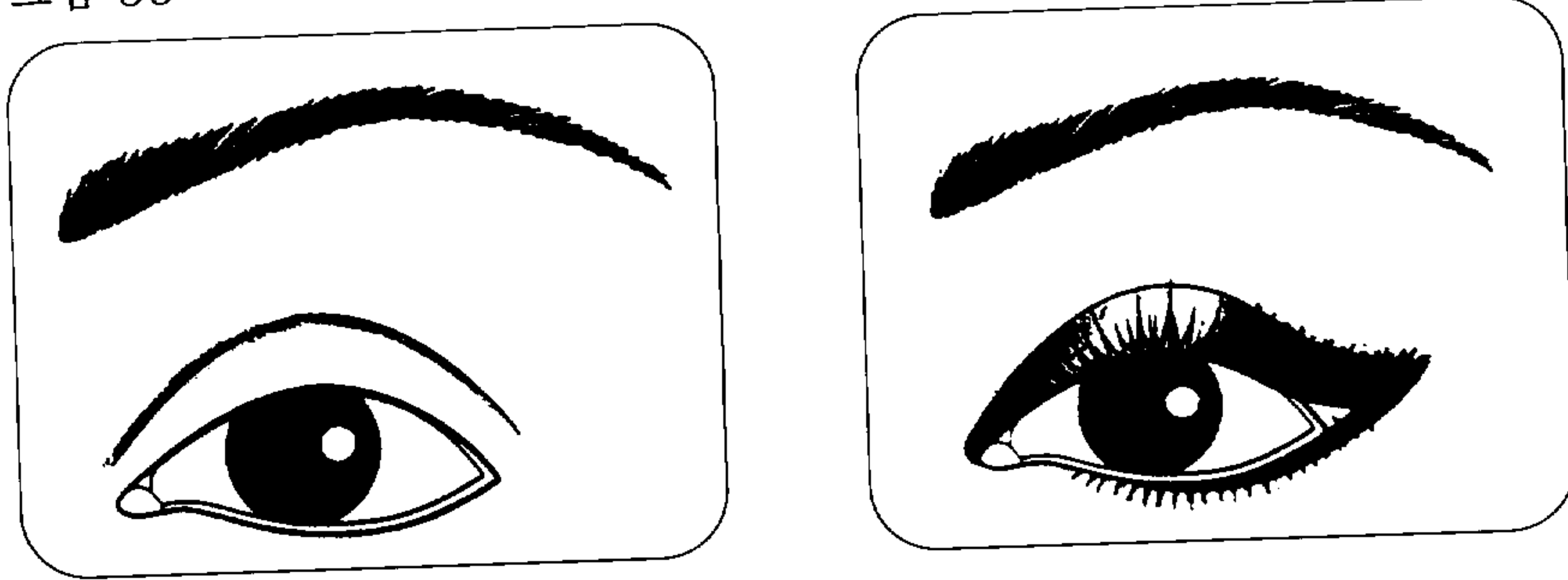
눈꼬리가 처진 바로 그 선에서 바로 눈 바깥 방향으로 선을 올려 검정색 등의 짙은 펜슬을 사용해 그린다. 특히 짙은 펜슬로 바깥 라인을 그릴때는 부채꼴 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그라데이션 해 준다.

눈꼬리가 처졌다고 선을 너무 올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하게 눈꼬리가 처진 경우에는 처진선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효과가 만점이다. 인조 속눈썹의 형태는 안쪽은 짧고 바깥쪽은 술이 많은 것을 택하여 붙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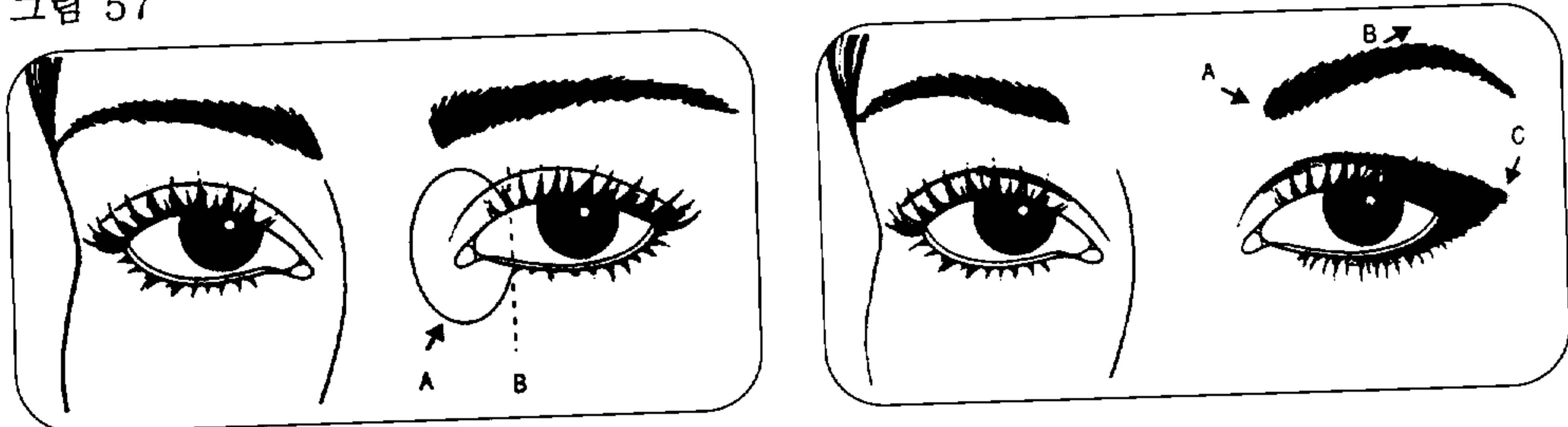
그림 56



후에 리퀴드 타입이나 케익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그려 넣는다. 바깥쪽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는 아주 소량의 속눈썹 풀을 피부에 살짝 묻혀 인조 속눈썹의 맨끝에 살짝 붙이면 긴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라) 눈과 눈의 간격이 좁거나 몰려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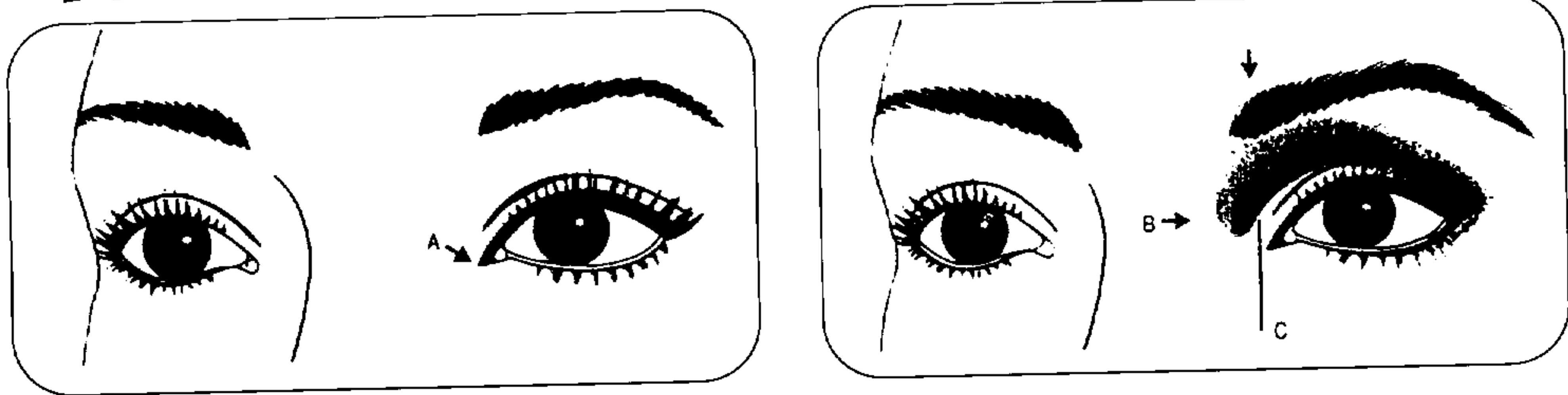
그림 57



이러한 눈인 경우는 코가 길고 좁은 상태를 동반하고 미간도 좁다. 먼저 양쪽 눈썹의 앞 머리 2-3mm 정도를 뽑아 미간을 넓힌 후, 눈썹을 그릴 때 눈썹산이 약간 올라가면서 눈썹 끝을 바깥쪽으로 약간 빼준다. 눈꼬리도 바깥 방향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최대한 늘려 그려준 후 바깥쪽으로 늘려준 선이 눈 안쪽으로 가운데까지 오도록 펜슬라인을 그라데이션 한다.

마) 눈과 눈의 간격이 넓은 눈

그림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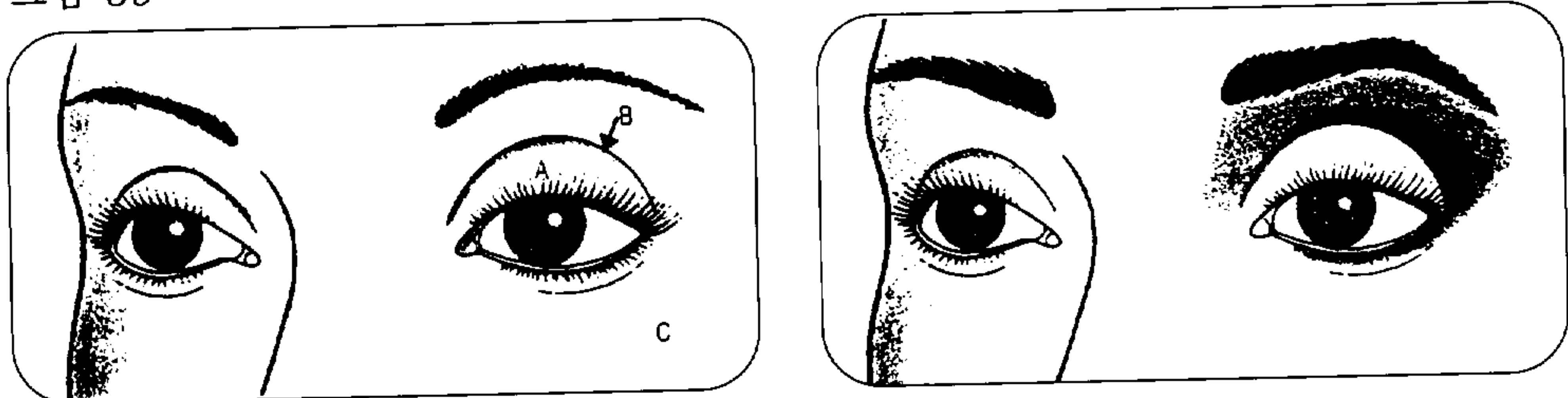


이러한 눈은 미간도 넓고 스페이스가 넓은 어두운 색, 밝은 색, 하이라이트의 색깔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화장하기에 매우 재미있는 경우다.

먼저 눈썹의 앞머리를 약간 앞으로 당겨 미간을 좁혀주고, 눈썹 형태는 약간 각이지며 둥글게 그린다. 그림 A와 같이 눈 앞머리 부분에 포인트와 아이라이너를 앞쪽에도 그려 넣는다. 아이홀 쪽에 색깔을 칠할 때에는 코 앞부분 가까이도 둥글게 칠해서 간격을 좁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눈이 처지지 않게 눈꼬리도 살짝 올린다. 눈 앞쪽의 밝은 부분은 아주 밝은 색 보다는 살색, 옅은 갈색 등이 좋다.

바) 움푹 들어간 눈

그림 59



눈이 움푹 들어간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는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안구 괄약근의 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눈은 움푹 들어가면

서 둥근 형태가 아이새도우를 일적선상으로 펴 주는 것 보다 관자놀이를 향해 둥글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칠해준다. 눈썹을 너무 가늘게 그리는 것 보다 적당한 두께로 그리는 것이 안구가 들어가 보인다.

A 부분 : 가장 밝은 색인 연핑크, 살색 등 자신이 눈화장 하려는 피부에 맞는 색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B 부분 : 중간 정도의 색을 선택하여 칠한다.

C 부분 : 피부 기본 베이스 색

5) 속눈썹 메이크업 테크닉

가. 일반적인 마스카라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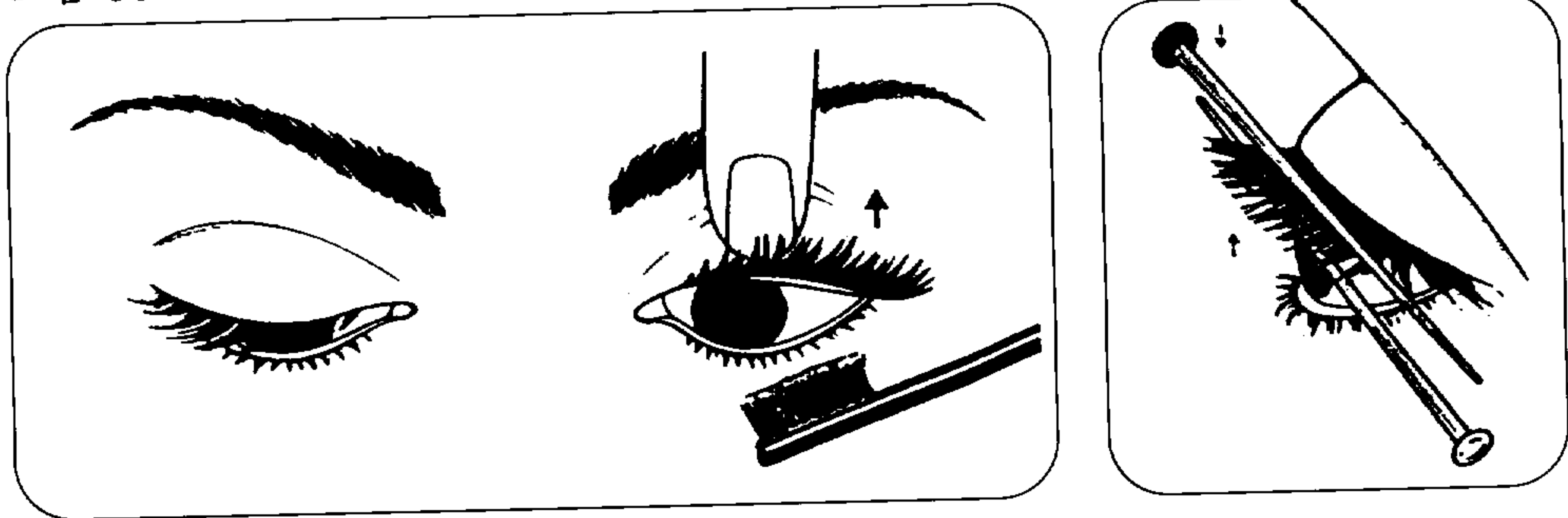
속눈썹의 역할은 마스카라를 해서 속눈썹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닫혀 있는 눈이 열리면서 눈이 크게 보이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마스카라는 리퀴드(liquid) 타입 보다는 크림(cream) 타입이 훨씬 속눈썹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마스카라를 한 후에는 속눈썹끼리 서로 붙어 무겁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스크류형 브러쉬나 눈썹 브러쉬로 다시 한 번 빗어 준다. 좀 더 볼륨감을 원할 때는 한 번 덧칠해 주면 된다. 마스카라를 바를 때의 자세는 모델의 뒤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며 모델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엄지나 검지를 눈두덩 중앙에 놓고 속눈썹을 바깥 들어 밑에서 위의 방향으로 마스카라를 칠한다. 또한 손가락을 사용해 눈두덩 바깥쪽으로 가볍게 속눈썹이 위로 올라가도록 당겨준다.

나. 아이래쉬 컬러를 사용할 때

아이래쉬 컬러는 보통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사용한다. 특히 속눈썹이 직선(빗자루 모양)이어서 단 몇분간이라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아이래쉬 컬러를 이용해 속눈썹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준다.

다. 응급 조치 일 때

그림 60



급히 원하는 속눈썹이 아이래쉬 컬러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머리핀을 라이터에 달구어 그림 60와 같이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스테틱 살롱에서 해주는 속눈썹 파마도 있고 전지를 이용한 스스로 온도를 감지해 속눈썹을 올려주는 신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다.

6) 노우즈 새도우 테크닉

가. 노우즈 새도우 테크닉의 일반적 규칙

그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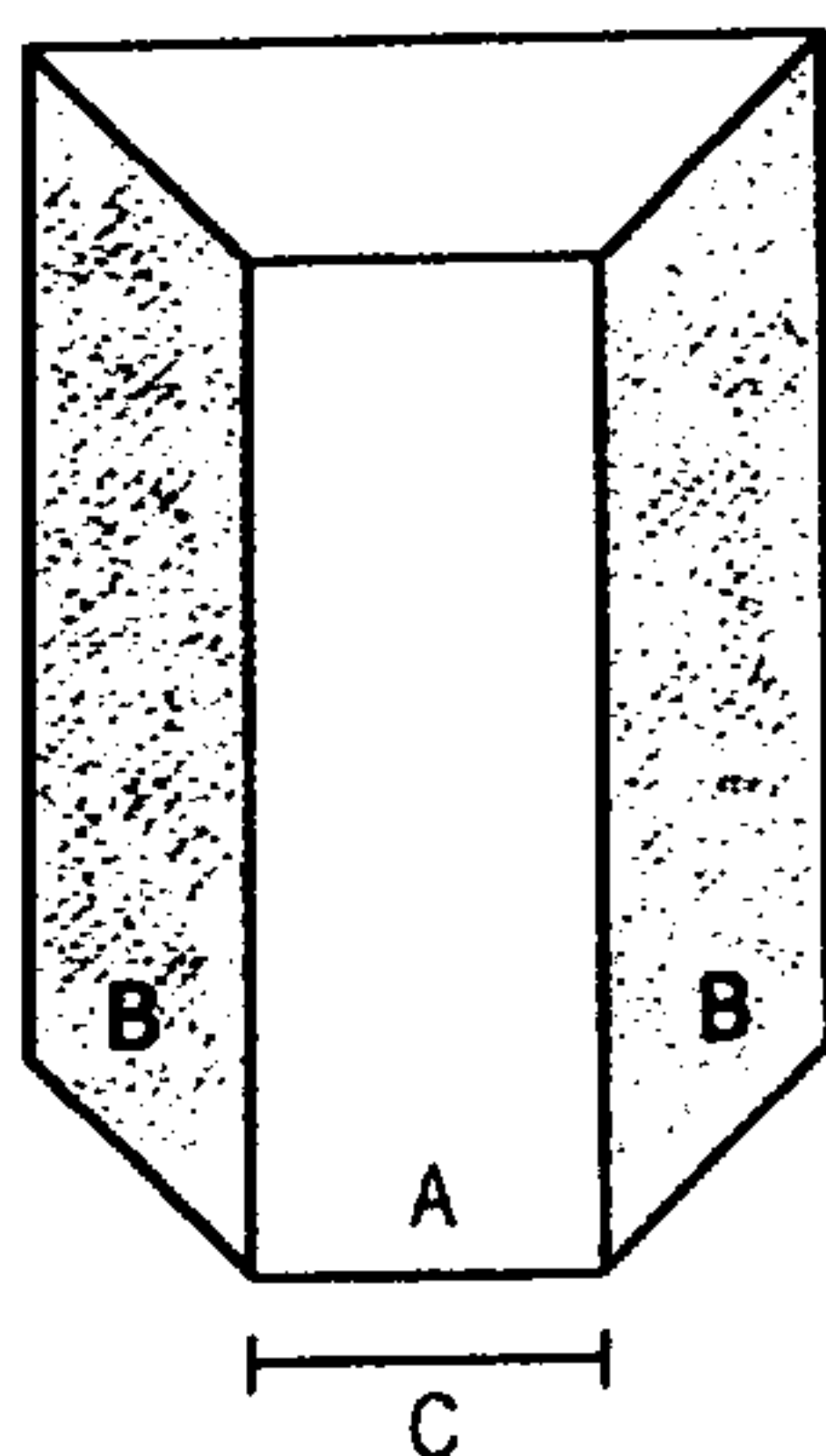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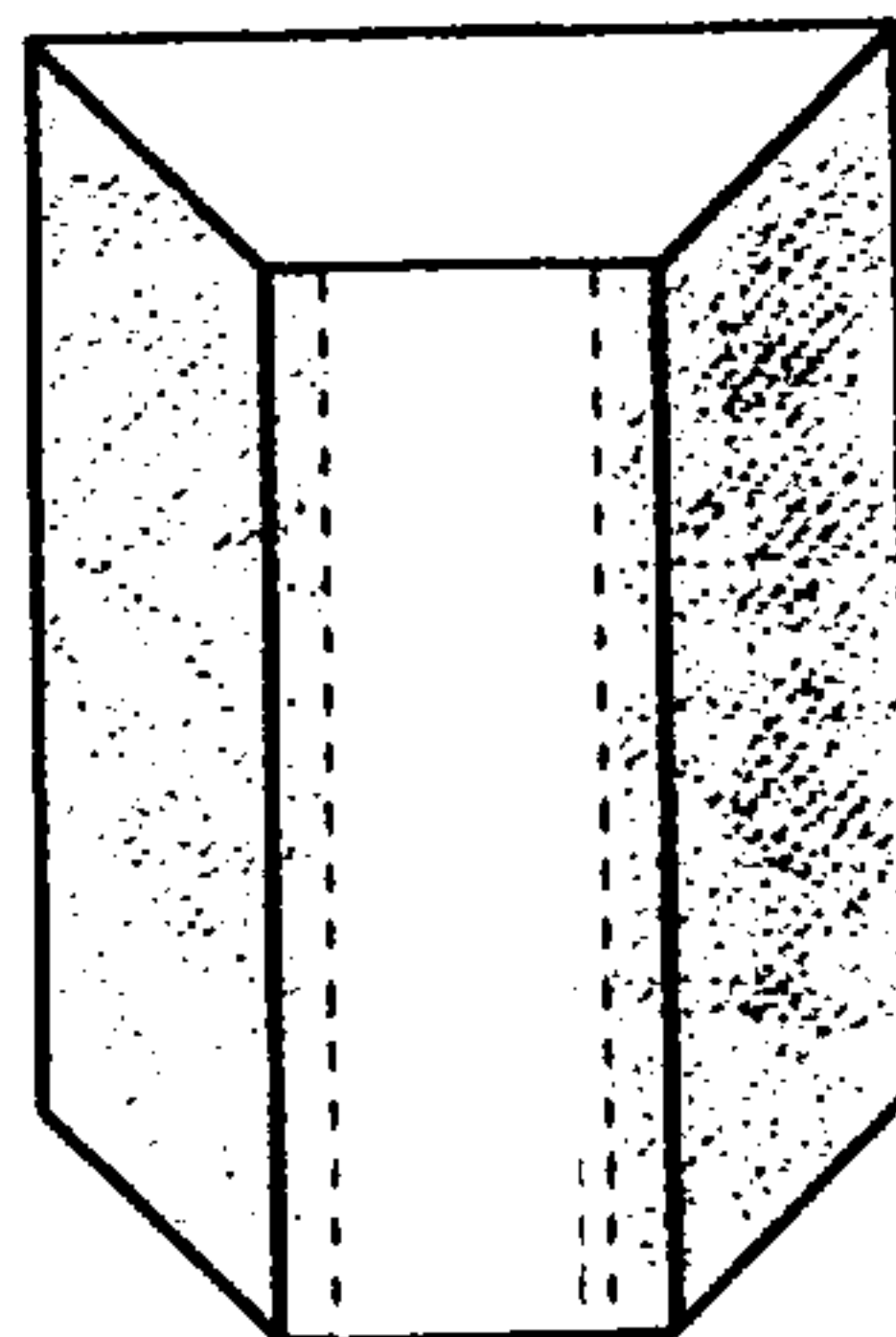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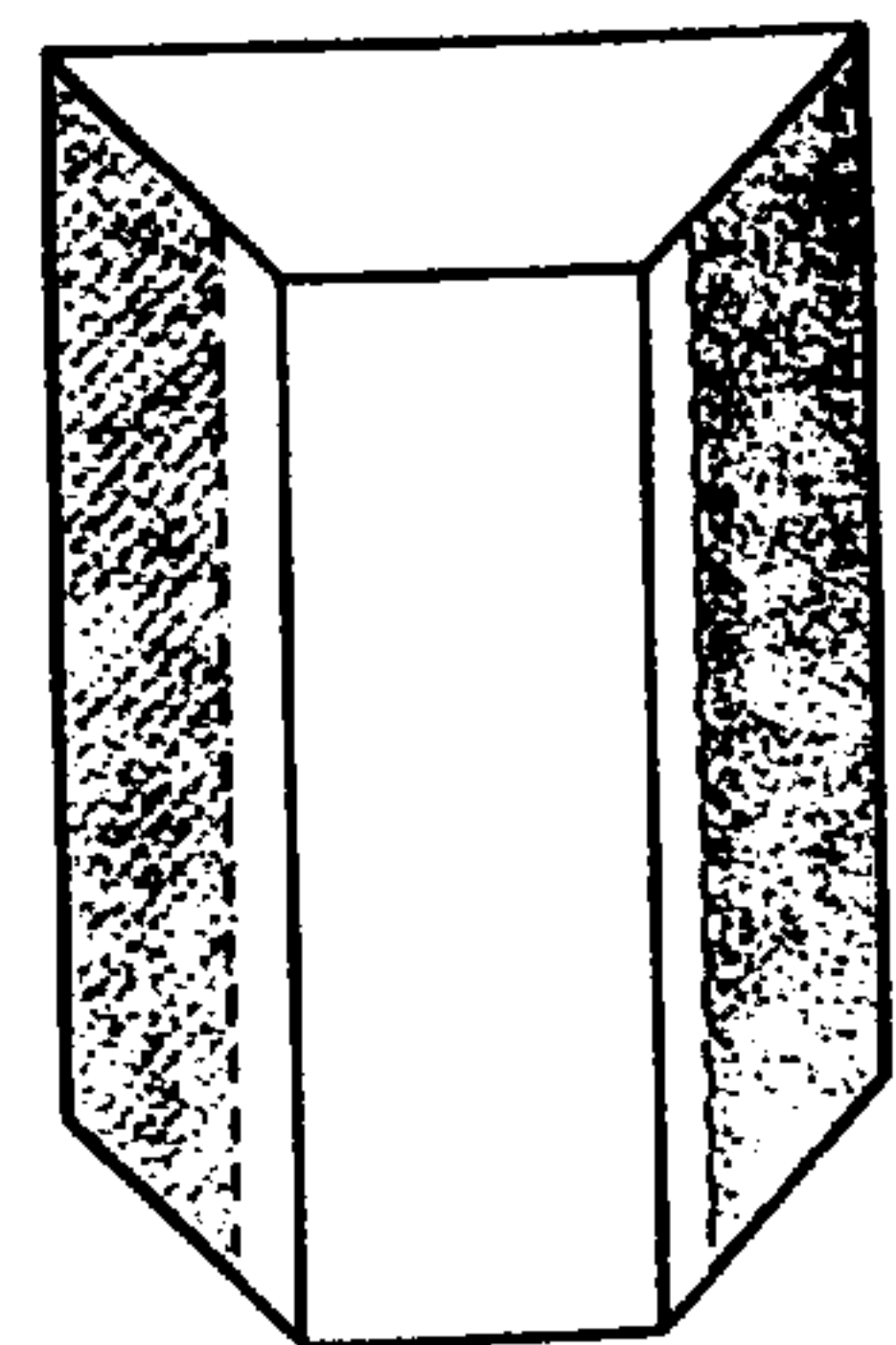


그림 63



노우즈 새도우의 테크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기하학적인 돌출부분의 밝음과 어두움이 개개인이 서로 다를 것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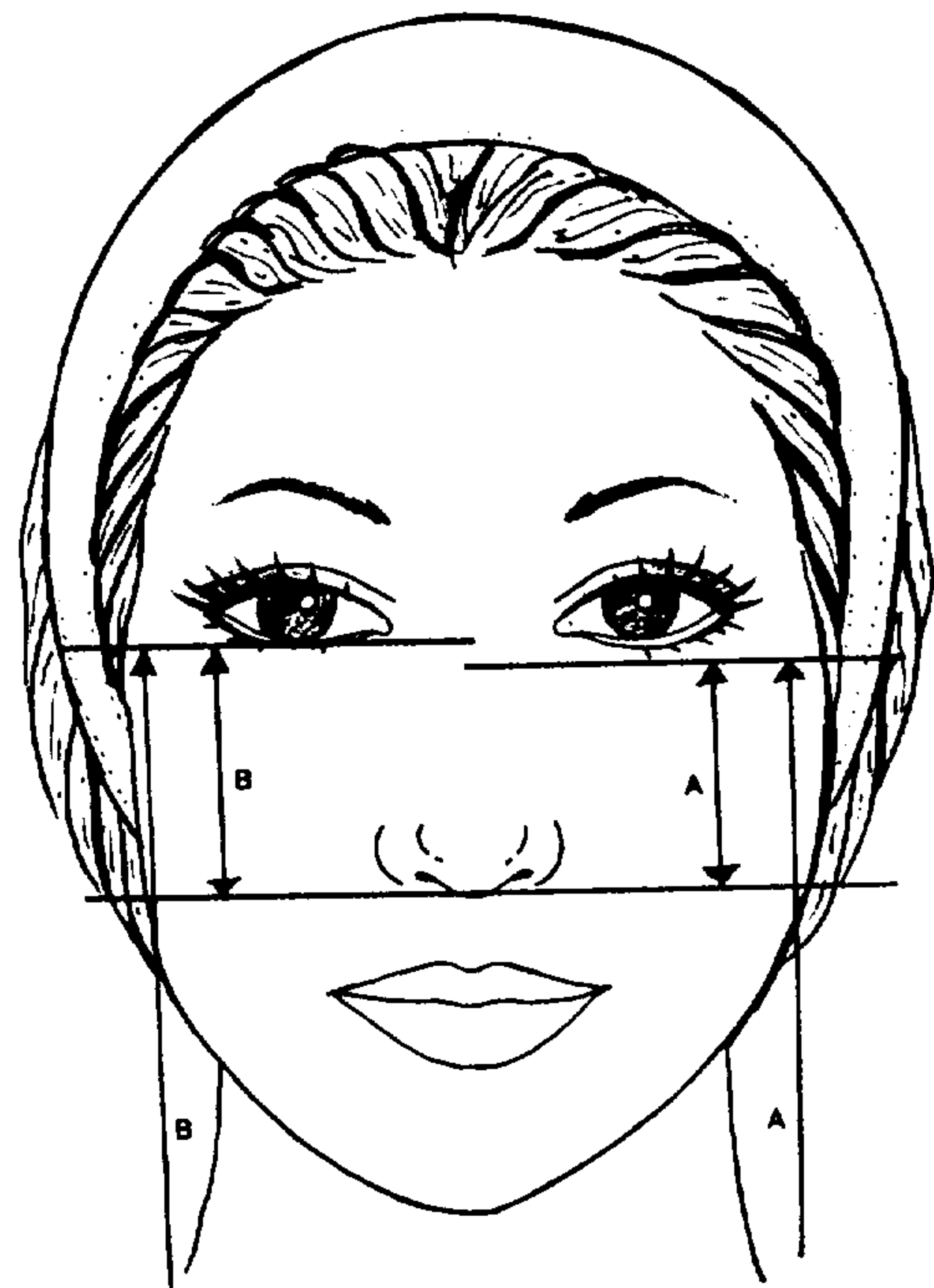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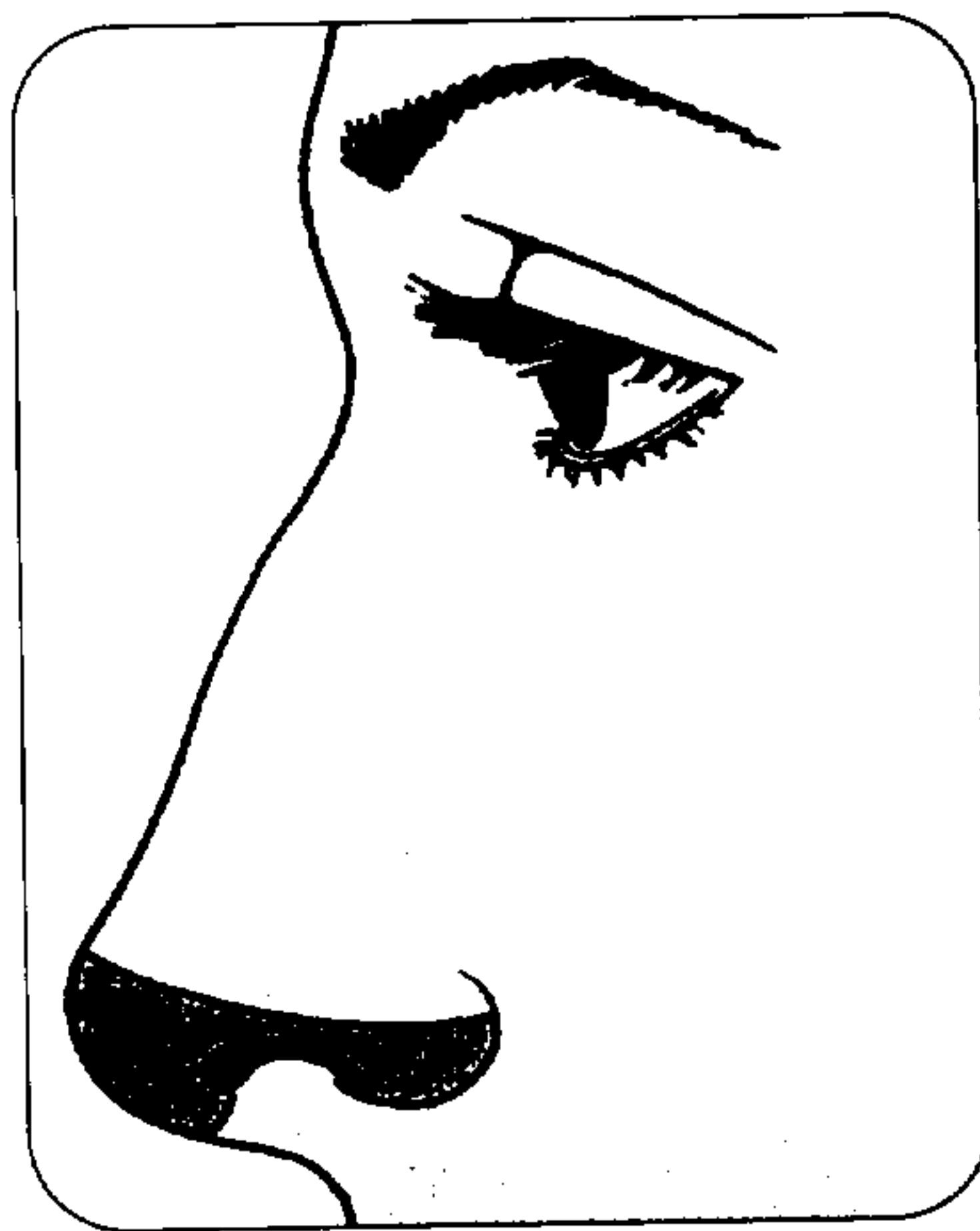
그림 61의 A부분은 코의 중앙이며, B부분은 코의 양쪽 측면이며, C부분은 코의 넓이이다. 결국 코의 일부분을 넓히거나 축소하거나 A부분과 B부분의 세로방향의 넓이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림 62는 코의 크기에서 축소를 한 경우라서 shading을 많이 했고, 그림 63은 코의 크기에서 확대를 한 경우라서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여 코의 넓이를 넓혔다.

나. 다양한 노우즈 새도우 테크닉

가) 코가 긴 경우

그림 65 출처 : Stefano Anselmo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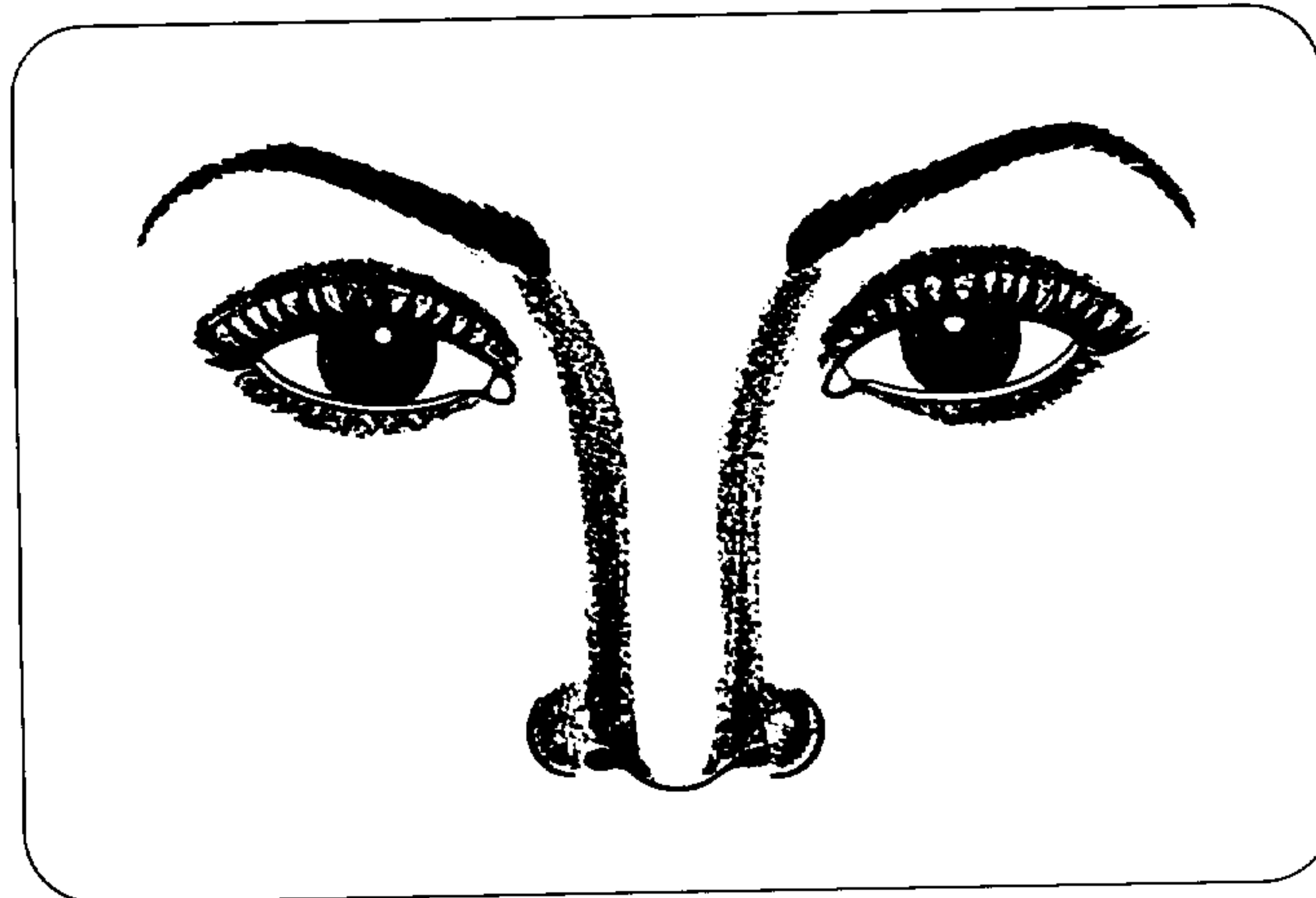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코가 긴 경우는 얼굴형도 긴형이 일반적이다. 화운데이션을 바를 때도 가능하면 이마쪽은 밝고 그림64과 같이 턱밑과 양쪽 콧볼까지 어두운색을 칠한다. 교정용 콤팩트(밝은색/어두운색 겸용) 어두운색으로 턱밑과 양쪽 콧볼까지 shading 해준다. shading 했다 하더라도 방법의 효과는 큰것이라 기대하기 보다는 아주 작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65를 보게되면 특히 코가 긴 경우의 눈화장의 위치는 코의 길이를 축소 또는 더 길어 보이게 한다. 따라서 그림 A, B와 같이 A의 눈화장은 아이새도우의 색상이 눈 바깥으로 펼쳐 바르는 것 보다 바깥과 눈 아래 안 쪽선이 만나 둥글게 칠했고, B의 눈화장은 아이새도우의 색상이 눈 바깥으로 펼쳐듯이 발랐다. 결국 A의 눈화장과 B의 눈화장으로 관찰하면 A이B 보다 코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코가 납작한 경우

그림 66



대개 아시아인들에게 많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콧등, 콧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다. 화운데이션을 바를 때도 코의 양쪽 측면에 어두운 색을 바르고, 코의 중앙에는 아주 밝은 색 (라이트 베이지)을 발라준다.

교정용 콤팩트를 이용해 다시 한번 음영을 주는데 어두운 색상으로 코의 끝까지 음영을 주고, 밝은색으로 콧등 전체를 칠해준다.

7) 입술 메이크업 테크닉

일반적으로 얼굴을 조각으로 보면 입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또한 아주 정성들여 화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입술은 움직임이 많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이며 입술화장은 입술의 윤곽을 살려주고 입술에 색감을 주어 얼굴의 표정 전체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준다. ²⁹⁾

가. 입술 윤곽 그리기 및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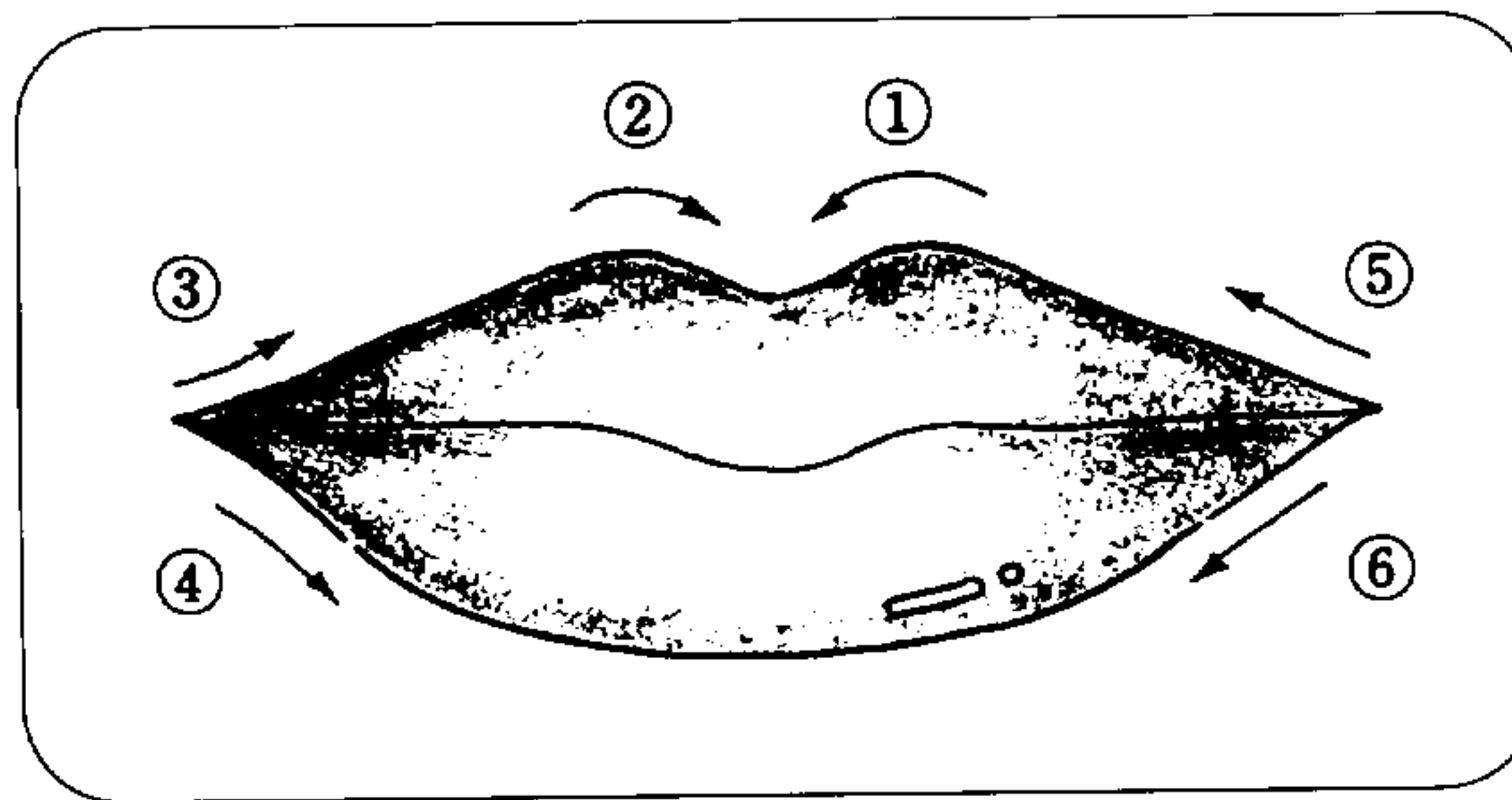
가) 화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를 바른다.

나) 립펜슬을 사용하여 윤곽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리며 펜슬심은 너무 딱딱하거나 무른 것은 좋지 않으며, 윤곽을 그릴 때 쉽게 미끄러지듯 정확히 그려지는 펜슬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입술의 균형은 아주 중요하다.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그리고 나이든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가의 주름에 립스틱이 스며들지 않도록 윤곽선을 정확하게 그린다.

라) 입술 그리는 순서

그림 67



립펜슬은 자신이 원하는 립스틱의 색상과 비슷한 것으로 선택하여 그린다. 그래야 립스틱이 입술 윤곽으로 퍼지는 것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29)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앞의 책 p.87

그림 68 입술이 작은 경우인데 입술 윤곽도 잘못 그려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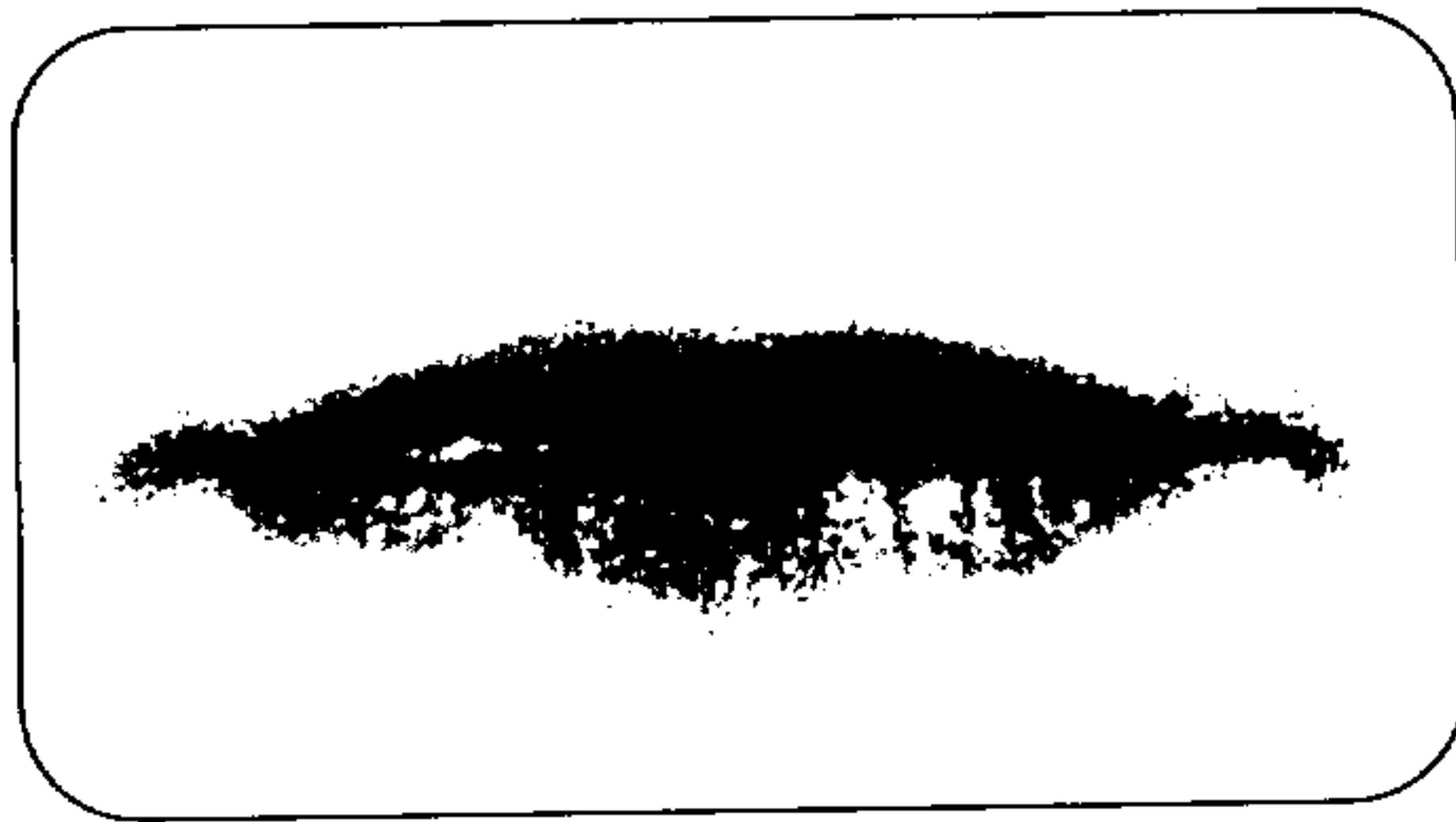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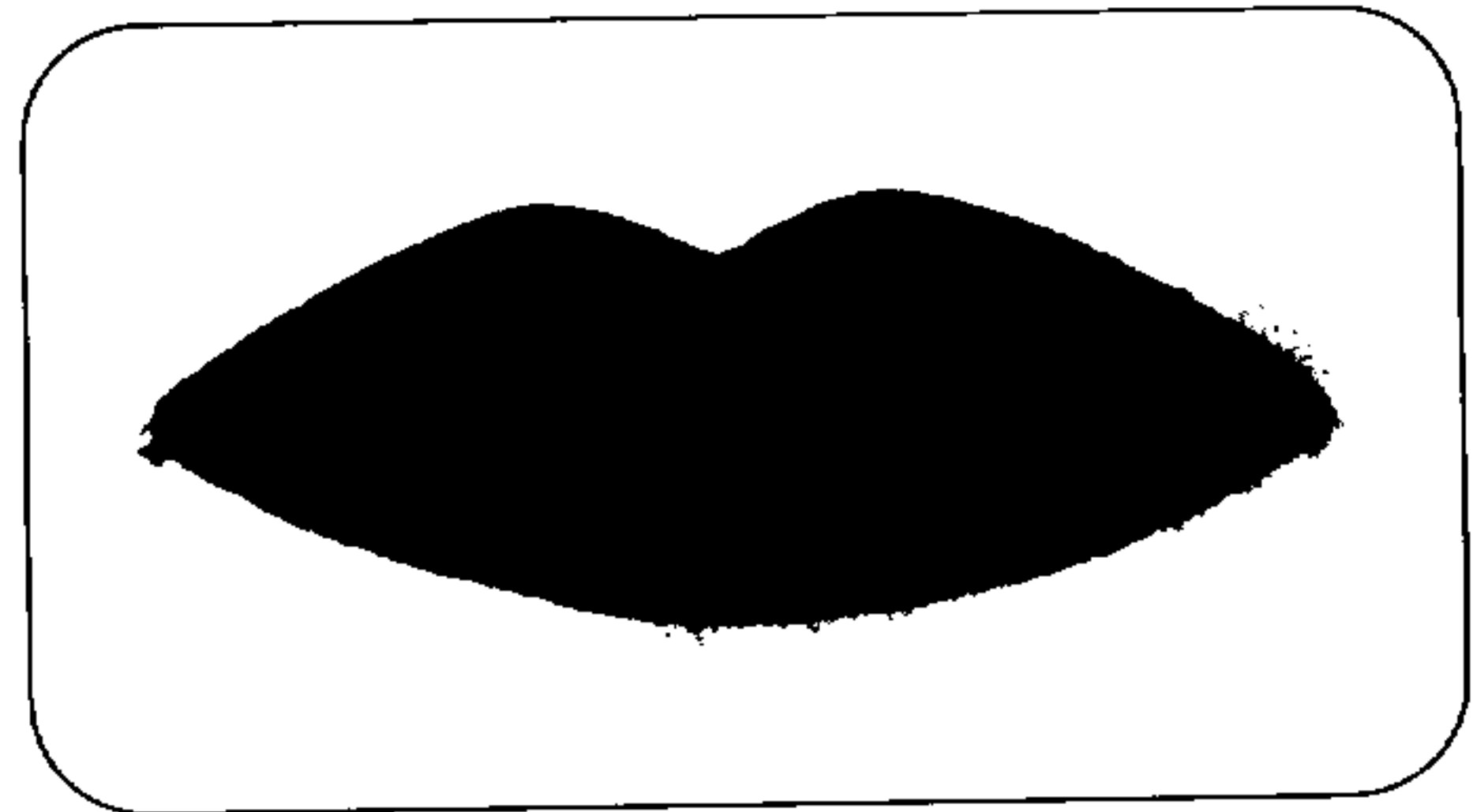


그림69 잘못된 윤곽을 교정하고 입술선도 크게 그린 후 립스틱을 바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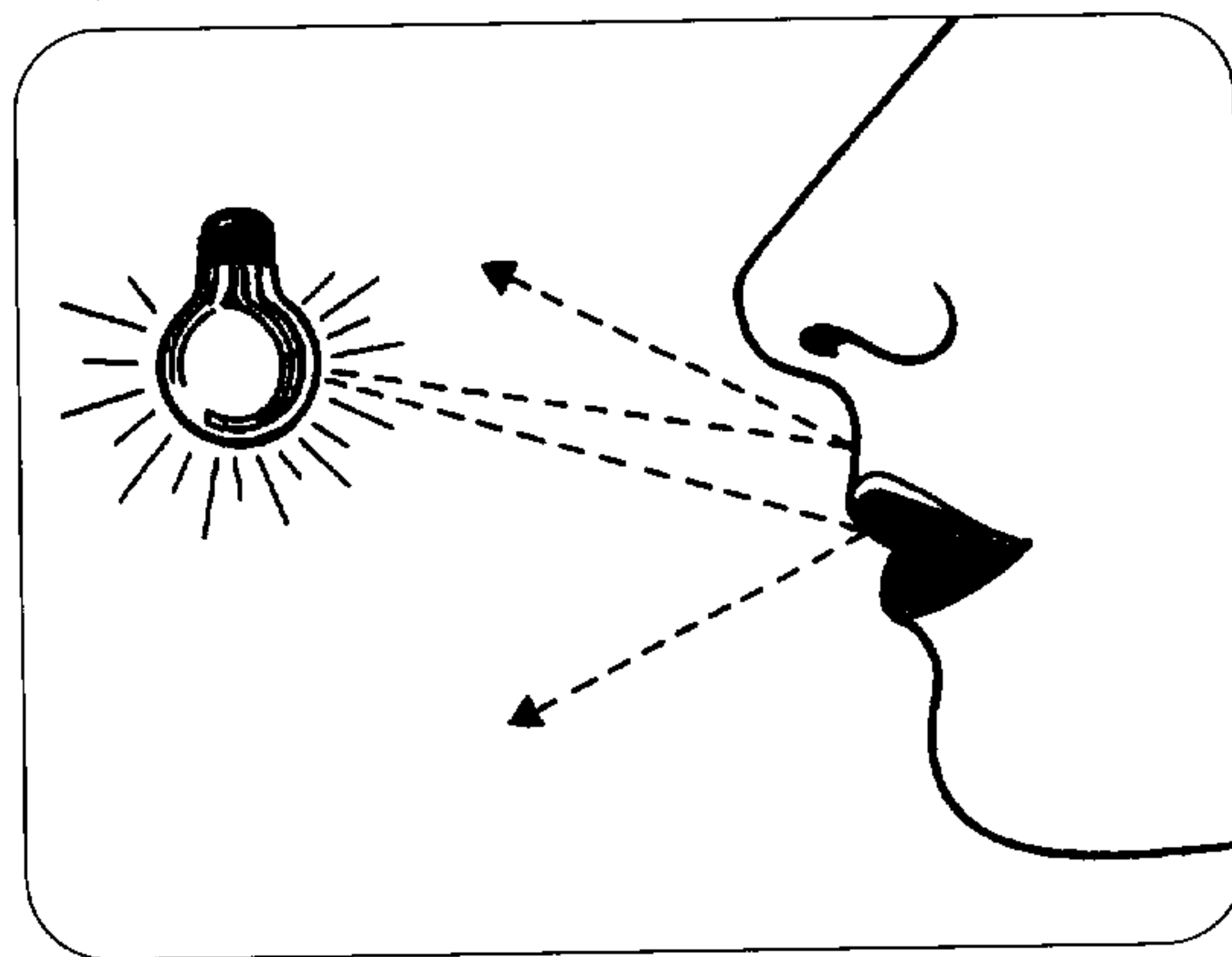
나. 입술 교정 테크닉

립스틱은 단순히 입술에 컬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윤곽과 더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어 하모니를 얻기 위해 균형이 필요한 곳에 교정을 해 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입술 윤곽을 교정하고 싶으면 단 1mm나 0.5mm라도 늘려 그리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이다. 먼저 입술을 크게 그리던 더 작게 그리던 교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모델의 프로필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 입술이 작은 경우

그림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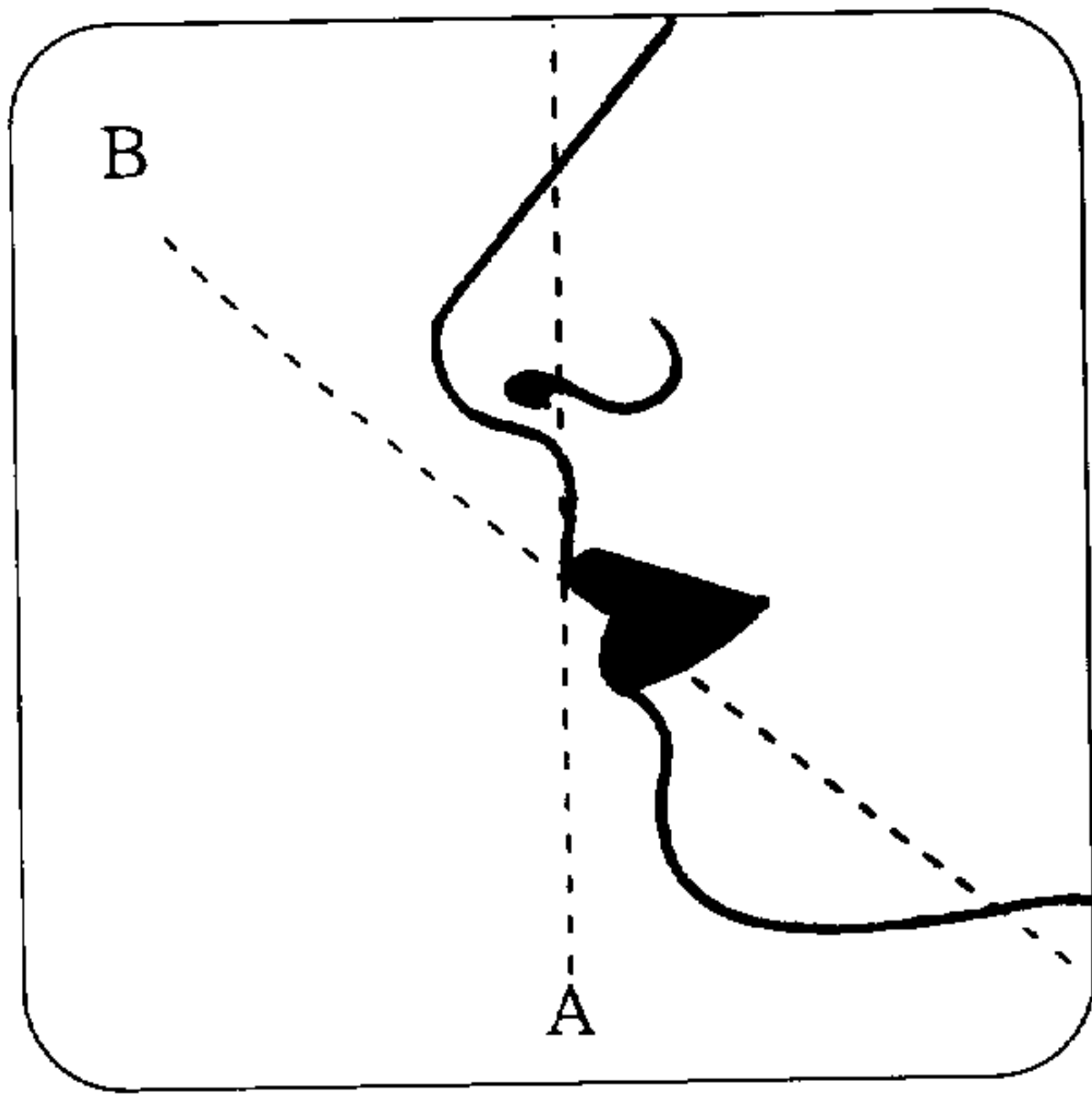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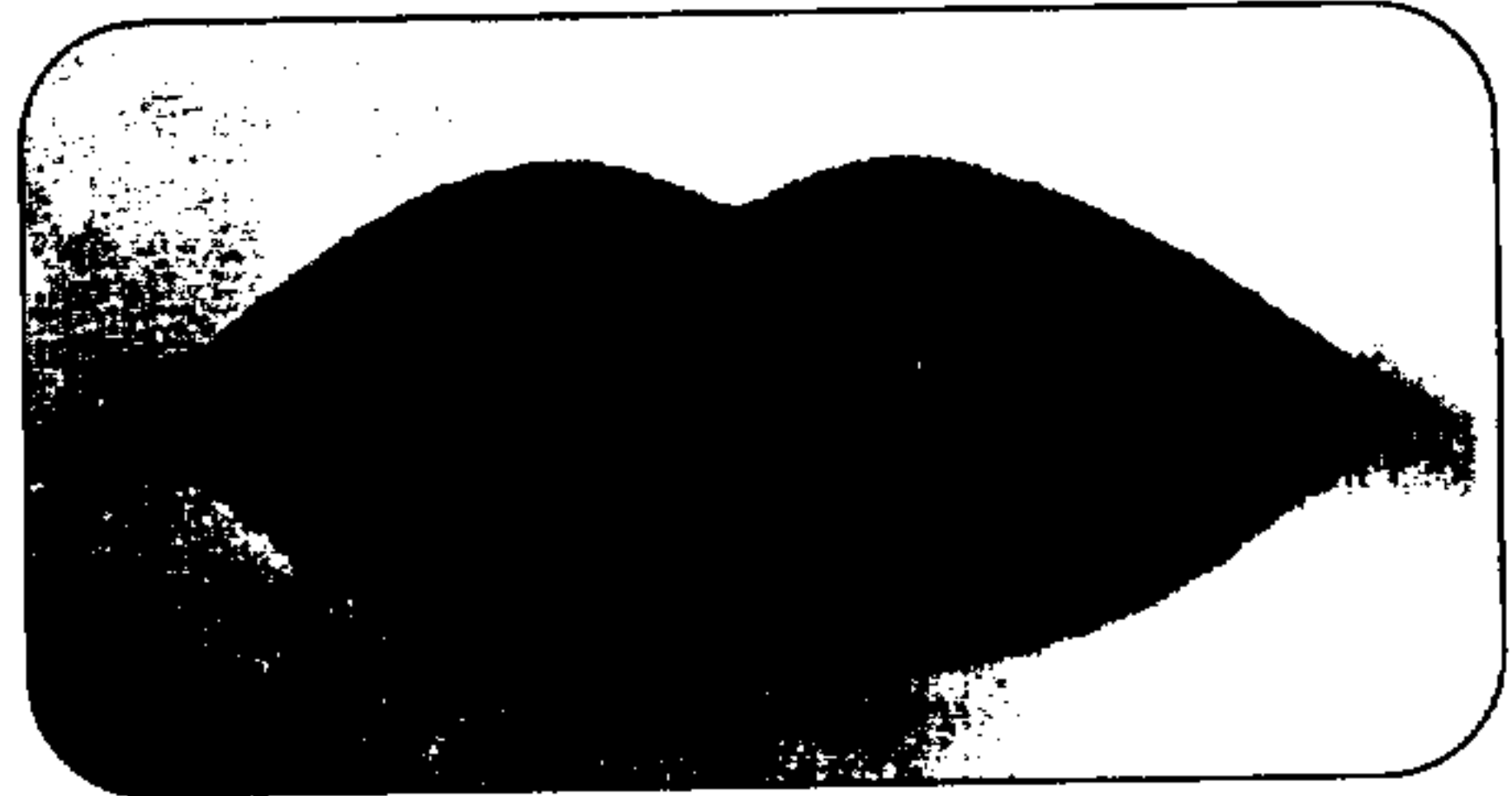


그림 71

그림 72



선A는 윗입술을 중앙으로 자른 선이며 선B는 A선의 경사각도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입술은 선B에서 아주 가볍게 선을 늘려 그리고 선A를 조금 두텁게 그려주는 식이다.

작은 입술을 아주 가볍게 늘려 화장한 경우, 아주 짙은 색깔의 립스틱이나 립 글로스를 바르면 눈에 띄기 쉽다. 그러므로 입술윤곽을 늘려 그릴 때는 매트한 립스틱이나 붉은 색이 들어 있는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립스틱을 바른 후 윗 입술 위에 살색 안티펜슬로 살짝 바깥으로 선을 그려주면 훨씬 볼륨감이 있고 입술이 돌출되어 보인다.

윗입술 위에 살색 안티펜슬로 살짝 그려줘 highlight 효과를 준다. 아래 입술에는 약간의 shade 으로 아래 입술이 볼륨감과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림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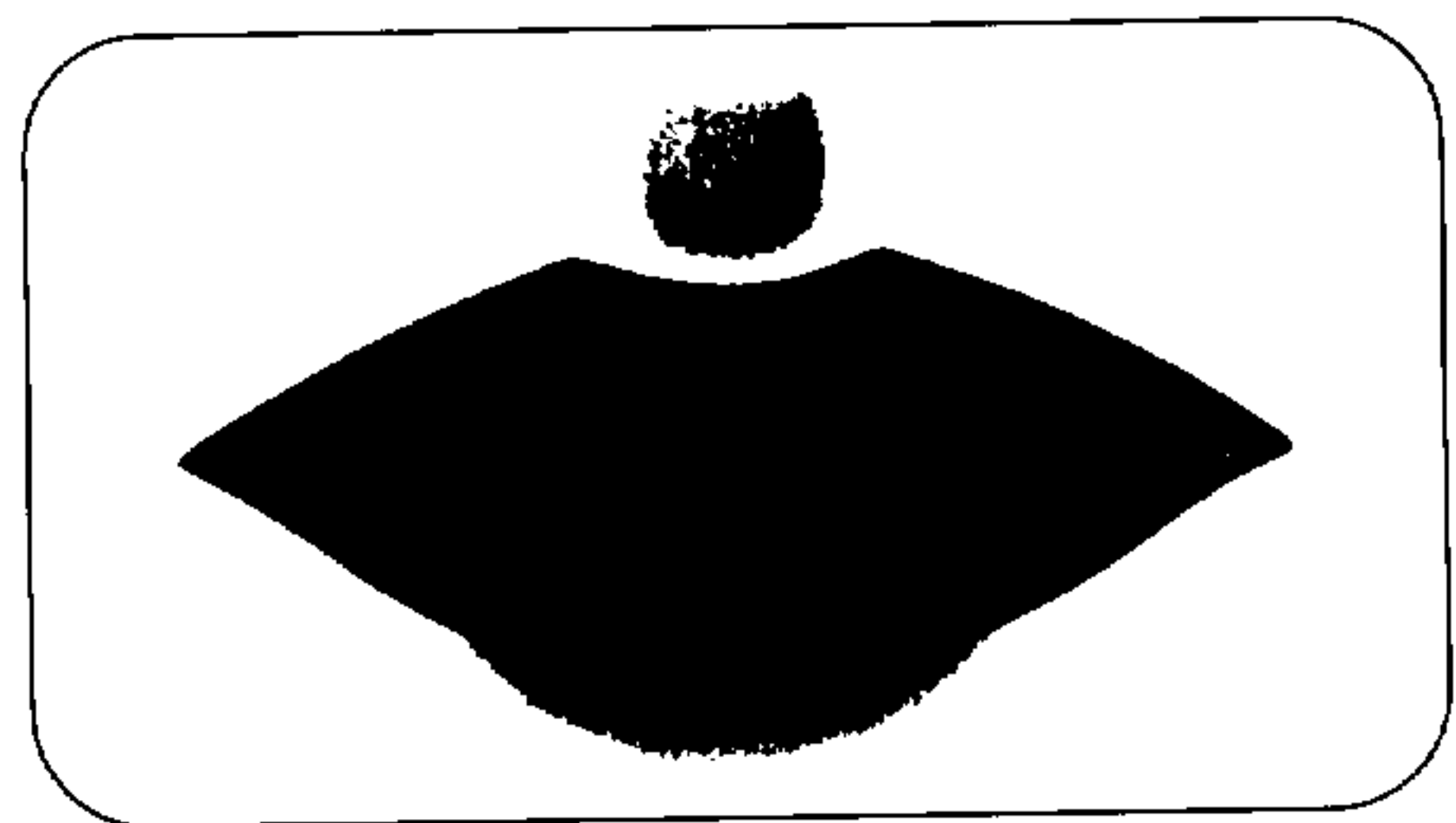


그림 74



나) 입술이 큰 경우

입술이 큰 경우는 화운데이션을 칠하기 전에 안티펜슬로 윤곽선 전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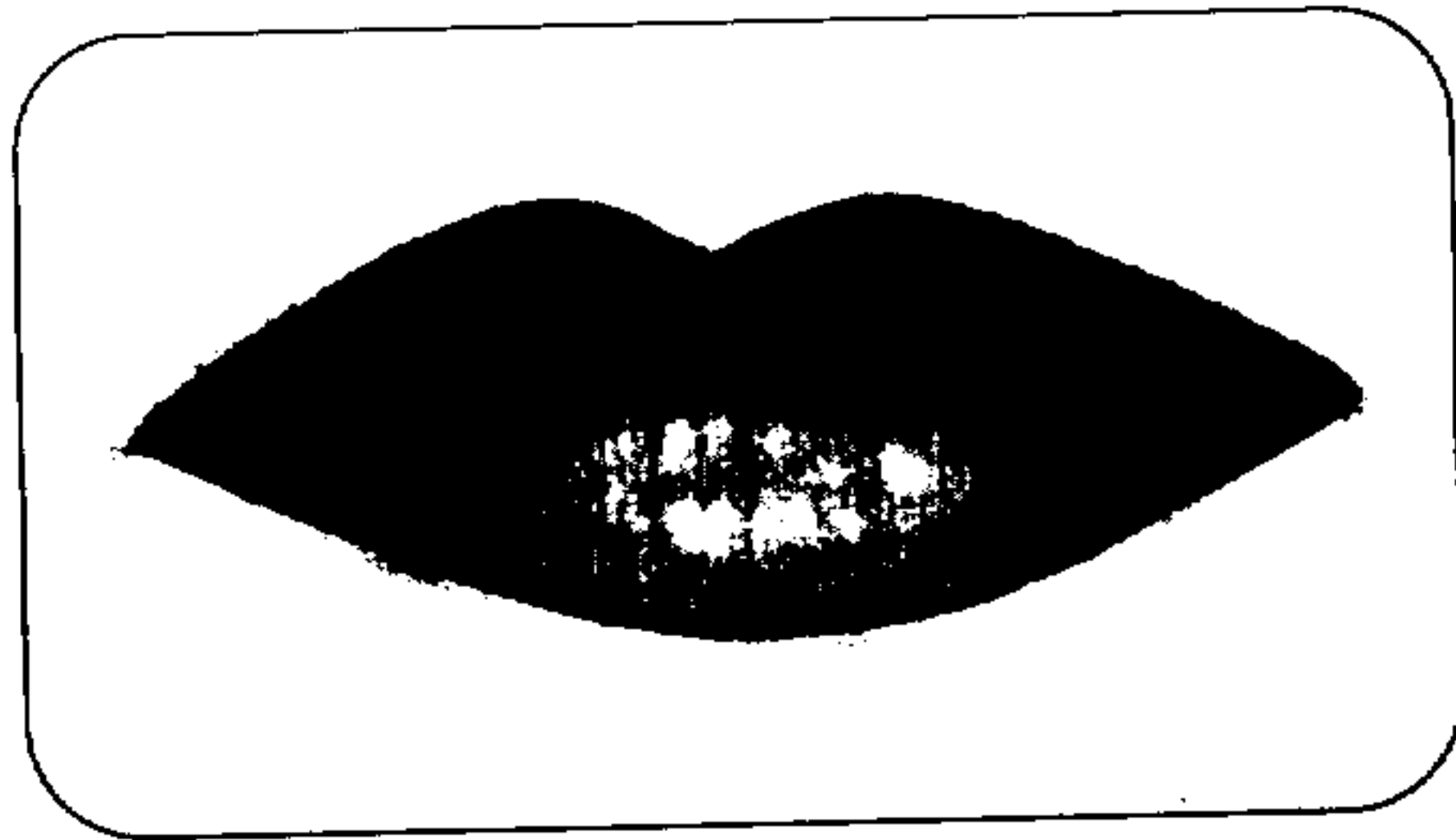
칠해주면 윤곽선이 아주 희미해 진다.

그런 후 전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르고 원하는 윤곽을 립펜슬로 다시 그린다.

다) 음영을 이용한 경우 (light-shadow)

입술 모양이 약간 평면일 때는 입술의 돌출감이 떨어진다. 이럴 경우는 음영(light-shadow)원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림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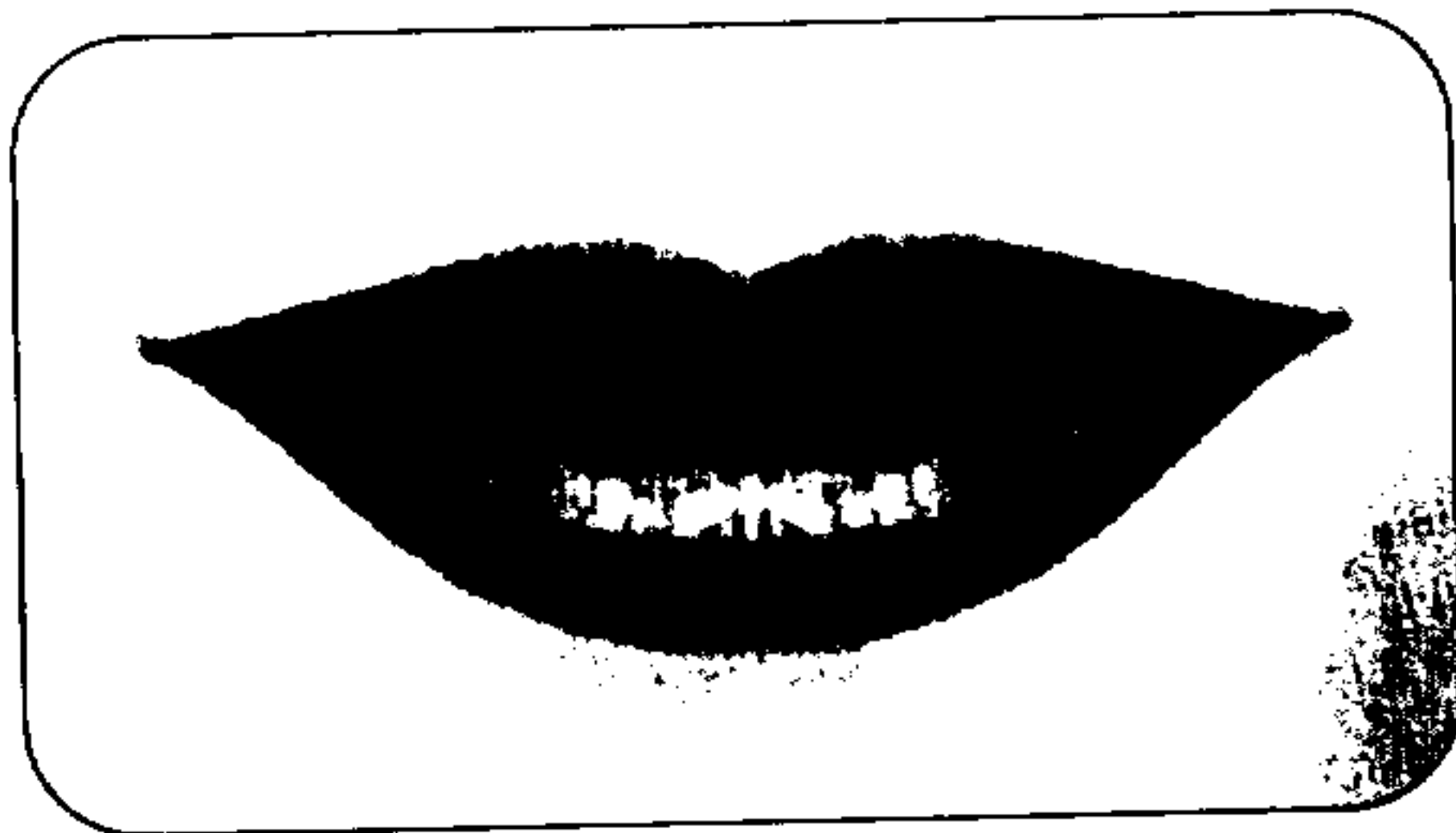


질은 색상의 펜슬로 보기와 같이 음영을 주었다.

(A : 짙은 곳 sha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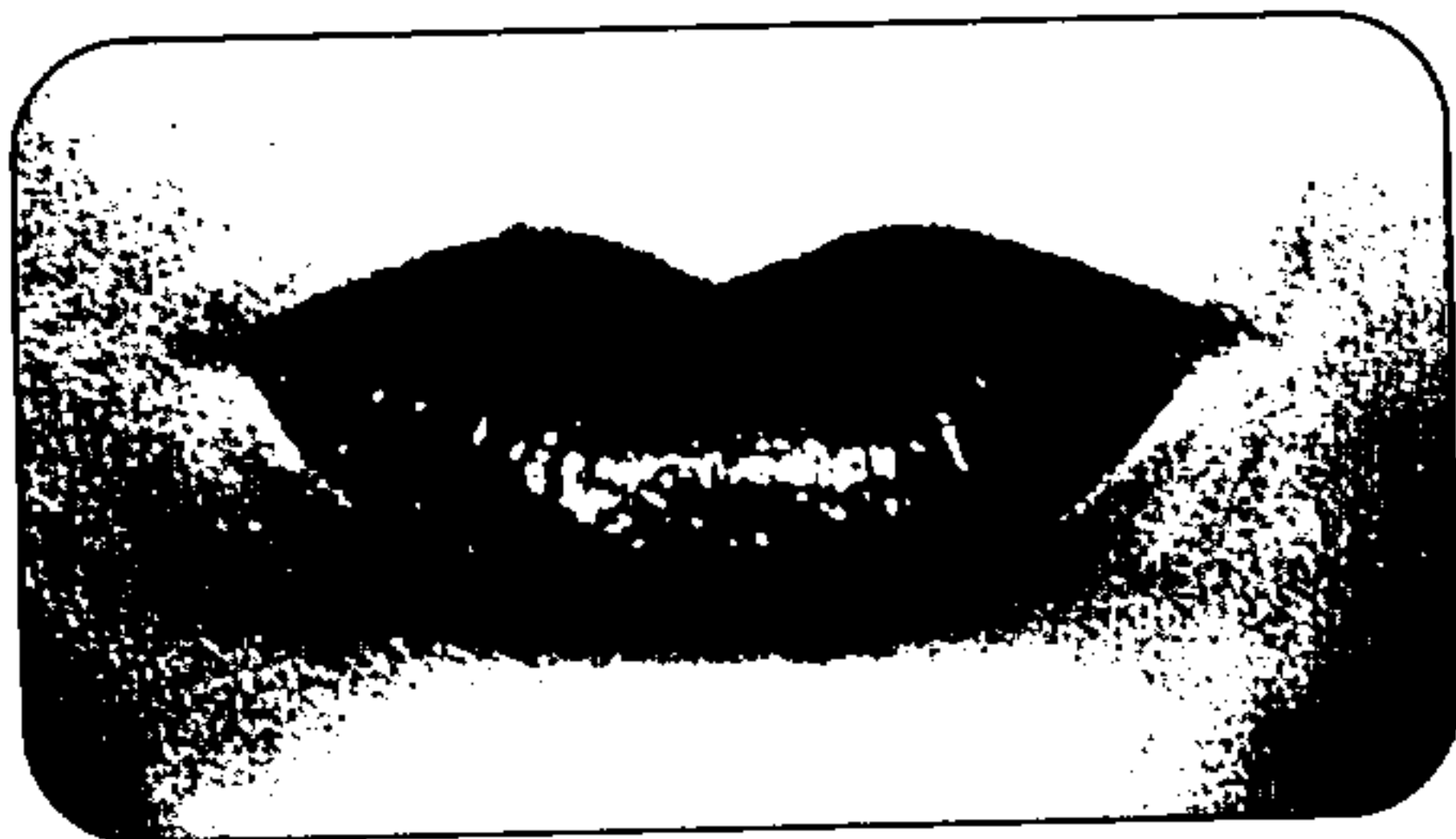
B : 밝은 곳 light)

그림 76



B에 중앙에 펄이 들어있는 아이새도우 (흰색, 노랑 등)나 스타 파우더(펄 가루 파우더)를 칠한 후 자신이 원하는 립스틱을 칠한 후 그위에 투명 립 글로스를 칠했다.

그림 77



음영의 원리를 이용해 입술 윤곽을 그린 후 입술형태 즉, 윗입술을 작게 그리고 아랫입술은 좀더 늘려 그린 경우다.

라) 의상색과 조화되는 립스틱 색상)

립스틱의 색상은 특히 의상(상의)의 색상을 고려하여 선택한다.³⁰⁾

표 1

의상색	립스틱 색상
그린계(Green)	오렌지계나 브라운계
레드계(Red)	레드나 브라운계, 핑크는 피한다.
블루계(Blue)	선명한 레드, 핑크, 강한색이 어울린다. 그러나 옥색이 섞인 블루계통의 옷은 핑크나 레드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브라운계(Brown)	산호빛, 팔죽색 계열의 핑크, 자주빛이 도는 레드 잘 어울린다. 황갈색 계통도 좋다.
퍼플계(Purple)	밝은 핑크, 적포도주빛이 잘 어울린다.
검정색(Black)	립스틱 색상은 밝은 것이 좋으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한색을 바른다.
흰색, 아이보리, 파스텔조	소프트한 느낌의 색, 로즈(rose)계의 색

30)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앞의 책, p.154.

4. 얼굴의 조형적 형태의 특성

그림 78 출처 : Stefano Ansel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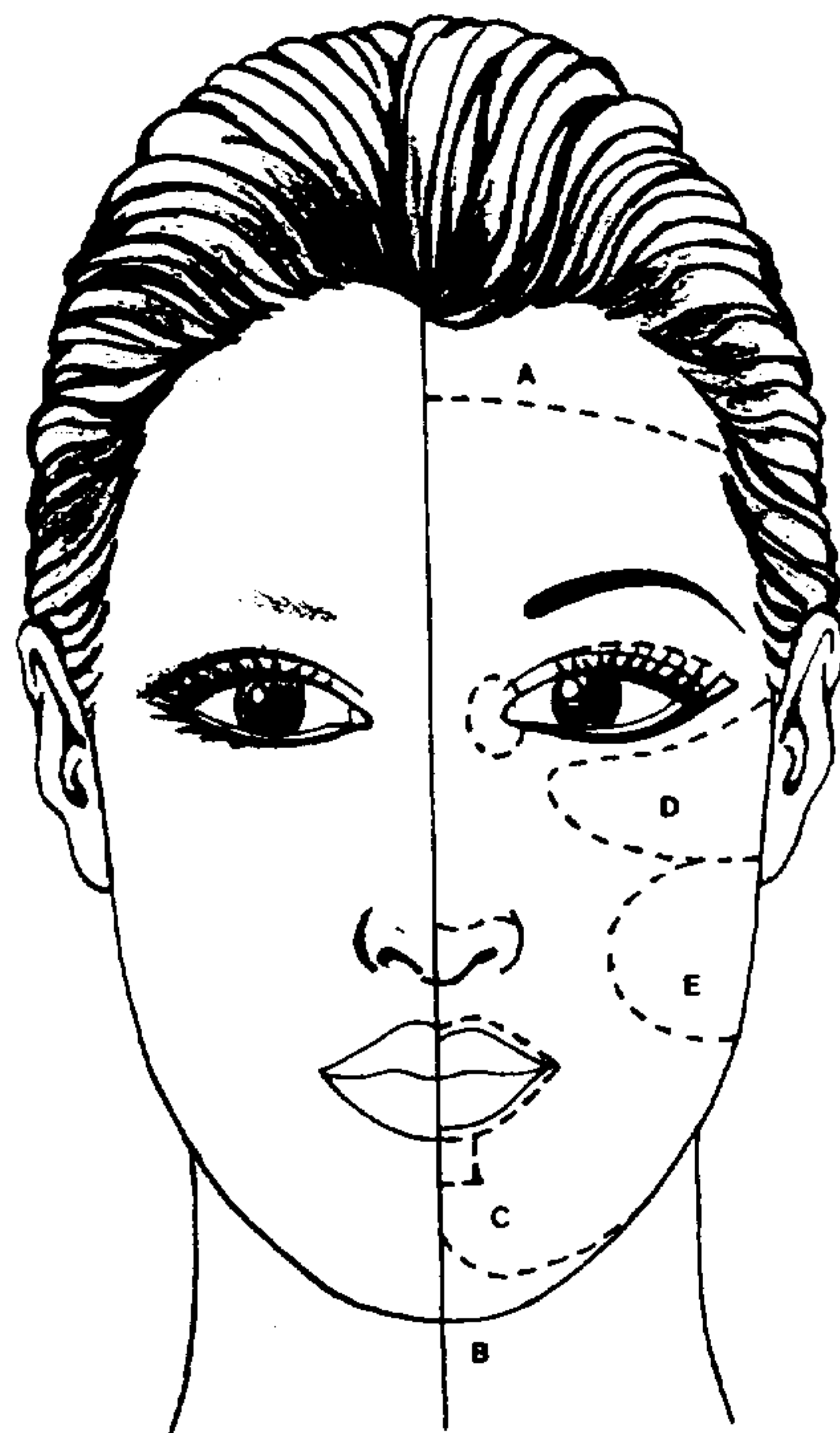
1) 긴 얼굴형

긴 얼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얼굴이다.

그림 78과 같이 이마도 넓고 코도 길며 턱이 돌출되는 경우

가. 화운데이션

얼굴이 원래 길거나, 체중 감소로 얼굴이 말라 길게 보이는 경우도 때때로 올 수 있다. 이럴때는 그림과 같이 이마 윗부분(A), 턱밑(B), 턱뼈의 약간부분, 그리고 코밑을 갈색 화운데이션으로 칠한다.



이때 너무 짙은 색은 피하도록 하고, 또한 옆 얼굴(profile) 너무 납작한 경우에는 턱 바로 아래에 살짝 음영을 주도록 하고(C부분)볼뼈 위에는 세로 방향으로 high light를 주어 얼굴 넓이가 확장 되게 해 주고 볼뼈 밑의 shading이 들어가는 곳에도 세로 방향으로 음영을 주도록 한다.

나. 눈썹과 눈화장

눈썹을 그릴 때, 가로방향으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눈썹도 가늘게 그리지 말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서 가로로 약간 길게 그리면서 선을 둥글게 그려준다. 눈화장은 눈꼬리가 너무 관자놀이 방향보다는 아래 방향으로 길게 넣어 준다. 특히 눈 끝에는 음영을 강하게 주지 않도록 한다. (검정색 보다는 갈색 아이섀도우가 좋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는 눈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 그리고 눈끝에 속눈썹을 붙이면 된다.

다. 블러쉬

볼터치는 긴 얼굴에는 매우 중요하다. 볼뼈 밑에는 교정용 콤팩트의 어두운 색으로 그림1의 E와 같이 음영만 주고, 볼뼈 위의 밝은 곳에는 살구, 복숭아, 연핑크색 같이 부드럽고 밝은 색을 큰 브러쉬를 이용해 칠한다.

라. 입술

입술 길이도 조금 길게 윗입술, 아랫입술로 조금 넓게 그리고 진하고 강한색 보다는 중간색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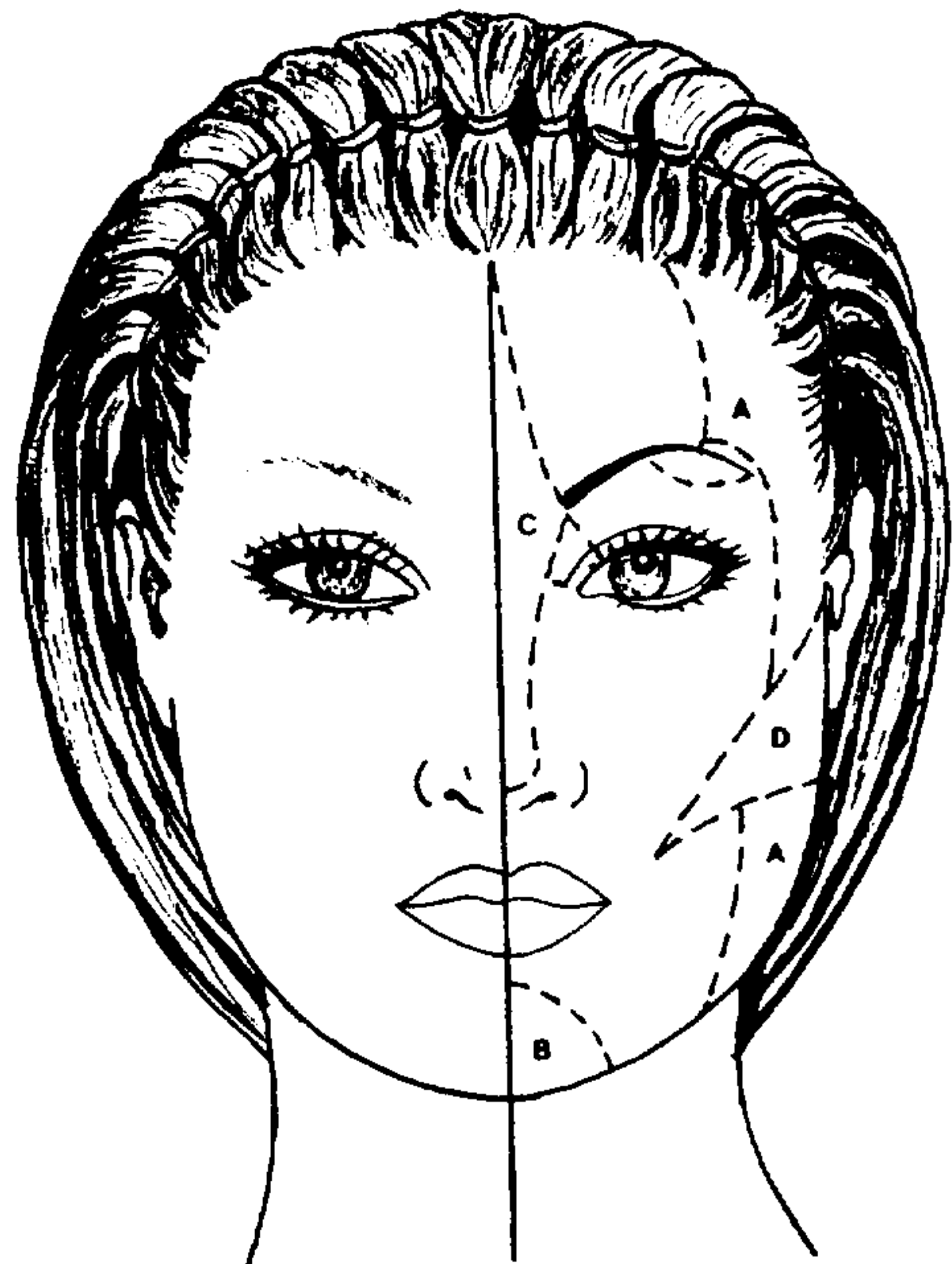
그림 79 출처 : Stefano Anselmo

2) 동그란 얼굴형

동그란 얼굴형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얼굴형이다. 이러한 형은 세로 길이 방향으로 늘려 동그란 형이 자연스럽게 감춰지도록 만드는 테크닉이 중요하다.

가. 화운데이션

그림79와 같이 얼굴 양쪽으로 갈색 화운데이션으로 음영을 준다.



나. shade

특히 갈색 화운데이션 사용부위 즉 이마 옆(A부분)과 등글면서 턱 밑이 무거워 보이는 부분 (B부분)을 칠할 때 목선과 차이 나지 않도록 스폰지를 이용해 목 밑 부분까지 잘 그라데이션을 한다.

이마 옆 (A) 부분을 shading 할 때도 화운데이션의 색상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귀까지 주의해서 바른다.

다. highlight

얼굴 뿌리부터 코 밑까지 (C부분)와 턱밑(B부분), 눈썹뼈 까지도 밝은 베이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어 얼굴의 길이가 길어 보이도록 만든다.

라. blush

볼뼈 밑의 음영은 A부분 보다 좀 더 강하게 세로로 길게 (볼 뼈에서 입술 밑 방향으로) 교정용 콤팩트의 어두운 색으로 다시 한 번 음영을 주도록 한다.

동그란 형을 없애기 위해 볼밑에 너무 강한 갈색으로 음영을 만들어 주면 인위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러움을 망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눈썹과 눈화장

눈썹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도록 그리며 두께는 두껍게 그리는 것 보다 가늘게 그리는 것이 얼굴 길이를 길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눈화장은 아이섀도우와 아이 펜슬을 이용하여 눈꼬리를 밖으로 늘려 세로 방향으로 칠한다. 눈 밑은 살짝 음영(넓은 갈색 등)을 주고 진한색은 칠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눈 앞머리 쪽에도 중간정도의 갈색으로 음영을 줘야 둥근 맛이 감소된다.(질은 초코 브라운이나 진한 갈색은 금물)

바. 입술

입술 길이를 길게 늘려 그리는 것 보다는 위 아래로 two tone을 이용하여 입술에 볼륨감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립펜슬을 이용해 입술 윤곽은 조금 진한 색을 선택한 후 립 브러쉬로 입 안쪽을 그라데이션 하고 입 중앙 하이라이트에는 밝은 색을 사용한다.

3) 네모난 얼굴형

이러한 얼굴형은 매우 개성있는 얼굴이라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요즘 패션 모델 중에는 이런 얼굴형을 선호한다.

광대뼈가 다른 형보다 발달됐다. 얼굴의 폭과 얼굴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경우이며 밝은 색 화운데이션은 얼굴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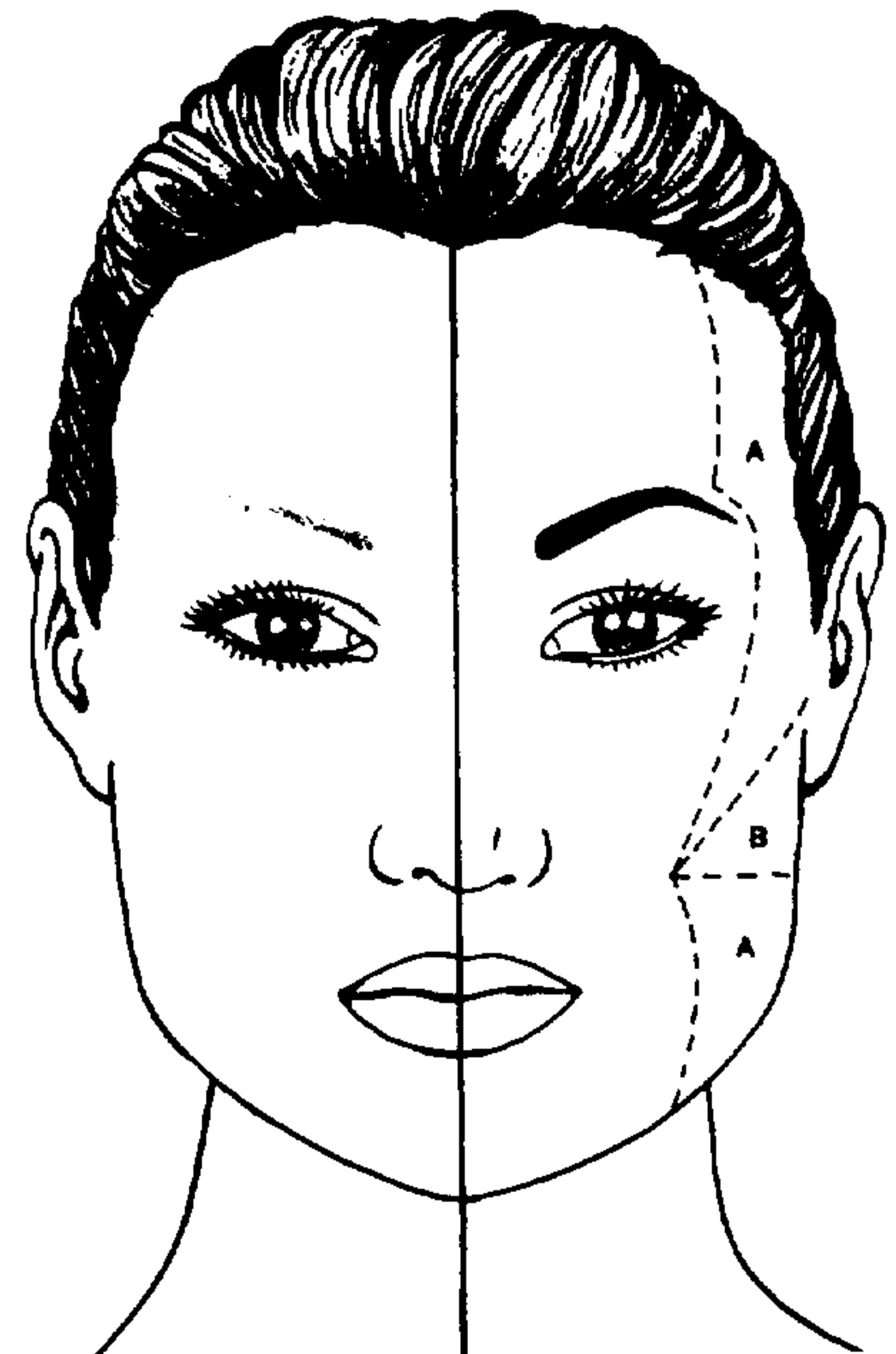
가. 화운데이션 : shade

그림 80 출처 : Stefano Anselmo

그림과 같이 기본 색의 화운데이션을 바른 후 갈색 화운데이션을 양쪽 얼굴 측면과 턱밑 각진 부분 (A부분에서 B부분까지) 칠한다.

기본색의 베이스와 갈색 화운데이션이 귀와 턱밑에 표가 나지 않도록 스폰지를 이용해 그라데이션하고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하면 잘 퍼준다.

특히 베이스와 교정용 갈색 화운데이션이 섞이며 그라데이션 되면 섞인 색이 얼굴 중앙에 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펴 주도록 한다.



나. 눈썹과 눈화장

눈썹 모양은 눈썹산에 각을 주듯이 그려 얼굴형이 각진것과 같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눈썹의 두께도 조금 두텁게 그려 주고 아이새도우는 그림 3과 같이 눈두덩과 눈 아래 부분에 음영만 주어 윤곽을 주듯이 칠한다.

다. blush

갈색 화운데이션으로 볼밑 음영을 준 곳에 교정용 콤팩트 어두운색으로 다시 한번 덧칠하여 주고 볼터치 색인 붉은 갈색으로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칠한다.

또한 광대뼈가 두드러진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턱뼈 밑에도 칠해 준다. 또한 네모난 얼굴을 더욱 강조하여 개성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밤색 볼터치 보다는 짙은 갈색으로 칠하고 방향은 입 가장자리 방향으로 가도록 칠하고 볼뼈 위에는 너무 밝은 색이나 너무 강한 색 보다는 중간색을 택해서 칠하면 얼굴 개성 표현에 효과적이다.

라. 입술

네모난 얼굴이라 입술선을 둥그렇게나 좁혀 그리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얼굴 모양과 같이 윗 입술선도 각을 주어 그리고 아랫입술도 있는 그대로 그려준다.

그림 81 출처 : Stefano Ansel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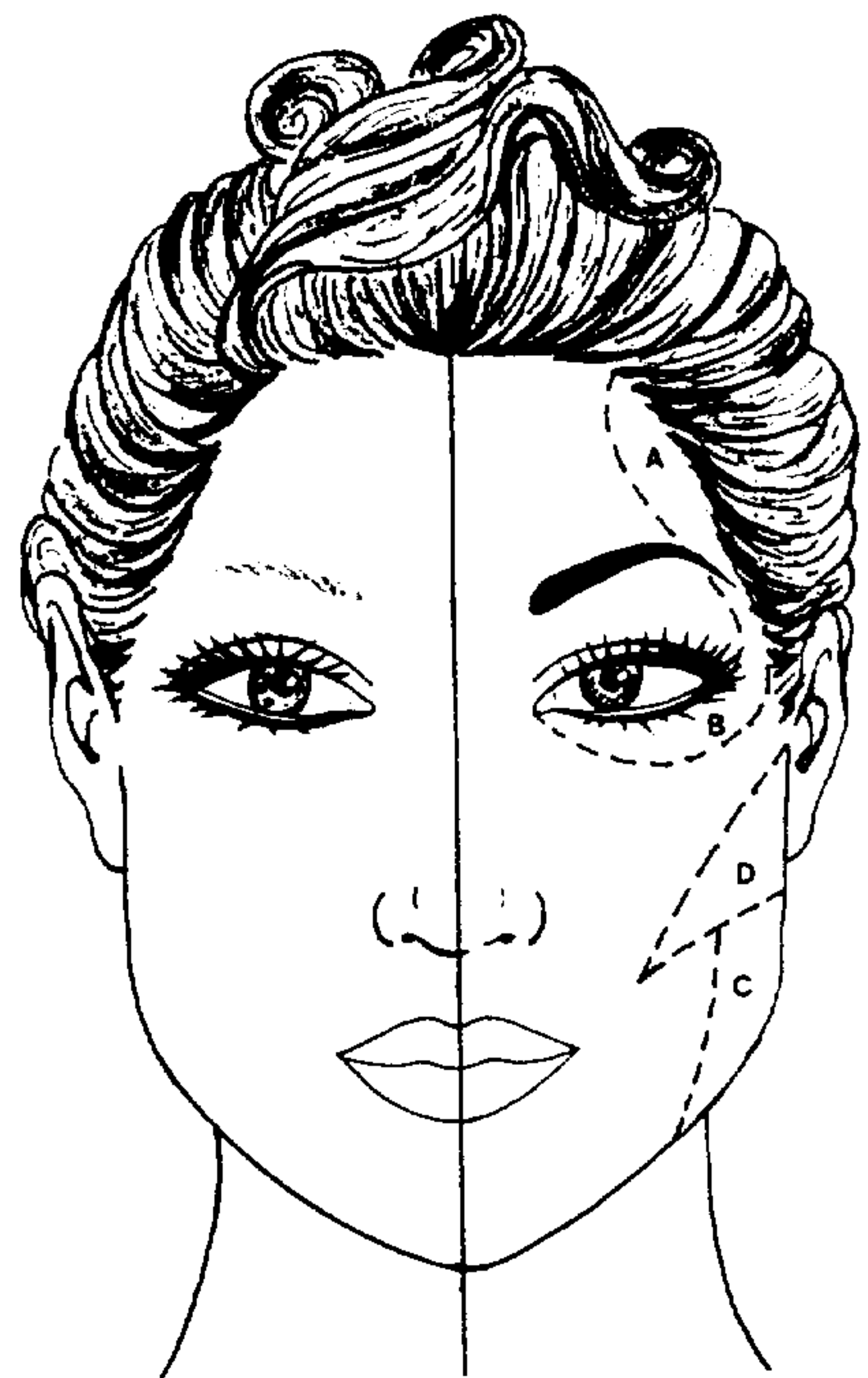
4) 삼각형 얼굴형

이마가 좁고 턱뼈가 길어 보이는 형으로 동양인 보다는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이다.

가. 화운데이션

- highlight : 볼뼈 위가 좁아 보여 볼 뼈 바로 위(B부분)와 연결되는 관자놀이(A부분)에서 머리까지 밝은 색(라이트 베이지)을 칠한다.

- shade : 턱뼈 아래(C부분)와 볼밑



(D부분)음영주는 곳에 갈색 화운데이션을 칠한다.

나. blush

볼밑(D부분)에서 교정용 콤팩트 어두운 색으로 다시 한 번 가로 방향으로 칠한다.

다. 눈썹과 눈화장

눈썹은 눈썹 중앙에서 조금 길게 그리고 형태는 바깥쪽으로 일자형으로 그리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라도 좋다. 눈화장은 관자놀이 방향으로 약간 올라가게 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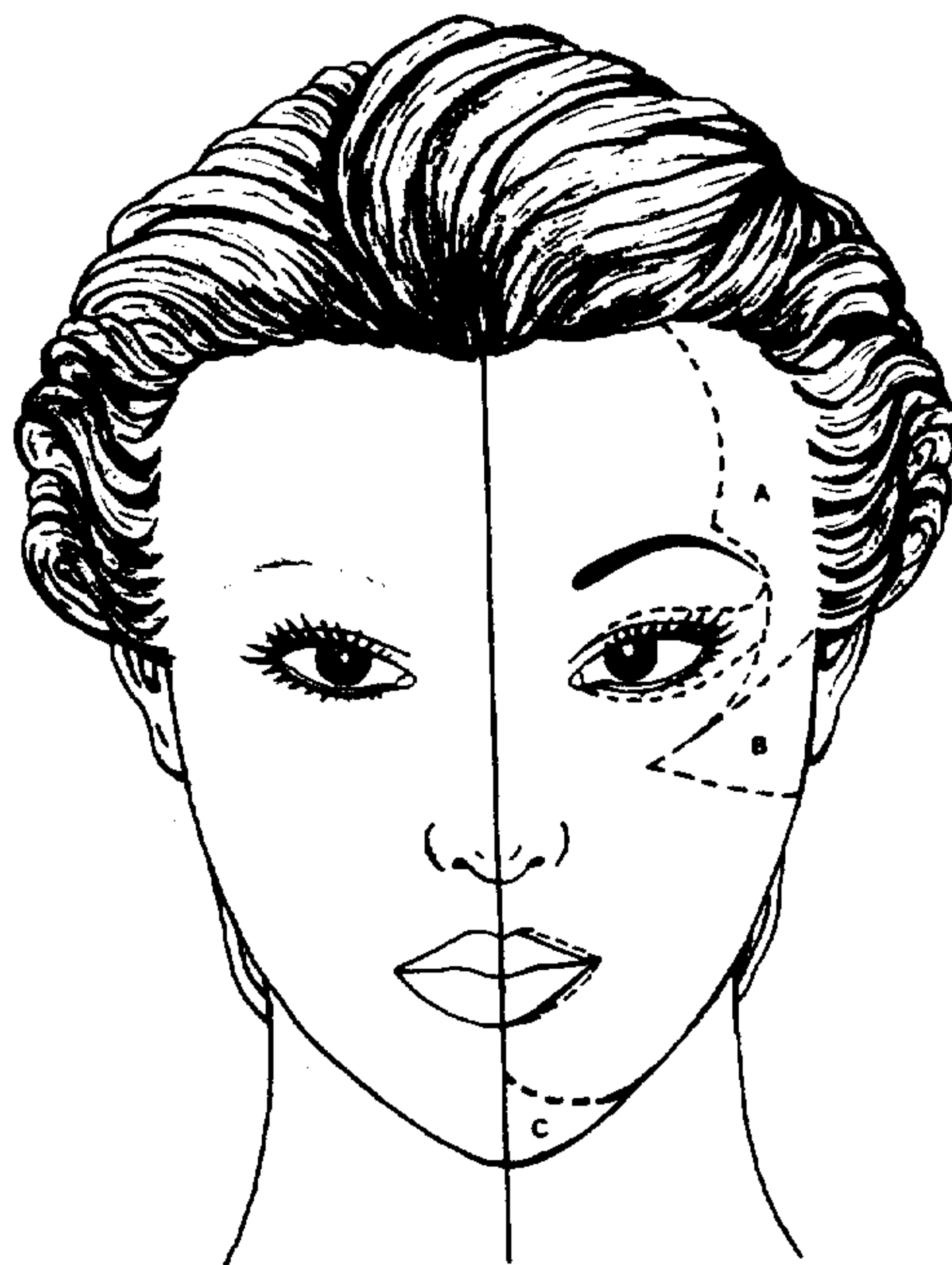
라. 입술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다만 선이 각이 지지않게 입술 윤곽을 그린다. 입술선을 늘려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역삼각형 얼굴형

이 얼굴의 특징은 얼굴의 상반부인 볼뼈부터 이마까지가 넓고 볼뼈 밑에서 턱선까지 즉 하관이 빠진 형이다. 그러므로 턱선이 뾰족한 것을 넓게 만들어 이마와 턱의 간격을 좁혀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림 82 출처 : Stefano Anselmo



가. 화운데이션

기본 베이스 화운데이션을 바른 후

- shade : 갈색 화운데이션으로 턱뼈(C부분), 이마 양측면 돌출부분에서

머리 선까지(A부분)와 볼뼈 바로 위 세로 부분까지 칠한다. 특히 관자놀이 부분이 넓어 자칫 눈이 작아 보이거나 앞쪽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에도 약간 길게 음영을 주도록 한다.

- highlight는 특별히 줄 곳이 없다.

나. 눈썹과 눈화장

눈썹은 뾰족하게 그리지 말고 약간 관자놀이 방향에서 살짝 꺾어지면서 윗쪽으로 가게 그린다.

교정용 콤팩트 어두운 색으로 이미 갈색 화운데이션을 칠한 곳에 다시 한번 눈 앞머리와 눈꼬리쪽 끝에 길게 음영을 덧칠해 준다.

눈두덩이 넓이가 넓으며 눈꼬리를 늘려 아이새도우가 가능하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눈썹뼈만 남기고 다 칠해 눈이 크게 보이도록 한다.

다. blush

특히 교정용 콤팩트 갈색을 이용해서 음영을 다시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얼굴의 길이 상반부와 하관의 불균형으로 볼뼈 위가 더 넓어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자놀이 양 이마 측면과 연결되게 얇은 갈색을 아주 가볍게 그라데이션 처리한다.

라. 입술

입술 윤곽은 뾰족하게 그리지 말고 하관이 넓어 보이는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위, 아래 입술의 넓이를 주어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색조 화장품의 표현 기법과 적용

1. 색조 화장품의 유형과 특징

화장의 테크닉이 중요하지만 얼굴의 요소요소에 쓰일 화장품의 선택은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 때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느냐”에 따라 요리의 맛이 달라지는 만큼 메이크업 역시 좋은 재료를 알맞게 확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또한 화장품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만큼 화장품의 기능, 질감(texture), 지속성, 가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여러가지 메이크업 테크닉을 제시했는데, 테크닉과 색조화장품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색조화장품들을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메이크업 베이스 (make-up-base/corrective make-up-base)

가. 특징

메이크업 베이스도 리퀴드, 크림, 젤 타입 등이 있다. 부담없이 쓰기에는 잘 퍼지고 느낌도 가볍고, 화장의 지속력이 충분히 있는 리퀴드 타입이 사용하기 좋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운데이션과 파우더의 밀착력을 높혀 주어 화운데이션에 의한 피부 부담감을 방지하고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 준다.

나. 종류 및 사용법

그림 83



표2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투명(살색)	베이스로 어떤 피부톤에 사용해도 무난하다.
초록	교정용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색이 붉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코, 뺨등)의 붉은색을 얹게 해 준다.
보라	동양인의 황색 피부톤을 중화시켜 생기있고 밝은 피부톤으로 교정시켜준다.
흰색	미세한 필이 있어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해 준다. 얼굴에 음영을 많이 주어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표현하는 패션 메이크업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오렌지	선탠 메이크업을 할 때, 밝은 톤의 피부를 어둡게 표현할 때 얼룩이 지지 않도록 교정한다.
하늘색	여름에 피부를 밝고 맑게 시원하게 표현한다.

2) 컨실러(Concealer)

가. 특징

피부의 결함(기미, 주근깨, 여드름, 점, 수술자국, 모세혈관 등)의 문제성 피부에 적절히 카바해 주는 제품으로 얼굴 전체나 국소부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화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이나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종류 및 사용법

가) 크림형 컨실러(complexion)

크림 타입으로 커버력이 아주 우수하면서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고 모공을 막지 않아 땀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소량 덜어 원하는 부분에 누르듯이 바르고 바른 후에는 투명 콤팩트 파우더로 고정 시킨 후 원하는 화운데이션을 발라야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운데이션에 밀려 효과가 떨어진다. 수술자국, 상처, 심한 여드름 자국 등 증상이 심한 곳에 좋다.

그림 84



나) 스틱형 컨실러(anti-cernes stick)

스틱 타입의 커버 전용으로 잡티(서클, 기미 여드름 자국) 부위에 바른 후 두드리듯이 펴 발라준다. 아주 쉽게 잘 퍼지는 기능이 있다. 화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한다.

다) 펜슬형 컨실러(anti-cernes pencil)

펜슬 타입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벼운 잡티, 눈가, 입술가의 얇은 주름, 눈밑 서클, 문신 위에 바르면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다. 눈밑 그늘진 부위나 서클에는 밝은 살색을, 기미, 잡티는 조금 어두운 살색을 이용하고 립 라인 수정이나 눈 점막 펜슬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화운데이션을 바른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3) 화운데이션

가. 특징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피부톤을 조절한다.³¹⁾

피부막을 얇고 부드럽게 한다.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화운데이션을 통해 피부가 피어나도록 표현한다.

나. 종류 및 사용법

가) 리퀴드 화운데이션 (liquid foundation)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마무리 하면서 가벼운 커버력을 지닌 리퀴드 타입의 화운데이션으로 투명감 있는 피부톤을 연출하여, 피부를 생기있게 표현하여 준다.

31)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앞의 책 p.157

입자가 미세하고 색상이 다양
하며 수분함량(50%)이 높아 보
습력이 뛰어나므로 모든 피부 타
입에 적당하다.

리퀴드 타입은 퍼짐성이 뛰어
나 소량으로 넓은 부위를 바를
수 있으며 커버력을 원할대는 소
량을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좋으
며,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피
부색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
다.

그림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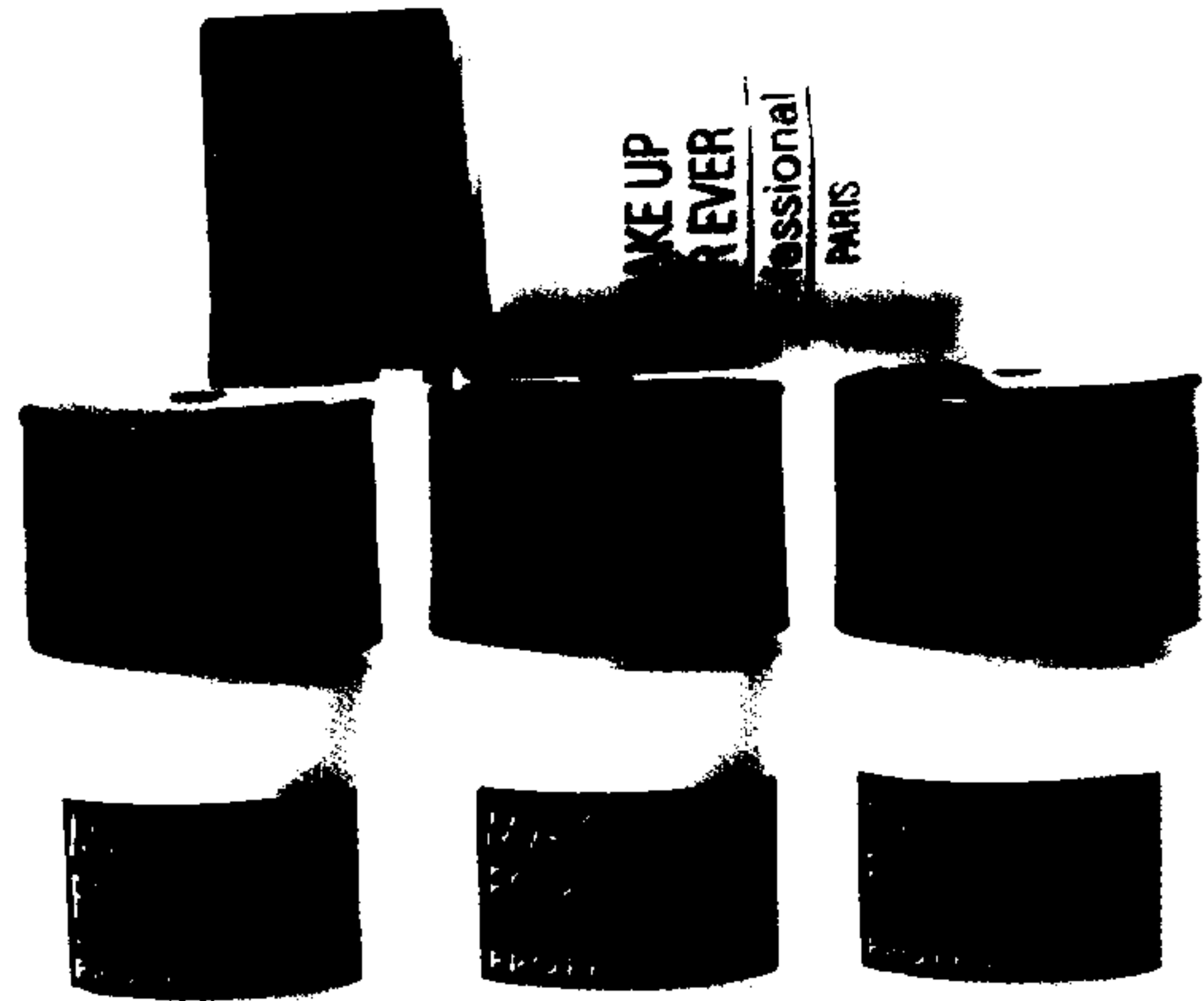


표 3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오렌지 베이지	약간의 노란피부를 원할 때 사용
밝은 베이지	밝고 화사한 피부톤을 원할 때 사용하며, 핑크빛이 약간 들어 있어 혈색이 없는 피부톤에 사용
누드 베이지	밝은 피부 표현에 사용
베이지	일반적인 피부톤에 사용
어두운 베이지	피부톤이 약간 어두운 경우에 사용
붉은 베이지	피부톤이 어두우면서 혈색이 없는 경우에 사용
황갈색	선탠한 피부톤 처럼 어두운 피부톤을 원할 때 사용

나) 크림형 화운데이션 (cream foundation)

퍼짐성이 아주 좋으며, 크림 타입이라 자연스런 피부 표현 보다는 피부 결점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며,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좋은 제품이다. 시간이 지나면 좀 밀리는 것이 약간 흠이다.

다) 케익이나 스틱형 화운데이션

그림 86



ㄱ. 특징

완벽한 카바력과 우수한 퍼짐성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스틱타입의 화운데이션이다. 커버력이 뛰어나면서도 피부 모공을 막지 않으므로, 피부의 생기를 유지시키면서 주근깨, 기미, 여드름 자국등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크림타입이므로 손가락보다는 스폰지를 사용하면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바른 후 부분적인 컨실러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펴주거나 화장용 스폰지로 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ㄴ. 종류 및 사용법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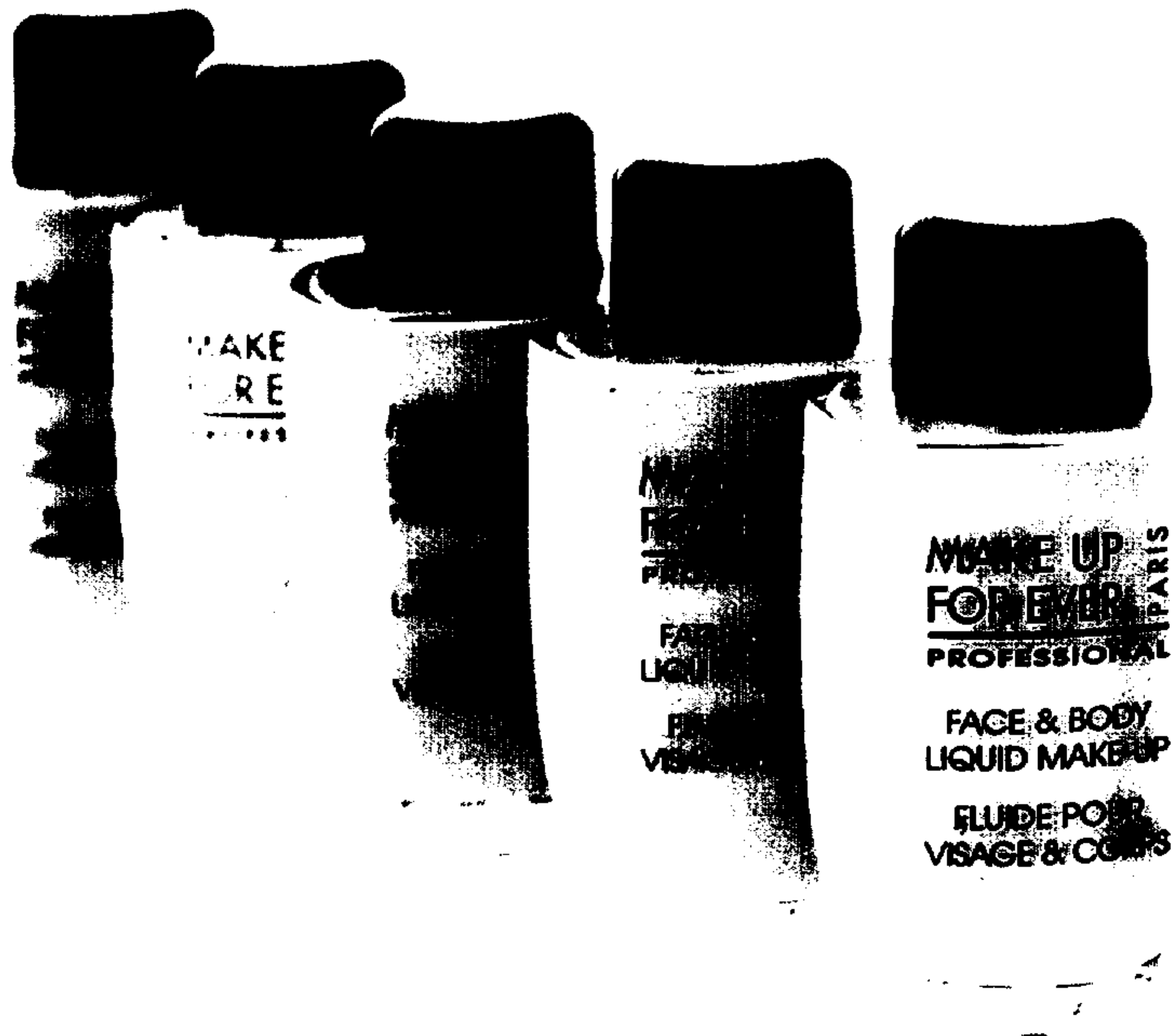
색 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밝은핑크 베이지 밝은 살색	하이라이트용으로 주로 사용
라이트 핑크	밝고 화사한 피부톤을 표현할때 사용
핑크베이지	밝은 피부표현을 원할때 다른 색상과 섞어 자연스런 피부표현
베이지	중간톤의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표현
어두운 베이지	약간 어두운 피부표현에 사용
다크 브라운	어두운 피부톤을 표현 할 때 사용, 윤곽수정에도 사용 남자 메이크업 에도 사용
화이트	분장이나 촬영시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
아이보리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
황갈색	갈색피부나 썬탠한 피부에 섞어 사용
초코 브라운	윤곽수정이나 분장용으로 사용
어두운 핑크베이지	어둡고 칙칙한 피부톤을 현색있게 표현할때 사용
베이지 핑크	중간 피부톤이면서 칙칙한 피부톤에 사용
라이트 베이지	붉은기가 없으며, 베이지보다 밝은 피부톤에 사용

라) 페이스 & 바디 화운데이션 (Face and Body Foundation)

ㄱ. 특징

수분타입의 새로운 화운데이션(OIL IN WATER 타입)으로 기존의 화운데이션보다 사용감이 훨씬 가벼우면서도 퍼짐성이 우수하며, 수분의 함량이 80%이상인 고보습 화운데이션으로 자연스러우면서 산뜻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20%의 오일 성분중에 미네랄 오일이 첨가되어 피부표면의 증발을 억제하며, 항상 새로운 사용감을 나타낼 수 있다. 페이스 & 바디 리퀴드 메이크업은 실리콘 유도체가 들어있어 밀착력과 지속력이 우수하며, 땀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 자꾸 덧바를 필요가 없으며 옷에 잘 묻어나지 않는다. 또한 피부의 표면에 있는 미생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주므로 여드름성 피부에게는 매트하면서 아주 적당한 제품이다.

그림 87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라이트 베이지	밝은 피부톤에 사용
베이지	일반적인 피부톤에 사용
붉은 베이지	붉은기가 돌아 혈색있는 피부표현에 사용
베이지 브라운	어두운 피부톤에 사용
짙은 갈색	썸탠 메이크업에 사용

마) 수성용 화운데이손 (Pan Cake)

수성용 화운데이손은 팬 케익(Pan Cake)이라 불리우며 일반인들보다는 주로 무용, 연극등 무대에서 사용을 많이 한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움직임이 많은 무용, 연극에 얼굴부터 몸 전체를 빠른 시간에 바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스펀지에 물을 묻혀 케익안에 적당히 문질러 물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빠른 속도로 바르고 빨리 마른다. 팔,다리 신체 접촉 부위가 많은 곳이나 동작이 많은 부위에 사용한다.

바) 메탈라이저(Metalizer) : 일명 펄 화운데이손

ㄱ. 특징

최근 유행하는 샤이니(shinny) 메이크업 유행으로, 펄의 형태가 바르기 쉬운 크림형으로 피부 표현단계에서 부터 부분적인 광택의 효과까지 표현할 수 있다.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광택을 원하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면 어떠한 형태의 파운데이손과 펄 화운데이손을 섞어 바를 수 있다.

또한 눈두덩이, 볼뼈위, 코, 이마, 턱밑등 하이라이트에 바르고 그위에
 펄 크림, 펄 섀도우를 발라주면 샤이닝(shinning)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
 다.

펄 화운데이션은 사계절 가능한 제품으로 섀넌, 스킨 메이크업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얼굴, 목, 어느 신체부위에 상관없이 쉽게 바를 수 있는 화장품
 이다.

그림 88



ㄴ. 종류 및 사용법

표 6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구리색	어두운 피부나 섀넌한 피부, 얼굴에 음영을 줄 때
골드	노란 색상을 원할 때
베이지 살색	내추럴하고 일반적인 피부

사) 트윈케익(Power Foundation)

파우다와 화운데이션을 한번에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어 있어 유독히 일본, 한국, 중국등 동북아시아 여성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피부의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피부에 탄력을 주며 사용 후 느낌이 가볍고 밀착력이 좋아 덧발라도 뭉치지 않게 색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외출 할 때나 사시사철 바를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 파우더 (Loose Powder)

가. 바르는 목적

피부표면의 유분을 흡수하면서 표면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표현한다. 입자가 미세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가장 잘 표현한다.

나. 바르는 테크닉

커버력이 적은 제품이므로 바탕에 화운데이션을 잘 펴 발라 피부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티존(T-ZONE)부위는 파우더를 충분히 바르고 건조한 부위는 가급적 적게, 눈두덩이는 정성스럽게 펴 발라 끈적임없이 발라야 아이섀도우를 잘 펴 바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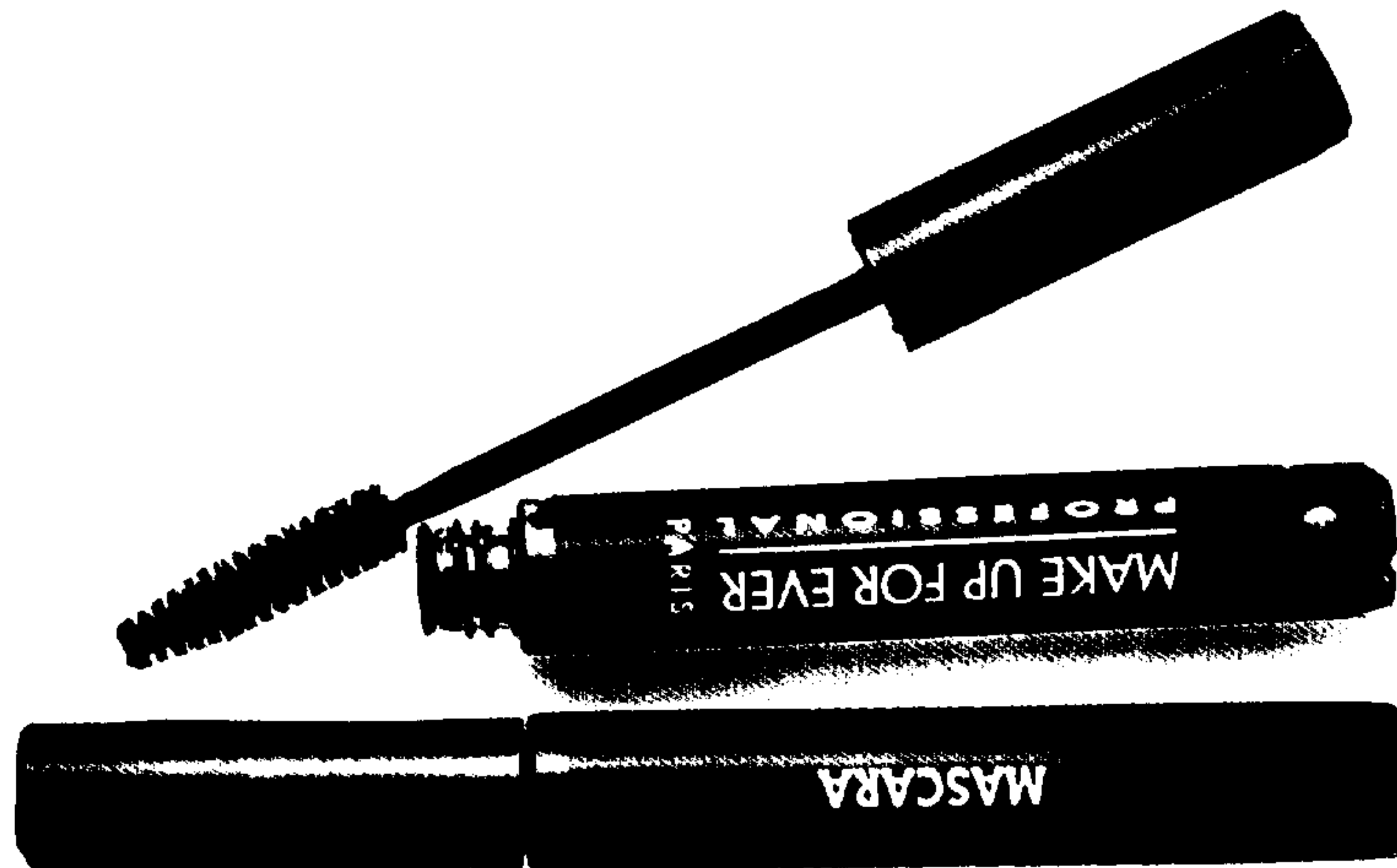
분침이나 큰 브러쉬로 발라 잔여분을 털어낸다.

그림 89



5) 마스크라 (Mascara)

그림 89



가. 바르는 목적

속눈썹을 짙고 풍성하게 눈매를 가꿔줘 눈의 인상을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뭉침없이 잘 발라져 눈매 표현이 잘되고 방수가 되는 워터 프루프(Water Proof)는 물, 땀에도 잘 번지지 않아 좋다.

나. 바르는 테크닉

바를 때 먼저 아이래시 컬러(Eyelash Curler)로 속눈썹을 올려주고 속눈썹 뿌리 부분에서 끝으로 가볍게 빗어내리듯 발라준다.

마스크라가 잘 발라지지 않는 눈머리 부분은 마스크라 눈썹솔을 약간 휘게 만들어 세세한 부분까지도 칠하고 눈꼬리 부분은 한 손으로 눈두덩이를 살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눈썹솔을 세워 바르면 각각 속눈썹이 뭉치지 않는 효과가 있다.

술이 적지 않으나 속눈썹이 많이 처진 여성의 경우에는 컬링(Curling)

기능이 뛰어난 마스카라를 선택해 바르고 속눈썹의 솔이 적은 여성은 볼륨 마스카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아이라이너 케이크 (Eye liner cake)

가. 특징

고형타입으로 물이나 스킨을 섞어 사용하며 건조가 빨라 쉽게 번지지 않으며, 건조 후 아이섀도우를 덧발라주면 그라데이션이 가능하여 메이크업이 자연스럽다.

또한 액상 아이라이너와는 다르게 번쩍임이 없는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풍부한 아이 메이크업의 연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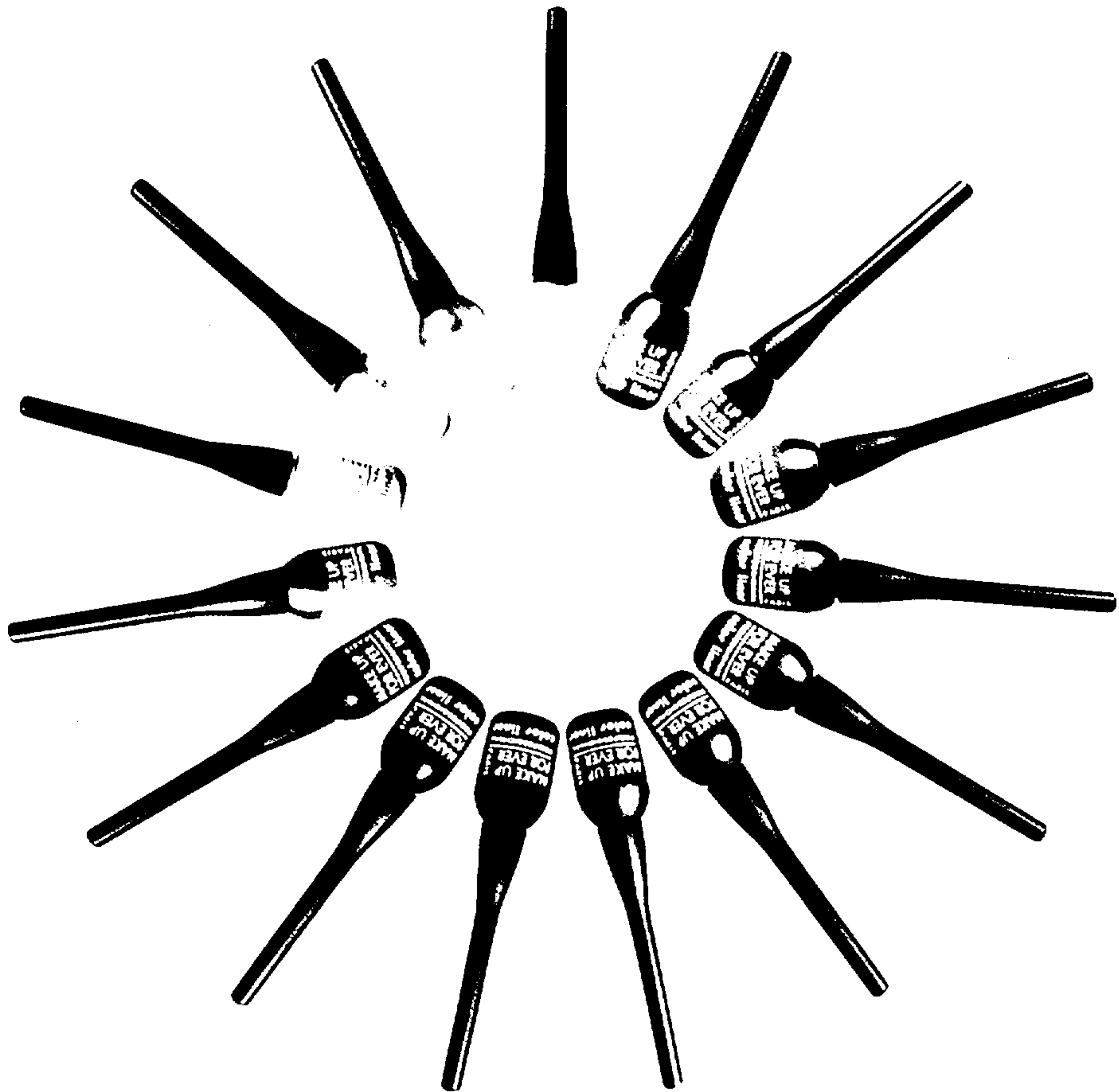
아이라인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으며, 속눈썹에도 덧발라 다양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종류 및 사용법

표 7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검정	가장 무난한 색상
파랑	시원스러운 눈매를 표현할 경우 사용
초록	그린, 오렌지 메이크업에 주로 사용
밤색	검정색과 섞어 깊이 있는 눈매를 표현
보라	여름에 주로 사용, 파랑색과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자주	분위기 있는 눈매를 표현, 아트 메이크업에도 사용

그림 91



7) 리퀴드 아이라이너 (Liquid eye liner)

가. 특징

액상타입으로 실리콘 유도체가 들어 있어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으며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눈꺼풀 전체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지속력이 강하므로 연극 분장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효과가 좋으며 아이리무버를 이용하여 깨끗이 세안해 주도록 한다.

나. 종류 및 사용법

표 8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은회색 펄	쌍꺼풀 라인에 넓게 표현하여 독특한 분위기 연출
청색 펄	시원한 눈매 표현
보라 펄	시원하며 신비로운 눈매 연출
녹색 펄	그린, 오렌지 메이크업에 주로 사용
짙은 보라 펄	분위기 있는 눈매를 표현
밤색	차분하며 내추럴한 눈매 연출
검정	선명한 눈매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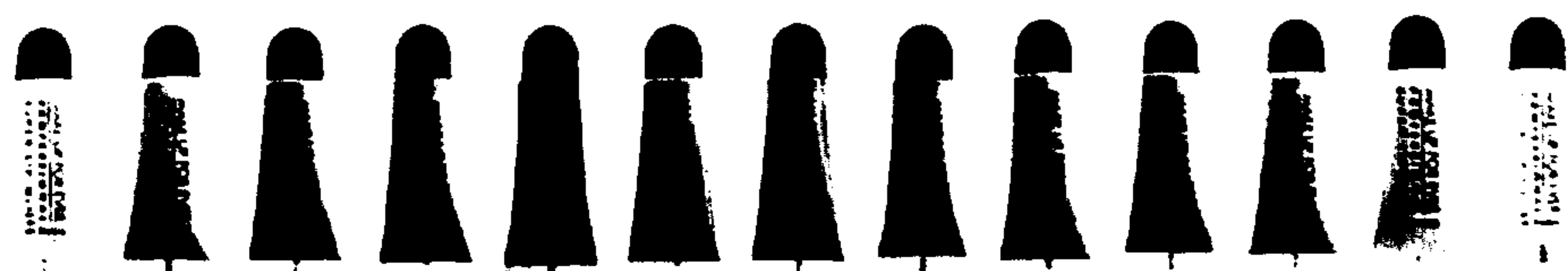
8) 립 글로스(Lip gloss)

가. 특징

실리콘 유도체인 디메치콘(dimethicone)이 함유되어 있어 지속력과 밀착력이 뛰어나다.

립스틱 위에 덧발라 입술의 볼륨감을 더하거나, 립펜슬로 그라데이션 후 사용하여 글로시한 립 메이크업 등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림 92



나. 종류 및 사용법

표 9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투명	립글로스의 투명감을 최대한 표현
핑크 베이지	내추럴 메이크업과 하이라이트 색상으로 사용
살구 베이지	짙은 갈색 계열과 믹싱하거나 하이라이트 효과
베이비 핑크	사랑스러운 이미지 표현
스트로베리	딸기 색상으로 달콤한 이미지 연출
코코아	브라운 계열과 와인계열 메이크업 시 촉촉한 분위기 연출
쇼콜라	초콜릿 색상으로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
보르도	포도주 색상으로 이지적이며 세련된 느낌 연출
레드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표현
실버	입술 중앙에 덧발라 시원한 볼륨감 연출
골드	입술 중앙에 덧발라 분위기 있는 립 메이크업 연출
레드 브라운 펄	붉은 계열과 브라운 계열을 모두 소화해 내며 차분한 분위기 연출
바이올렛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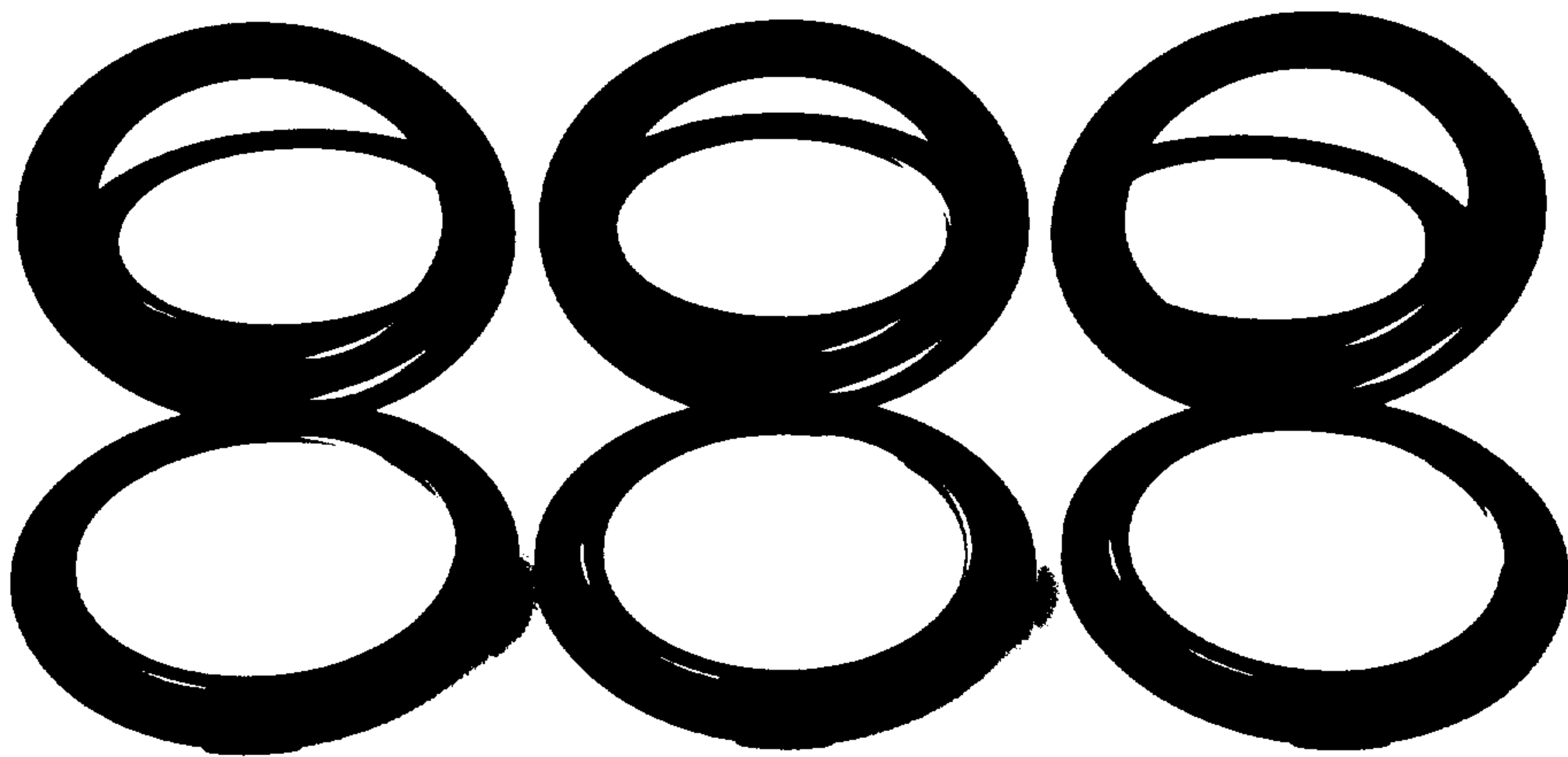
9) 펄크림 (Pearl cream)

가. 특징

펄이 들어간 크림 타입의 아이섀도우로 특별한 테크닉 없이 손, 면봉 등을 이용하여 섀도우를 할 수 있다. 매트한 펄 아이섀도우에 비해 발색력이 높고 펄크림을 바른 후 펄 아이섀도우를 덧바르면 발색력과 지속력이 한층 더하다. 아이섀도우 뿐 아니라 하이라이트, 볼터치, 입술 등에 사용해도 촉촉하면서 샤이니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사용할 때는 항상 파우더 전에 발라야 뭉치지 않고 고루 퍼지며, 그 위에 펄 아이섀도우를 덧바르면 샤이니한 느낌이 극대화 된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할 때는 펄크림을 바른 후 파우더를 덧바른 다음 아이섀도우를 바르도록 한다.

그림 93



나. 종류 및 사용법

표 10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화이트	눈두덩이 전체 베이스, 얼굴의 하이라이트 부분
파스텔 핑크	핑크나 와인드의 베이스 단계나 볼터치
라이트 골드	골든 옐로우, 브라운 등의 베이스 단계
헤이즐넛	눈두덩이 베이스 색상이나 볼터치 색상
파스텔 블루	블루 메이크업을 한층 밝고 샤이니하게 표현
핑크 브라운	볼터치 색상
로즈 와인	장미색으로 와인 메이크업에 사용
레드 브라운	골드나 브라운 메이크업에서 원 포인트로 사용
파스텔 그린	그린이나 블루메이크업에서 눈두덩에 퍼발라 부드러운 느낌
사파이어 블루	군청색으로 진한 원포인트 메이크업 시 사용
다크 그레이프	짙은 포도색으로 그레이나 바이올렛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로 사용

1) 스타 파우더 (Star powder)

가. 특징

가루 타입의 펄 아이섀도우로 화려하고 환상적인 메이크업을 할 경우 사용하는 제품이다. 아이섀도우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메이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볼터치, 입술 메이크업 그리고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머리카락 등에 뿌려 광택감을 주는 등 사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을 묻혀서 사용하기도 한다. 브러쉬에 소량을 묻혀서 원하는 부위 (눈앞머리, 눈썹뼈의 하이라이트) 에 살짝 찍듯

이 발라준 후 브러쉬를 교체하여 다시 한 번 그라데이션하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림 94



나. 종류 및 사용법

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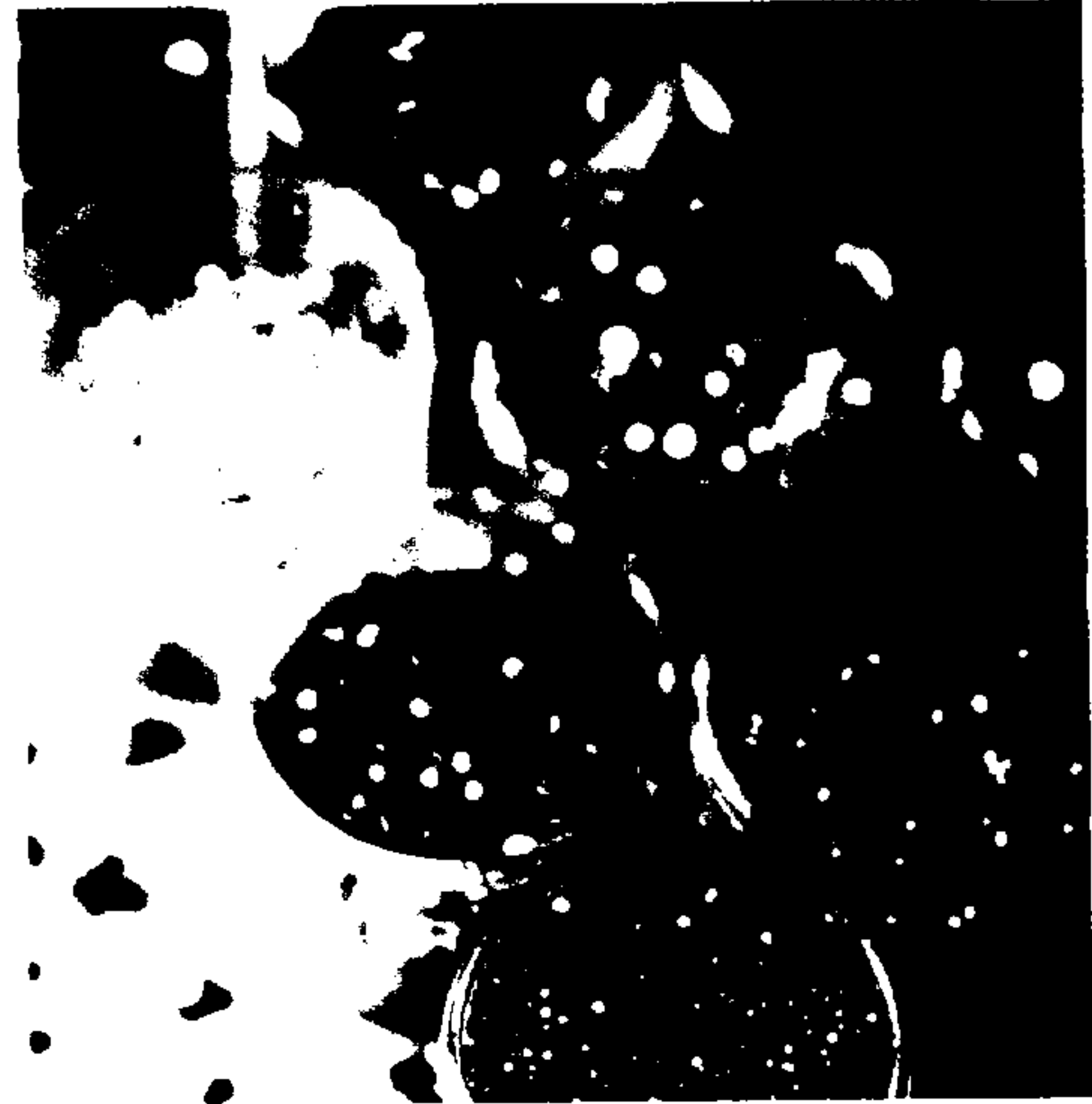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화이트 퍼플	화려한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로 사용
화이트 옐로우	모든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로 사용
화이트 핑크	흰색필에 핑크필이 섞여 있는 색상
스카이 블루	푸른색의 복고풍 메이크업에 사용
코발트 블루	여름철 메이크업에 사용하면 시원한 느낌
카키 블루	카키 및 브라운의 포인트 메이크업시
핑크	핑크나 와인 메이크업에 포인트 컬러로 연결하여 사용
살구색	인디안 핑크, 와인, 블루 메이크업에 잘 어울림
하바나 로즈	와인이나 브라운 메이크업의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
골드 브라운	선텐 메이크업 잘 어울림.

11) 반짝이 (Glitters)

가. 특징

그림 95

아이섀도우 컬러를 더욱 화려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짝이를 사용할 수 있다. 쌍꺼풀 전체에 밝은색의 반짝이를 바르거나 눈꼬리나 눈썹뼈 부위에만 포인트로 표현하여 아이섀도우의 효과를 높여준다. 특히 조명이나 햇빛 아래에서 반짝임이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된다.



젖은 브러쉬에 묻혀 사용할 수도 있고, 투명 립 글로스에 섞어 반짝이는 젤 형태

로 눈썹이나 머리카락, 아이라이너, 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얼굴 전체 또는 바디라인에 표현하고자 할 때는 미네랄 워터 스프레이를 원하는 부위에 분무한 후 손바닥 위에 반짝이를 덜어 붙여준다. 그러면 반짝이들이 가볍고 균일하게 표현된다. 투명 매니큐어에 섞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종류 및 사용법

표12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골드	글로시한 피부 표현, 골드 메이크업시 사용
실버	신비로운 분위기 표현
화이트 퍼플	눈썹뼈 하이라이트, 바디라인
화이트 옐로우	눈썹뼈 하이라이트, 바디라인
터키 블루	아이라이너, 포인트 표현
보라	아이라이너, 포인트 표현

2.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life style 변화에 따른 색조 화장품 이용 실태

1) 색조 시장의 고객 가치 평가

화장품에서 색조 화장품과 스킨케어로 나누어 지고 있다.³²⁾ 그렇다면 고객을 가치평가하기 위해선 고객이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주는 이익을 바탕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고객의 유지와 그 고객이 쓴 가격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는지의 여부, 실질적인 이윤, 잠재적인 이윤 등이 고려 대상일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선 스킨케어보다 색조화장품 시장에는 마케팅(Marketing), 소비자 호응도, 색상 선택, 스톡(Stock)보유 때문에 개발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입화장품 개방이후 많은 수입화장품중에서 색조전문 화장품이나 색조가 강한 Chanel, Christian Dior, Lancôme, Yves Saint-Laurent등이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IMF이후 환율 폭등으로 수입화장품의 소비자 가격(Retail Price)이 약 30~35%이상 또는 더 올린 화장품도 있다.

이러한 수입화장품 시장의 위기를 역이용해 많은 국내 브랜드는 더욱 약진을 하고 소비자들도 한국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소비를 하게 되었다. 특히 색조 화장품의 소비는 10대 후반과 20대~30대 여성들로 대학생, 직장인, 미시주부 또는 전업주부들이 주 소비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 사이클도 40대~50대 여성들보다 굉장히 빠르며 충동적이라 할 수 있다.

32) Frank Mulhern(North western 대학교수),
고객의 가치평가와 IMC를 위한 타겟 설정, 서울국제광고세미나, 1997.

2) IMF이후 색조시장의 판매현황

색조화장품에서는 수입브랜드의 최초 상기율은 그림 2-1, 2-2 <직업별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내 브랜드 최초 상기율 변화 추세 비교>에서와 같이 98년 2월 10.2%였던 것이 98년 8월이후 20%대를 유지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구입희망률에서도 98년 2월 15.6%였던것이 98년 8월이후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색조화장품 가운데 주로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현재 주 이용자 비율은 97년 2월 15.4%에서 98년 8월이후 20%내외로 신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13에서와 같이 색조화장품 브랜드 호감도에서 수입브랜드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8점을 기록해 국산브랜드의 69.7점에 비해 8점 가량 높다. 브랜드에 대한 선호, 비선호 이유에서 수입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15.7%로 국산브랜드의 15.8%와 동일하고 가격의 경제성 측면도 4.2%로 국내 브랜드의 2.5%로 1.7%정도 높으며 품질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는 60.1%, 국내 브랜드 46.8%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색조 화장품에서 수입브랜드는 기초 화장품과 달리 가격측면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품질력에서의 뚜렷한 강세를 바탕으로 기초 화장품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크게 앞서고 있다.³³⁾ 특히 색조화장품중의 립스틱은 1994년 이래 줄곧 국산품의 사용률이 감소하고 수입품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IMF이후에도 수입품의 사용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운데이손은 IMF이후 국산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사용이 감소하기는 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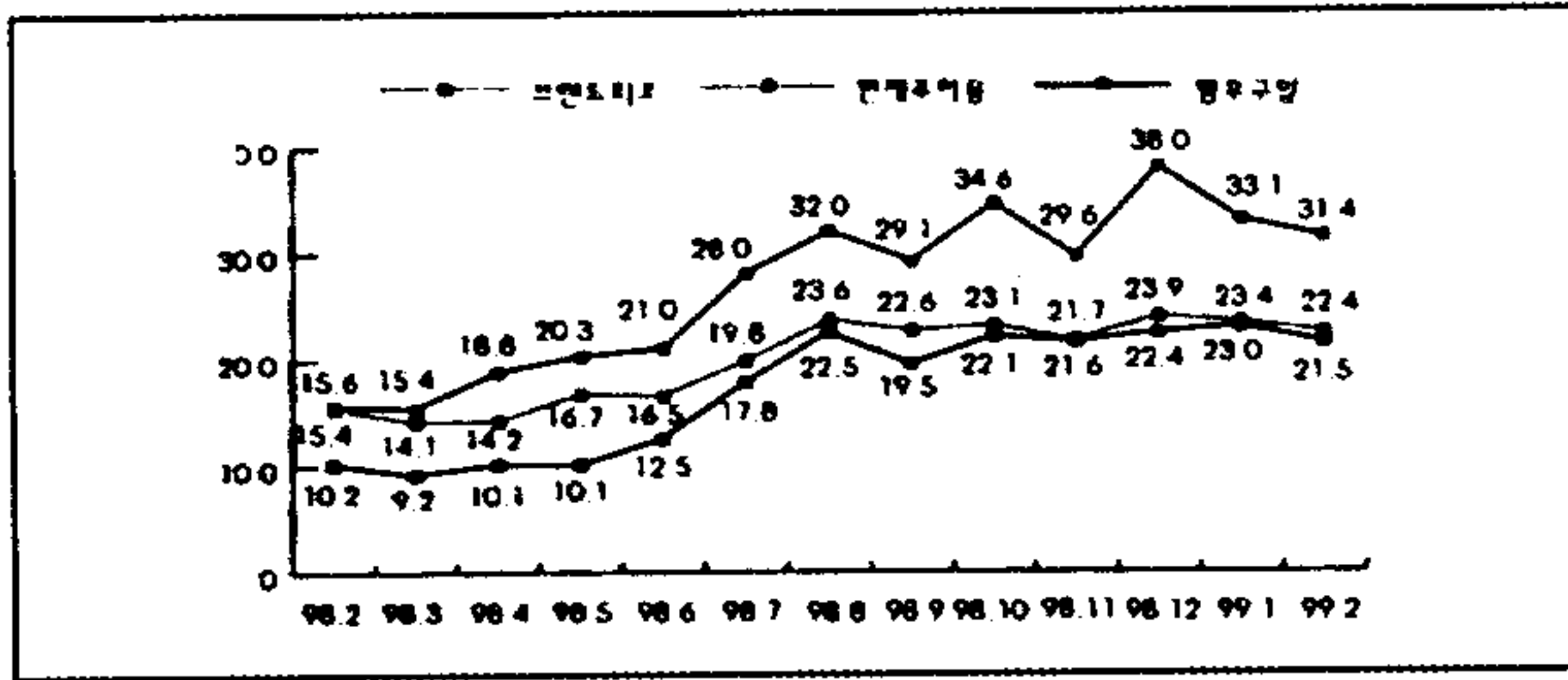
33) CMN Marketing Review, 1999. 5. 19., 제11호.

34) Consumer Profile Research, 20대 여성의 화장품 이용 행태 및 라이프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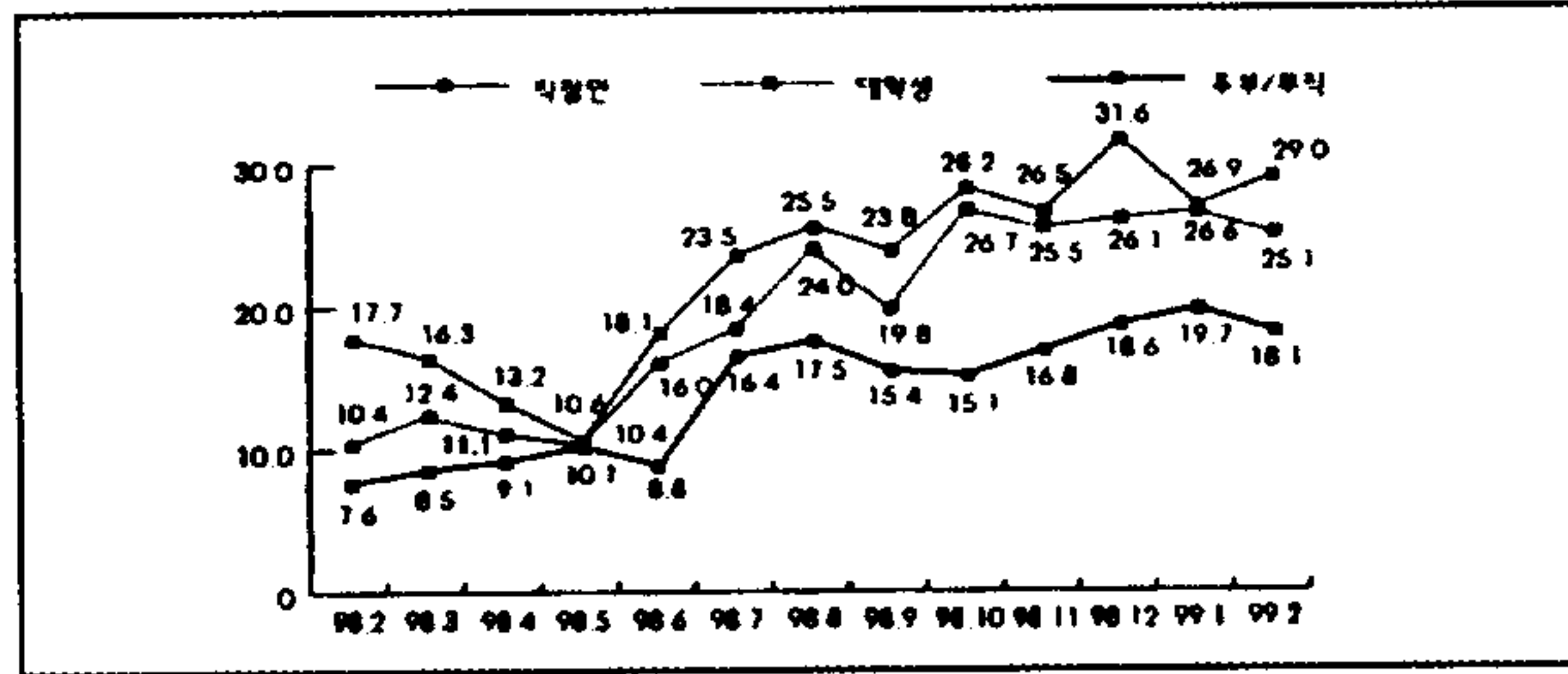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색조화장품은 기초화장품보다 시장점유율도 높고 소비자 구입희망율이 높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나 유효기간표시 의무화, 보상제도, Internet 사이버공간 판매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옆으로 바짝 다가서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표13

〈그림1〉 메이크업제품내 수입브랜드의 브랜드파워 변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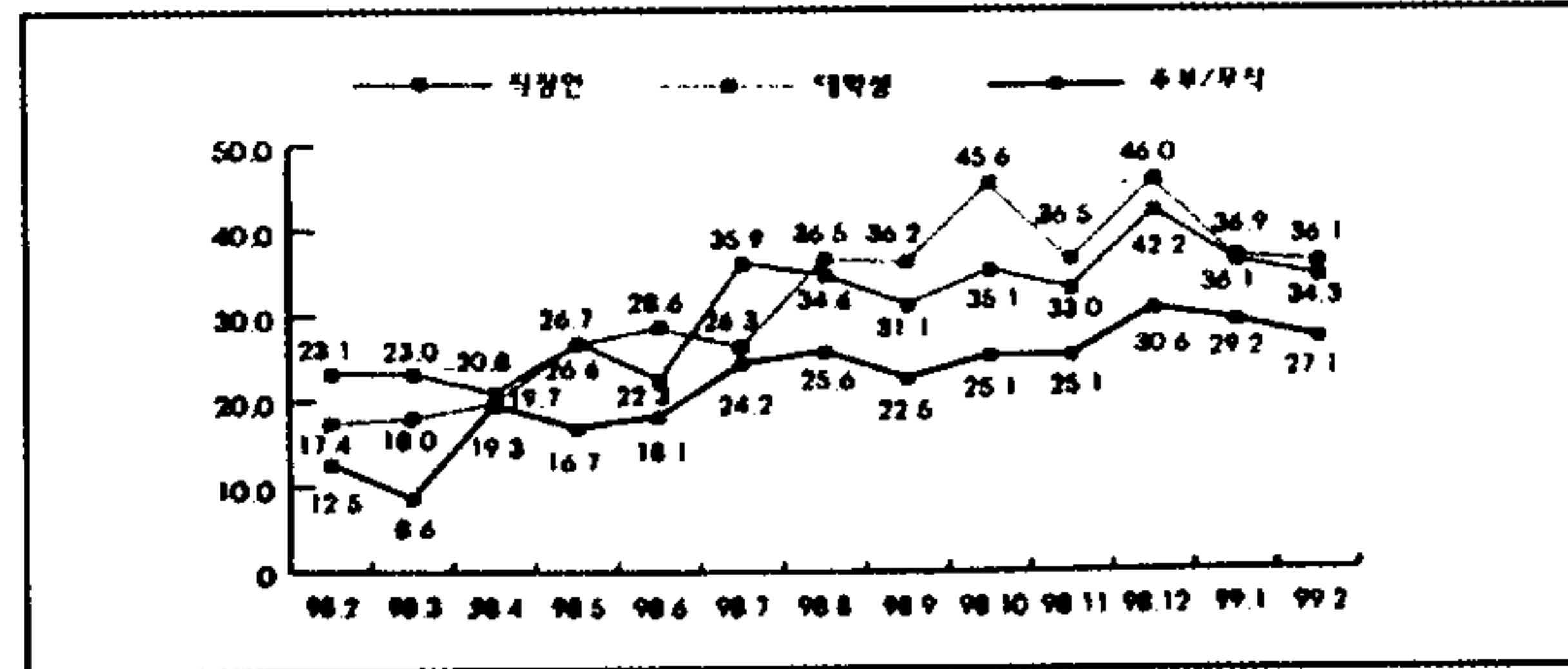
〈그림2〉 직업별 메이크업화장품시장내 브랜드 최초상가율 변화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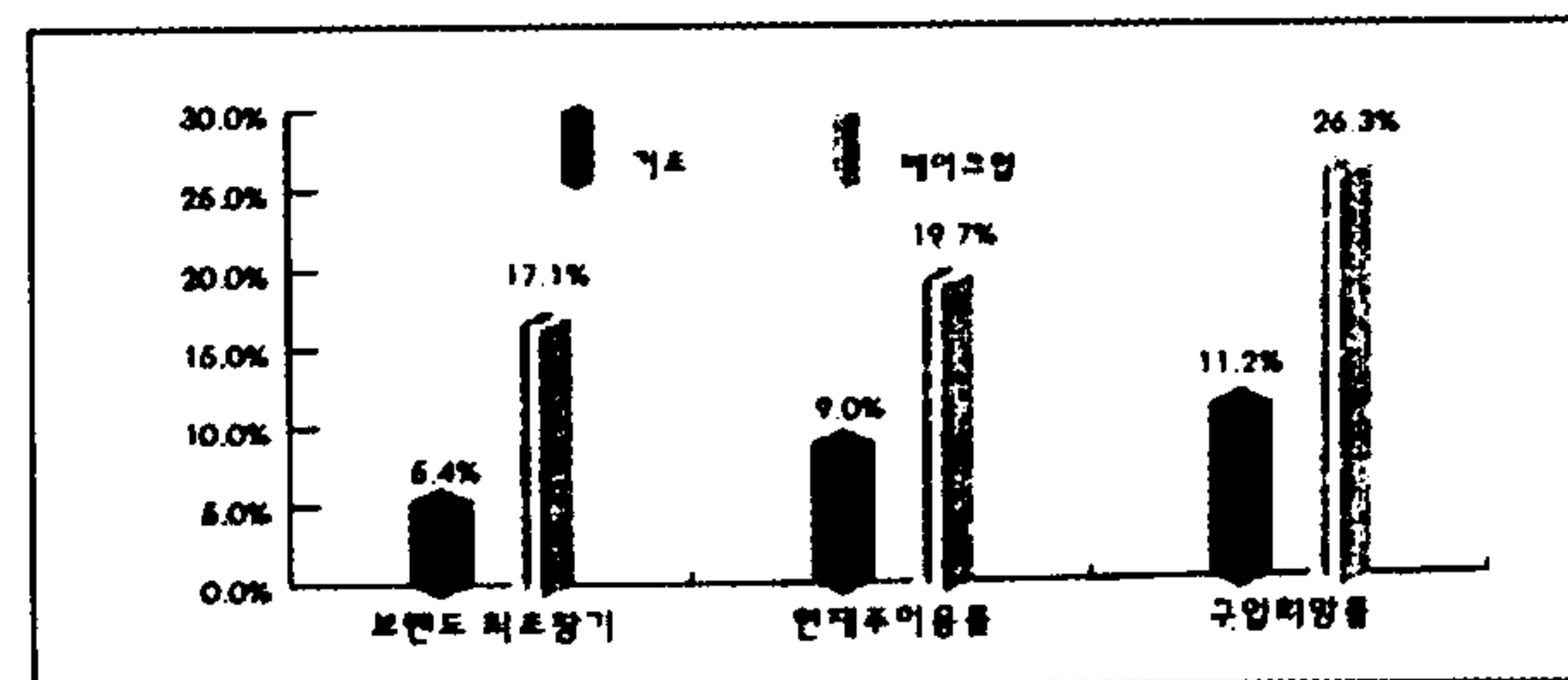
〈그림2-2〉 기초/메이크업시장내 수입브랜드의 브랜드파워 직업별 비교 (단위: %)

구분	기초	브랜드 최초상가율	주요용자 비율	향후구입 희망률
전세	기초	5.4	9.0	11.2
	메이크업	17.1	19.7	26.3
대학생	기초	6.2	9.2	11.8
	메이크업	21.3	20.8	31.5
직장인	기초	7.1	11.8	14.8
	메이크업	21.2	23.5	30.7
주부/무직	기초	4.1	8.2	8.5
	메이크업	13.8	17.6	21.9

〈그림3〉 직업별 메이크업화장품시장내 향후구입희망률 변화추세 비교



〈그림4〉 기초/메이크업시장내 수입브랜드의 브랜드파워 비교



V. 結 論

20세기에 들어와 형성된 화장문화의 원천과 변천 과정을 통한 이론, 실기인 메이크업 테크닉과 색조 화장품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은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고 잘 조화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가치의 추구 행위로서 인류 시작과 함께 해 온 화장은 피부 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으로 다른 치장요소에 비해 방법이나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0세기 전까지는 화장품의 원료 구입, 제조 방법 등의 한계로 보편화가 되지 못하고 상류층의 귀족 계급이나 특수 계층의 여성(매춘부)들의 전유물로서 사치와 신분의 차이가 반영된 문화였다.

20세기 현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대중이 출현하면서 산업화의 진행으로 화장품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자의 선택과 취향이 중시되는 현재 일반에 까지 대중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는 6.25 전쟁 후 서양영화의 수입과 미군의 주둔으로 서양식 문화의 급속한 전파로 특히 하향전파로 유행이 이루어져 유행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1970년대의 산업화, 대중매체의 발달, 1980년 컬러 TV의 보급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 개방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영화, 음반, 서적, 잡지, 패션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뉴욕, 파리, 밀라노의 유행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서울의 거리에서 발견되는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외국 화장품의 수입과 함께 한국 화장품 시장은 볼륨도 커지고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모두 상륙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예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색조 전문 브랜드까지 등장하여 우리의 화장품 색깔이 다양해지면서 메이크업 테크닉메이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즈음 화장문화는 물론 토털 문화로 자리 바꾸어 가고 있지만 화장의 테크닉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개성 있는 젊은 세대들은 좀처럼 한곳에 유행의 집착을 두지 않고 여러 형태의 변덕스러움이 유행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화장문화사의 변천과정과 화장기법을 요약해 보면, 첫째장인 서양 화장 문화사는 이미 그리스, 로마시대 이전부터 발달하여 표현 완성기인 20세기 부터 10년 단위로 유행이 꾸준히 왔다 또 다시 새로운 유행을 낳았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는 에콜로지풍, 자연주의, 신복고풍, 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유행이 한꺼번에 오는 다중유행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 화장품 산업이 본격화 되고 나라에서 육성하기 시작하는 1961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를 맞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유럽, 동남아, 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고, 화장품 산업 역사가 짧아 아직도 국내 화장품 업계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둘째장인 사람의 조형적 메이크업 테크닉과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인체 부위 중에서 얼굴의 부분부분 요소를 따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일러스트로 하나하나 표현하여 이론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눈의 형태나 서로 다른 얼굴형의 분석은 여러 부분으로 조각내어 상세히 설명하였고 실물 사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러스트로 처리하였다.

셋째장은 화장품과 메이크업 테크닉을 조화있게 하려면 품질 좋은 재료 선택이 중요성을 갖고 각 색조 화장품의 유형과 특징, 색상이 주는 성격,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색조 전문 화장품으로 독창적으로 전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화장품에서는 색깔 분류대로 특성 및 특징을 표현해 주었다.

화장문화의 급속한 확대와 많은 전문대학의 미용과 및 피부 미용 학과가 50개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확실한 메이크업 이론과 실기 테크닉의 정립이 확고한 때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과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적가치를 높이는데 화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보다 프로정신과 성실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제품과 그와 걸맞게 테크닉과 제품의 성질을 자세히 아는 정보 지식은 고도의 산업화, 대중화로 가는 21세기 사회에서 보다 나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굳힐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순, 메이크업, 1995, 청구문화사
-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1985, 정음사
- 이호정, 패션 마케팅 & 패션 트렌드 분석(1955 ? 1995), 1996,
교학연구사
- 양덕재, 최신 화장품학(상, 하), 1998, 장업신보사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1998, 도서출판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1996, 수문사
- 임은모, 메이크업과 마케팅, 1999, 진한도서
- 최영훈, 색채학 개론, 1984, 미진사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문화 비교 연구, 1998,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1993,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1996,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국 장업 50년사, 1986,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
- 한국 장업 50년사, 1998,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
- 이화순, 한국 여성의 메이크업 조형성에 관한 연구
(얼굴형에 적합한 화장 색조와 선을 중심으로), 1992,
홍익대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미니크 파케, 화장술의 역사(거울아 거울아), 1998,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 장업신보 1999년 230호 ~ 258호
- CMN(Cosmetic Marketing News) 1999년 23호 ~ 29호

Stefan Zweig/안인희 옮김, Mary Stuart, 스코틀랜드의 여왕, 1997,
 자작나무

Stefan Zweig/백광자, 전영애 옮김, Marie-Antoinette,
 베르사이유의 장미 상, 하, 1992, 도서출판 까치

영화잡지 Première 1999년 2월호 ~ 10월호

리튼 스트래치/이준 옮김, 엘리자베스와 에섹스, 1999, 나남출판

Maria Constantino, Fashion of a Decade The 1930s (Hooray for Hollywood), 1990,
 Batsford

Patricia Baker, Fashion of a Decade The 1940s (New look sensation), 1993, Batsford

Patricia Baker, Fashion of a Decade The 1950s (Living dolls, Hollywood dreams), 1995,
 Batsford

Jacqueline Herald,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Dressed to clash), 1994, Batsford

Dictionnaire de la mode du XX^e siècle, 1997, Editions du Regards

100 ans de Beauté, 1996, Editions Atlas S.A.

Kate de Castelbajac Rizzoli, The face of century, 100 years of make-up style, Newyork

Kevyn Aucoin, Making face, 1997, Little Brown and company

Stéfane Anselmo, Devenez une pro du maquillage, 1999, Les nouvelles esthétiques

Kevyn Aucoin, The art of make-up, 1996, Harper collins publishers

Les nouvelles esthétiques (1997 ~ 1999)

Francois Boucher, 20th years of fashion, Harry & Abrams inc. publishers

Grandes Dames du cinema (nouvelle édition), Grund

Les années folles de la mode (1920 ~ 1932), CELIV

Elizabeth Leese,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1991, Dover publication, Newyork

ABSTRACT

The study of make-up techniques shown in make-up relevant history.

Lee, Eun-Im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Studying both the origin of the 20th-developed make-up culture and the course of its change brought us up to a full understanding of the co-relation between make-up technique and tint-cosmetics.

The so-called make-up is usually interpreted as a bid to create a valuable beauty through a harmonious combination of hues and incense conducted, in particular, on an individual face. Though it started with the genesis of human beings, the fact that cosmetics is ,as usual, conducted only on the skin has served as an mai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its method and change, comparing with other decoration-relevant elements.

Just before the 20th century, only nobles in high class or special-bracket women such as prostitutes could enjoy cosmetics, because of no generalization of cosmetics which stems from the then difficulties to obtain cosmetic-relevant raw materials and limited technique to produce them. As a result, the use of cosmetics reflected luxurious life and so-called status gap between people.

The 20th's appearance of the public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brought in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which gave the public lots of chances

to use make-up. Even people got to pursue their preference and choice in cosmetics.

Furthermore, It took long time for Korea's cosmetic-culture to spread over the nation, because after the Korean civil war, the nation imported many western movies and had numerous US troops stationed, which created so-called vertical-fashion extension. In other words, these two factors kept fashion from spreading over the nation. But the nation saw various changes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mass media in 1970s, expansion of Color TV in 1980, and Seoul Olympic in 1988 which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nation's globalization and door-opening to other countries. This momentum successfully met cultural requests in terms of movie, music, magazine and fashion. As a result, in less one month, everybody can see various trends in Seoul which has been shown in New York, Paris, and Milano.

From the beginning of 1980, the nation has had Korean make-up products markets extended, along with imports of western cosmetic products. And in the wake of the bombardment of prominent cosmetic-relevant brand names from overseas, Korean consumers have got to get the more broad span in choosing cosmetics. And the appearance of a tint brand which was not shown in Korea before has made consumers have interest in make-up technique.

These days, the make-up culture have been turning into so-called total culture. But make-up technique also grows various, while young generation pursues various fashions. In a nutshell, a variety of fashion types is looming as a trend dominating the nation.

Let's look over change-process and make-up techniques in make-up culture history.

First chapter deals with western make-up culture history. The western

make-up culture history already started before the era of Greece and Rome. And then it became full-fledge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ince then it has eyewitnessed changing-fashion on a 10-year basis. That is to say, fashion has a tendency to repeat its various patterns. And echology fashion, naturalism and new renaissance have changed their hands between 1980s and 1990s, bringing about so-called multi-fashion trendy which puts various fashions together. Korea's make-up business got into full-swing after the Korean civil war which had took place in 1950. And from in 1961 when the then government had started its bid to foster the cosmetic business, the cosmetic industry underwent rapid change. And Korean cosmetic brands have advanced into overseas markets such as Europe, Southeastern Asia, and America. In spite of th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 of a few cosmetic products, Korean still doesn't have its worldly-well-known brand. In addition, in the wake of its short history regarding cosmetic business, domestic cosmetic-relevant companies have many obstacles which they should solve by themselves.

Chapter two handles a modeling make-up technique and an analysis of it. For this, analyzing of each part of complexion and illustration of the complexion were conducted. Above all, my efforts was given to a graphic, exact explanation of the principle.

Details of varioius eye shapes and an analysis of different face types were conducted by cutting them into parts. And as an effort to make it clearer than its photograph, an graphic illustration is introduced in this chapter.

It's very significant to choose good materials for conducting a harmonious combination of cosmetics and make-up technique, For this, chapter 3 deals with a various type of cosmetics, peculiarity, characteristic which stems from

tints, and how to use them in a detail manner. Especially as far as coloring cosmetic goods for professionals are concerned, I detailed their own characteristic and peculiarity according to tints.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a surely speedy expansion trendy in cosmetic culture, the increasing popularity in the subjects of beauty art and skin-management in 50 universities including two-year college, it's the right time for us to push up our efforts to secure more logical make-up theory and practical make-up technique.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what many students and young women use make-up to glamour their beauty, a more perfect education should be made for those who want to engage in the cosmetic business.

And the acquisition of lots of information to figure out quality of products and new make-up technique will lead you to becoming a professional in this field in the incoming information age.